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 해제

1995. 12.

이 교 덕

(北韓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序 文

우리 나라에서 북한에 관한 학문적 연구활동이 시작된 지 어언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그 동안 많은 연구성과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북한연구의 현 주소를 '과학'이라고 자신있게 말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된다. 특히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과학'의 척도로 볼 때는 더더욱 그러하다.

북한연구가 '과학적 연구'로 발전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다양하나 가장 선차적인 것은 북한연구를 위한 자료의 부족과 자료입수상의 제약, 북한자료의 신빙성에 대해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 등이다.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가 풍부해도 연구는 결코 쉽지 않은 법인데 북한연구의 경우는 자료마저 그 절대량이 극히 부족한 실정에 있다.

물론 북한연구를 위한 자료부족 문제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목표로 하는 북한연구가 자료상의 난점으로 인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통일을 지상과제로 삼고있는 이상에는 불가능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도전의 첫 걸음은 말할 것도 없이 한정된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일테다. 이 때문에 민족통일연구원은 매년 북

한의 주요 기초문헌을 해제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금년은 당 기관잡지로서 「로동신문」에 상용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해제하였다. 「근로자」가 북한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는 자료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정리한 것이 없어 많은 불편과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 연구가 그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995. 12.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要 約

북한 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잡지인 「근로자」는 김일성의 교시와 혁명역사, 노동당의 혁명전통, 당 건설상의 제문제,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과 관련된 이론실천적 문제, 남한혁명과 통일에 관한 문제, 당의 대외정책과 국제관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문제, 소위 '미제의 침략정책과 반동적 부르조아사상'을 분석·비판한 여러 가지 논설들을 싣고 있다. 북한정권과 당은 이같은 「근로자」의 논설을 통해 북한사회에서 매 시기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지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62년부터 1991년까지 발간된 「근로자」 중 입수가 가능한 논설의 주제를 총 86개 항목으로 분류한 다음 각 항목에 속하는 논설수의 증감을 10년대별로 관찰하여, 도출된 결과가 과연 북한사회의 시대별 변화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했다.

1. 「근로자」의 성격

「근로자」는 북한 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대표적인 정치이론잡지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 노선과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당 최고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며 당 노선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는 1946년 10월25일에 창간된 이래 월간이었으나 1962년 4월에 반월간으로 전환하였다가 1966년에 다시 월간으로 전환하여 1991년 12월까지 누계 596호를 기록하고 있다. 1991년까지 북한은 「근로자」를 해외에 배포하였으나 1992년 이후부터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근로자」의 처음의 체제는 4.6배판 50-60쪽 정도였으나 1985년부터 100쪽 가량으로 증면되었다. 편집내용은 목차 뒤에 반드시 김일성, 김정일의 문헌을 싣고 그 다음 편집국 논설과 기명논설을 게재하고 있는데 편집국 논설이 언제나 기명논설에 앞서는 것은 아니며 또 권마다 매번 실리는 것도 아니다. 기명논설의 주제는 주로 정치사상문제, 혁명전통 및 당건설문제, 경제문제, 과학문화문제, 남한 및 국제문제 등이며 필자는 대부분 당과 정무원 및 사회단체의 간부급들이다.

이 잡지는 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정책방향을 당 간부와 당원들에게 정확히 전파하는 동시에 각종 시책의 관철을 촉구하는 교양 선전물이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해설성의 논설과 촉구성의 지시 등으로 채워져 있고 끝부분에 사회주의 우방국가들의 당 대회 문헌과 방문기 등이 참고자료로서 간헐적으로 게재된다.

2. 「근로자」의 역할

북한에서 「근로자」가 하는 역할은 선전선동자적 역할, 조직자적 역할, 문화교양자적 역할로 집약될 수 있다. 여기서의 선전선동자적 역할이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이론,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제기된 혁명과업 수행에로 조직동원하는 것을 말하며 조직자적 역할은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 수행을 위하여 당원들과 대중들을 한 데 단합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이끌어들이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교양자적 역할이란 근로자들을 풍부한 문화적 소양과 높은 기술을 소유한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런 역할들은 사상교양을 통한 당 정책의 철저한 구현을 위한 것이므로 상호 독립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3가지 역할 가운데 선차적인 것을 지적한다면 선전선동자적 역할이며 선전과 선동을 굳이 구분할 때 「근로자」의 경우 그 말은 일차적인 역할은 선전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어떤 내용의 선전을 주임무로 하는 것일까?

첫째는 주체사상 교양,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당 정책 교양, 혁명전통 교양, 계급교양 등의 사상교양을 축으로 한 정치사상문제의 취급이고 둘째는 “공산주의의 물질적 요소를 점령”하기 위해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는 것이며 셋째는 “남조선혁명에 관한 당의 전략전술적 방침과 자주적 조국통일

방침을 널리 해설선전하고 미일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선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내용 대부분은 바로 이것들을 기본주제로 하고 있다.

3. 「근로자」의 구성

「근로자」는 거의 대부분이 북한의 대표적 언론학 이론서인 「신문리론」의 분류에 의하면 논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설이란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본질적 내용, 그의 합법칙성과 현실적 해결 방도를 이론적인 분석과 논증을 통하여 밝히는 기사”인데, 「신문리론」은 논설이 특정문제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해설이므로 심오한 교양적 성격을 띤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으며 그 목표가 당의 의도와 방침을 해설·논증함으로써 독자를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논설의 목적이 일차적으로는 독자를 납득시키는 데 있으므로 당연히 논설에게는 “당 정책을 인민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이바지”하기 위해 “인민대중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하도록 쓰여져야 한다는 원칙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정치이론잡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논설의 내용이 까다롭고 난해하며 현학적이지 않고 매우 평이하다.

한편 논설은 그 내용에 따라 정치논설, 경제논설, 정세논설,

기념논설로, 그 성격과 서술방식에 따라 이론논설, 경험논설, 지도논설, 보도논설, 해설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근로자」의 논설은 내용으로 볼 때 정치논설이, 성격으로 볼 때 이론논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이론잡지로 지칭되고 있다.

「근로자」에는 이같은 논설 이외에 서적해제, 문학예술평, 방문기, 각종 문헌 등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특징은 제2장의 2절에 요약되어 있다.

4. 「근로자」 논설주제의 변동양상

논설주제를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문화,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의 5개 범주로 대분류할 경우 정치분야의 논설이 45.4%로 으뜸이고 다음이 경제분야의 논설로 23.3%, 사회문화분야의 논설이 11.8%로 3위이며 군사외교가 10.4%, 통일문제를 다룬 논설이 9.1%이다.

사회문화를 사회와 문화로, 군사외교를 군사와 외교로 각각 분리했을 경우의 순서는 통일분야의 논설이 정치, 경제의 뒤를 이어 3위, 외교분야 논설이 8.8%로 4위, 문화분야 논설이 8.6%로 5위, 사회분야 논설이 3.2%로 6위이며 군사분야 논설이 1.6%로 맨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다.

이 통계수치는 「근로자」가 정치이론잡지임을 뚜렷이 증명하

고 있을 뿐 아니라 「근로자」가 앞서 언급한 세 가지의 구체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분야를 포함한 5가지 분야에 속하는 논설수의 10년대별 변화추세는 「로동신문」의 사설을 대상으로 유사한 작업을 시도한 선행연구와 많은 점에서 일치하는데, 이 결과는 「근로자」가 북한사회의 변동상을 간접적으로 표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북한연구자들이 북한사회의 변동을 설명하는 기초적 논거의 하나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目 次

第Ⅰ章 序論	1
1. 연구목적	1
2. 분석방법	6
第Ⅱ章 「근로자」의 역할과 구성	14
1. 「근로자」의 역할	14
2. 「근로자」의 구성	31
第Ⅲ章 「근로자」 논설주체의 변동양상	47
1. 대분류에 의한 변동추세	47
2. 정치부문	51
3. 경제부문	54
4. 군사외교부문	59
5. 사회문화부문	62
6.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 부문	64
第Ⅳ章 결어	68
参考文献	71
<附錄> 「근로자」 논설의 주제별 분류	75

表 目 次

<표 1> 10년대별 분석대상 권수와 논설편수	8
<표 2> 주제별 분류표	11
<표 3> 논설주제의 부문별 분포상태	48
<표 4> 대분류에 의한 연대별 주제의 분포	49
<표 5> 중분류에 의한 정치부문 주제의 분포	51
<표 6> 정치부분 연대별 주제의 분포	53
<표 7> 중분류에 의한 경제부문 주제의 분포	55
<표 8> 경제부문 연대별 주제의 분포	57
<표 9> 군사외교부문 연대별 주제의 분포	61
<표 10> 사회문화부문의 주제별 분포	63
<표 11>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 부문의 주제별 분포 ..	65

그림 목차

<그림 1> 대분류에 의한 연대별 주제의 분포 추세	50
------------------------------------	----

第 I 章 序 論

1. 연구목적

‘장님 코끼리 만지기’, 이 말은 북한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내뱉는 自嘲섞인 한탄이다. 다년간의 연구로 북한에 대해 나름대로의 일가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장님’을 자처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임을 상징할 뿐 아니라 북한연구가 쉽지 않음을 반증한다.

우리 나라에서 북한에 관한 연구활동이 학문적 성격을 띠기 시작한 지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¹⁾ 그 동안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지만 아쉽게도 현재 북한연구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과학적 연구’의 척도로 볼 때 ‘과학’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다.²⁾

북한연구가 학문적 성격을 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연구주제가 무엇이든 그것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존재와 그 활용이 가장 중요하다.

1)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p. 3.

2) 황성모, “북한연구 현황과 방법론,” 「북한학보」, 제4집 (1980); 이상우, “북한연구,”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편, 「공산권연구현황」 (서울: 법문사, 1981).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의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활용해 온 자료는 연구자가 스스로 직접 관찰하고 조사해서 얻은 1차자료가 아니라 주로 '간접적인 자료' 또는 '2차자료'이다. 아직까지 국내학자가 북한에 직접 가서 어떤 방법으로든 연구주제에 관해 자료수집을 한 예가 없고 극소수의 외국학자가 북한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 그들에게 사회과학적 연구를 위한 관찰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1차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열람이 제한되어 있고 그 절대량이 부족한 북한의 출판물, 대중매체 등이다.³⁾

요컨대 기술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연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자료문제에 있다. 즉 자료부족과 자료입수상의 제약, 자료의 신빙성에 대한 의문 등이 북한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저해하는 일차적 난제로 지적되어 왔다. 북한은 자료를 거의 대부분 외부로 배포하지 않을 뿐더러 소수를 외부에 공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통상 선전용에 지나지 않아 이를 역면대로 분석하면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사실 북한에서 나온 자료의 대부분은 정치선동·선전기능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근로자」도 예

3) 이와 같은 자료의 성격과 그것이 지니는 한계에 관한 논의는 안병영,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제3권 제1호 (1977); 이상우, "북한연구,"; 김창순, "공산주의 및 공산권 연구개관,"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편, 「공산권연구현황」; 황성모, "북한연구현황과 방법론," 참조.

의가 아니다. 「근로자」는 당의 기관잡지라는 점에서 당의 입장을 가장 권위있게 대변해 주는 자료로 꼽힌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의 잡지와는 달리 「근로자」는 잡지이면서도 북한사회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과 당의 관점을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그들의 정책을 북한주민들에게 주지·설득시키는 기능을 주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된 「근로자」 창간 40주년 기념 축하문이 「근로자」가 “당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옹호보위하고 내외에 널리 해설선전하며 간부들과 당원들의 정치리론수준을 높이고 그들을 당정책관철에로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임을 밝히고 있는 데서 명확하다.⁴⁾ 김일성도 “「근로자」의 기본임무는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리론적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해석선전함으로써 당원들과 대중들을 우리 당의 사상과 혁명리론으로 무장시키고 당의 두리에 그들을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있다”고 교시한 바 있다.⁵⁾ 따라서 「근로자」가 북한연구를 위한 1차자료이긴 하지만 그것의 활용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글의 행간을 읽고 이면의 동기를 추리하고 의미유형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된다.

물론 북한연구를 위한 자료의 부족과 북한자료의 신빙성에

4)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근로자>편집일군들에게,” 「근로자」, 1986년 제12호, p. 17.

5) _____, “축하문: <근로자>편집원들에게,” 「근로자」, 1976년 제11호, p. 2.

대해 갖게 되는 의문 등은 우리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실체에 대해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 아닌 정확한 이해가 자료상의 난점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통일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이상, 운명의 시지푸스처럼 불가능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도전의 첫 걸음은 한정된 자료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일테다. 즉 어차피 북한사회의 성격이나 변동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드물거나 입수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북한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정권과 당의 입장을 확일적으로 나타내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은 한정된 자료의 최대한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자료로서의 중요한 지위와 의의를 확보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정권과 당은 「근로자」의 논설을 통해 그 사회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근로자」의 내용은 북한사회의 관심사를 표상하고 있다. 이 점에서 「근로자」는 그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긴 하지만 북한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근로자」를 해제하기로 한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이다.

본 연구는 1962년부터 1991년까지 발간된 「근로자」 중 입수 가능한 것을 대상으로 하여 그 논설의 주제를 분류·정리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시기별 변동양상을 추적해 보고자 했다. 이 같은 작업을 시도한 이유는 「근로자」의 논설이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매 시기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당의 기본의식을 대변하고 있으므로 만약 내용에서 일정한 변화양상을 보인다면 그것은 곧 북한사회의 변동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는 논거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데 있다. 지금까지 「로동신문」의 사설이나 기사를 대상으로 이같은 작업을 한 예는 다수 있었지만⁶⁾ 당 기관지로서 「로동신문」에 상응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없었다.⁷⁾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연구를 위한 자료축적 작업의 하나로서 일정한 의의를 가질 수 있

6) 조형준, “북한언론에 관한 연구-노동신문사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2; 이상우, “로동신문사설에 나타난 북한정책 관심의 변천: 1967~1973,” 「성곡논총」, 제6집 (1975); 이광재, “로동신문 사설에 관한 연구,” 경희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1977; 이상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언론-북한언론의 본질과 비판」, (서울: 범우사, 1979); 정세현, “북한의 국제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태도와 대외관, 자아상 연구,”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논문집」, 제9호 (1985);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안춘옥, “북한신문의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참조.

7) 「근로자」만이 아니라 「근로자」를 포함한 북한잡지 전체를 분석대상으로 한 연구는 소수 있었다. 그 예로는 이병철, “북한잡지를 통해 본 북한사회변화 추세 연구-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원, 「북한·통일연구논문집(IV)」, 1991, pp. 360~447; 오유석, “북한잡지를 통해 본 북한사회변화 추세 연구,” 통일원, 「북한·통일연구논문집(IV)」, 1991, pp. 448~483 참조.

우리라 생각한다.

2. 분석방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잡지인 「근로자」는 김일성의 교시와 혁명역사, 노동당의 혁명전통, 당건설상의 제문제,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과 관련된 이론실천적 문제, 남한혁명과 통일에 관한 문제, 당의 대외정책과 국제관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노동운동·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문제, 소위 ‘미제의 침략정책과 반동적 부르쵸아사상’을 분석·비판한 여러 가지 논설들을 싣고 있다. 본 연구는 이 논설들을 시대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그 변화의 추이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 경우 자연히 두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는 시대별 분류의 시간단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논설의 주제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예컨대 1년 또는 5년이라는 짧은 시간단위로 분류하면 미세한 변동양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 바람직하겠지만 이것은 방대한 양에 비추어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사실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자」의 논설주제가 시기별로 어떤 변동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북한사회의 변동과 상관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근로자」 논설주제의 변동양상과 북한사회의 변화를 동시에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좀

더 긴 시간단위가 목적에 더 부합할 수도 있다.

북한사회의 변동을 획정할 수 있는 시기구분의 기준으로서 흔히 사용되는 것은 로동당대회나 주요 이데올로기 변천기 또는 경제계획단계 등이다. 그런데 이들을 비교해 보면 불과 1, 2년의 차가 있을 뿐 대체로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로 시기구분이 가능하다. 즉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당대회를 기준으로 할 때 제4차, 5차, 6차 당대회로, 이데올로기 변천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때 각각 주체사상 구축기, 확립기, 주체사상의 주의화로, 주요 경제계획의 시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1961년부터 1970년까지의 7개년계획, 1971년부터 1976년까지의 6개년계획과 1978년부터 1984년까지의 제2차7개년계획, 1987년부터 1993년까지의 제3차7개년계획으로 나뉘어진다.⁸⁾ 따라서 본 연구는 10년을 단위로 시기구분을 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1962년 1월부터 1991년 12월까지 간행된 「근로자」이다.⁹⁾ 「근로자」의 호수로

8)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p. 141. 북한도 각종의 역사서에서 10년대 별로 시기구분을 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나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의 30, 31, 32, 33권 참조.

9) 북한이 매년 간행하고 있는 「조선중앙년감」에는 자신들이 발행하는 주요 잡지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데 1994년판 「조선중앙년감」에도 「근로자」가 그 속에 들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종전과 달리 해외에 배포되지 않을 뿐 계속 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1992년부터 「근로자」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의 조총련계 조선문제연구소가 발행하고 있는 「월간 조선자료」가 간혹 이

말하면 누계 194호부터 누계 596호까지로서 간행된 총수는 403 권이지만 여기에서 다루어진 것은 입수가 불가능해 부분적으로 누락된 89권을 제외한 314권이다.¹⁰⁾ 보통 한 호에 약 10편의 논설이 실려있어 분석대상이 된 논설의 총수는 본 연구의 부록에서 기타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3,119편이었다.

분석단계에서 10년별로 변동추세를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각 연대별 「근로자」 권수와 논설편수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표 1> 10년대별 분석대상 권수와 논설편수

연 대	분석대상 권수	분석대상 논설편수
1960년대	69	455
1970년대	107	898
1980년대	120	1,496
1990년대	18	270
계	314	3,119

해적으로 「근로자」의 논문을 日譯하여 게재함으로써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 10) 입수가 불가능해 여기서 누락된 호수는 1962년 2·3·9·17·21호, 1963년 4·10·13·15·16·18·19·20·21·22·23·24호, 1964년 1호·21호·24호, 1965년 1호·14호, 1966년 3호·7호·9호·12호, 1968년 1·3·4·5·6·7·10·11·12호, 1970년 11호, 1971년 4·10·12호, 1972년 6호와 통합권인 8·9호, 1973년 2호, 1975년 1·6·8·9호, 1976년 10호, 1991년 1호·6호이다.

1960년대의 「근로자」가 많이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설 총수가 많은 것은 1962년 4월에 반월간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며 11) 여기서 취급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근로자」의 권수가 비슷함에도 분석대상이 된 논설총수가 1980년대에 급증한 것은 1985년부터 「근로자」 한 권의 면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수록되는 논설 수도 많아지고 다루는 분야도 다양해지는 경향을 보인 데 그 이유가 있다.

한편 내용분석을 통하여 일정기간의 변동을 추적하고자 할 때 주제의 내용을 일정한 범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논설주제를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문화,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 분야로 대분류한 다음, 각 범주마다 중분류와 소분류를 두었는데, 본 연구가 이같이 주제를 분류함에 있어 참고한 자료는 북한이 발간한 「김일성동지의 로작색인」과 「김일성저작집색인」이다.¹²⁾ 「근로자」의 논설 가운데 상당한 양은 김일성의 소위

11) 1946년 10월25일에 창간된 「근로자」는 창간된 이래 월간으로 발행되다가 1962년 4월에 반월간으로 전환했는데, <社告>에 의하면 “당이 현 시기간부들과 당원들에 대한 맑스-레닌주의 교양과 당 정책 교양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과업과 급속히 변화 발전하는 우리나라 현실은 일군들 속에서 맑스-레닌주의 학습을 더욱 강화하며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 당의 의도를 제때에 기동적으로 해석 선전할 것을 요구하므로 매월 2회 발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66년에 또 다시 월간으로 전환했다.

12) 사회과학출판사, 「김일성동지의 로작색인」 (동경: 구월서방, 1971);

‘로작’을 해설하거나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된 당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고 그 관철을 촉구한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논설주제를 이 두 권을 참고하여 북한 자체의 방식에 따라 분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주제별 분류표는 <표 2>와 같고 북한 연구자들의 「근로자」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분류표에 근거한 「근로자」의 논설제목을 부록으로 묶었다. 이 부록은 예를 들면 북한의 금속공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연구자가 「근로자」의 어떤 논설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를 경우 금속공업에 관한 어떤 제목의 논설이 「근로자」의 몇 년도 몇 월호에 실려 있는지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소분류를 기준으로 할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총 86개 항목으로 주제를 분류한 다음 각 항목에 속하는 논설수의 증감을 10년대별로 관찰하여, 도출된 결과와 북한사회의 시대별 변화와의 연관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표 2> 주제별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치	우상화	김일성 및 그의 가계 찬양/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조, 대이어 충성	
	주체사상	주체사상해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당		당 찬양,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
			당의 역할·지도 강조
			당 노선·정책의 정당성과 관철 강조, 당사업 일반 강화
			당조직 강화
			당내 유일사상체계확립, 당의 통일·단결 강조
			당일군의 자세·책임·역할 강조, 당간부가 지녀야 할 품성, 당 간부 육성
			당사업방법론
	국가	국가(인민정권) 찬양, 국가의 역할·임무·기능, 지방정권기관의 역할, 프롤레타리아독재	
	법제		
	사회주의 건설		일반론(사회주의혁명과 건설 독려)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강조, 북한 국가사회 제도 찬양
			전 사회의 혁명화·노동계급화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대중의 정신·심리·태도(혁명적 낙관주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조국애, 향토애 등)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대중운동		
3대혁명	3대혁명, 3대혁명소조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 운동		
혁명전통	혁명전통계승 강조, 항일무장투쟁 찬양, 항일 무장투쟁시기의 역사적 사건과 그 의의 해설		
사상교양	공산주의교양, 계급교양, 정치교양, 문화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 사상 투쟁 강조,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육성		

경제	사회주의 경제건설 일반론	경제목표·정책 달성 촉구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 강조
		국가규모의 경제관리 철저, 그 방법론
		경영활동개선(원가절감, 생산정상화, 제품의 질 개선, 자원개발, 설비이용률 제고, 자재 공급원할 확보, 내부예비동원 등)
		경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제적 태도(절약·중산, 국가재산 낭비 방지 등)
		경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대중운동
		경제계획해설, 경제계획 및 통계의 중요성 강조
	농림 수산업	농업일반
		사회주의농촌 건설, 농촌문제 해결, 토지개혁 임업/ 수산업/ 축산업
		공업화 일반론(공업관리체계, 공업경영, 공업의 중요성 강조)
	광공업	광업
		전력(열·에너지)공업/ 금속공업/ 기계·전자 공업/ 화학공업/ 전재공업
		경공업(방직·소비품공업)
		지방공업(지방경제 활성화, 지방경영공업)
		기술의 중요성, 기술혁신 강조, 기술인재 양성
	과학기술	기술의 중요성, 기술혁신 강조, 기술인재 양성
	기타	상업(상품공급)/ 분배/ 재정·금융·예산/ 교통 / 건설/ 국토관리(자연개조·도시계획·환경보 호 등)/ 노무행정 및 노무관리/ 대외무역 및 대외경제협력

군사의외교	군사	인민군 찬양, 인민군의 역사
		군사노선, 입전태세 강조
		조국해방전쟁
	외교 및 국제관계	대외정책 및 그 기초
		일반 국제정세 소개(식민지민족해방의 조류, 제3세계혁명투쟁 등)
		반제·반자본주의투쟁 선동, 비동맹운동 지지
		반미 반일
사회문화	사회	근로단체의 역할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청년들의 역할 강조
		여성의 혁명화 및 역할 강조, 남녀평등
		편의후생시설 개선
		의료보건
		조직생활 및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
		생활질서·법규·규율 준수, 도덕존중
	문화	문예정책 일반
		인테리정책
		교육
		문학/ 음악·무용/ 미술·조각·건축/ 연극·영화/ 언어(문풍개선)/ 체육/ 출판보도(인론)/ 민족
		문화유산 계승·발전/ 문화혁명/ 역사
		남한혁명 강조
		혁명과 통일에 유리해져 가는 남한정세, 사회적 분위기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	대남비방	정치비방(군사파쇼독재)
		경제비방(대미·일 경제예속화, 경제위기 만연) 사회·문화비방(사회의 부패성, 문화의 반동성)
	통일방안	기본방침, 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각종 대남 제의
	조총련	조총련의 역사와 활동

第Ⅱ章 「근로자」의 역할과 구성

1. 「근로자」의 역할

「근로자」는 북한 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대표적인 정치이론잡지이다. 북한의 「백과전서」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하는 당의 최고기관”으로서 “당의 건설과 활동, 혁명과 건설을 총체적으로 령도하는 혁명의 참모부”이고¹³⁾ 기관지는 “자기의 조직체나 기관들의 입장을 대변하며 그앞에 제기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복무”한다.¹⁴⁾ 따라서 「근로자」는 당 노선과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당 최고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며 당 노선과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근로자」는 창간 이래 월간이었으나 1962년 4월에 반월간으로 전환하였다가¹⁵⁾ 1966년에 다시 월간으로 전환하여 1991년 12월까지 누계 596호를 기록하고 있다. 처음의 체제는 4·6배판 50-60쪽 정도였으나 1985년부터 100쪽 가량으로 증면되었다. 편집내용은 목차 뒤에 첫 순서로 반드시 김일성, 김정일의 문

1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백과전서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157.

14) _____, 「백과전서 1」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 635.

15) I 장의 각주 11)을 참조.

헌을 싣고 그 다음 편집국 논설과 기명논설을 게재하고 있는데 편집국 논설이 언제나 기명논설에 앞서는 것은 아니며 또 권마다 매번 실리는 것도 아니다.

기명논설의 주제는 주로 정치사상문제, 혁명전통 및 당건설 문제, 경제문제, 과학문화문제, 남한 및 국제문제 등이며 필자는 대부분 당과 정무원 및 사회단체의 간부급들이다. 이 잡지는 당 중앙위원회가 결정한 정책방향을 당 간부와 당원들에게 정확히 전파하는 동시에 각종 시책의 관철을 촉구하는 교양 선전물이기 때문에 내용이 거의 해설성의 논설과 촉구성의 지시 등으로 채워져 있고 끝부분에 사회주의 우방국가들의 당 대회 문헌과 방문기 등이 참고자료로서 간헐적으로 게재된다.

그러면 「근로자」는 구체적으로 북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 「근로자」가 잡지이고 잡지는 말할 것도 없이 언론매체의 하나라는 점에서 먼저 북한의 언론매체가 맡고 있는 일반적인 역할을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은 언론을 “사회정치활동에서 말이나 글로써 자기의 주장이나 견해 같은것을 발표하는것”으로 정의하고 그것이 주로 신문, 잡지, 방송, 통신 등을 통하여 실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⁶⁾ 따라서 북한이 언론을 정의하는 내용이나 잡지를 언론의 한 매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16)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2」(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445.

그러나 그 역할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을 옹호선전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공고발전시키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데서 우리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말하자면 북한의 언론은 “집단적 선전자이며 선동자일 뿐 아니라 집단적 조직자”라고 한 레닌의 정의¹⁷⁾에 따라 당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고 관철하는 집단적 조직체로 존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김일성의 말로 입증된다.

당보는 당원들과 인민대중들을 옹계 교양하며 그들을 혁명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보는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광범히 선전하는 위력한 선전자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대중을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믿음직한 조직자입니다. 당보를 발간하여야 당원들과 인민대중에게 당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알려주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수 있으며 당의 주위에 광범한 대중을 묶어세워 혁명투쟁을 잘해 나갈수 있습니다.¹⁸⁾

위의 인용문은 북한의 언론이 대중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17) 레닌 저, 김민호 역, 「무엇을 할 것인가?—우리 운동의 긴급한 과제」 (서울: 거름, 1988), p. 173.

18) 김일성, “당보를 창간할데 대하여”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선전부 일군들과 한 담화, 1945.10.17),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p. 357.

혁명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데 그 존재이유가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신문학 이론서인 「신문리론」도 북한의 언론이 선전선동자적 기능, 조직자적 기능, 문화교양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

여기서의 선전선동자적 기능이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노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이론, 당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제기된 혁명과업 수행으로 조직동원하는 것을 말하며²⁰⁾ 조직자적 기능은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 수행을 위하여 당원들과 대중들을 한 데 단합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이끌어들이 혁명과업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을 의미한다.²¹⁾ 그리고 문화교양자적 기능이란 근로자들을 풍부한 문화적 소양과 높은 기술을 소유한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뜻한다.²²⁾ 물론 이런 기능들은 사상교

19) 「신문리론」, pp. 48~57. 북한의 배순재와 라두림이 공저한 「신문리론」은 김영주와 이범수가 공동으로 편집한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서울: 나남, 1991)에 전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인용하는 「신문리론」은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에 전재되어 있는 것이다. 「신문리론」과는 달리 「조선전사」에서는 언론의 기능을 사상교양자적 기능, 경제조직자적 기능, 문화교양자적 기능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9」(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p. 372~378.

20)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편, 「백과전서 3」(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688.

21) 「신문리론」, p. 52.

22) 위의 책, p. 55. 이와 관련한 김일성의 교시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을 여러방면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글자그대로 몰

양을 통한 당 정책의 철저한 구현을 위한 것이므로 상호 독립된 것이 아니다.²³⁾

북한은 이와 같이 언론의 역할을 3가지로 규정하면서 여러 가지 언론매체 가운데 잡지를 비롯한 출판물을 중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출판물이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 경제, 문화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동원하는 힘있는 무기”²⁴⁾라고 인식한 때문이지만 보다 현실적으로는 출판물이 광범한 대중에 신속

건을 많이 생산하여 노나먹는 사회로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공산주의는 물질적부도 정신적부도 모든것이 다 풍부하여야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출판물을 통하여 대중을 높은 공산주의 도덕품성의 소유자로, 문화수준이 높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으로 교양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출판사업과 학생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출판보도일군 및 민청일군들과 한 담화, 1962.5.3), 「김일성저작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35. 여기서 말하는 “높은 공산주의 도덕품성의 소유자, 문화수준이 높은 전면적으로 발전된 인간”이란 김일성 유일사상을 내면화한 인간이다.

23) 예컨대 선전선동자적 기능이 태도형성 및 태도변화 차원에 머문다고 한다면 조직자적 기능은 행위유발 및 행위변화 차원이라 할 수 있다. 즉 전자의 기능이 머리와 가슴의 차원에서 이론적으로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후자의 기능이 몸과 수족의 차원에서 실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김영주, “북한언론의 성격과 그 체계,” 김영주·이범수 공편,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서울: 나남, 1991), p. 29.

24)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56.4.23),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p. 296.

히 침투할 수 있는 대중성과 기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구두선전과 연예공연 등도 대중을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수단(이지만)---모든 사람이 다 구두선전을 들을수 없고 연예공연을 볼수 없는 조건에서---혁명적출판물과 같은 사상적무기를 가져야만---구성된 혁명정세와 혁명임무에 따르는 투쟁구호를 광범한 대중속에 기동성있게 해설선전하고 그 관철에로 그들을 조직동원할수 있다”는 것이다.²⁵⁾

요컨대 북한은 잡지와 같은 출판물을 철저히 대중의 ‘정치사회화를 위한 도구’로 파악하고 있는 셈인데, 이 때문에 출판물에게 주어진 가장 선차적인 임무는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교양이다.

사실 북한정권은 지금까지 사상교양을 통해 인민대중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 왔다. 일찌기 김일성은 “우리의 출판물, 라디오, 문예작품을 비롯한 모든 교양수단이 당의 사상으로 대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발동되어야 하며 모든 사업단위들에서 사람을 교양개조하는것을 제일차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까”고 교시한 바 있다.²⁶⁾ 여기서 말하는 인간개조사업이란 “사람들을

25)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p. 267. ()안은 필자주.

26)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61.9.11),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p. 295.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선진과학기술지식, 높은 문화수준을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드는 사업”인데 이것이 노리는 실질적인 목표는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 강화이다. 인민대중이 수령과 당을 충성으로 만드는 충실성을 지녀야만 혁명과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여 투쟁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 혁명가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논리적 근거였다.

그리고 이같은 목표의 달성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 당의 지도이다. 이 때문에 북한 출판물은 당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을 뿐 아니라 출판물의 내용에 있어서도 당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당은 근로대중의 다른 모든 조직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최고형태의 조직으로서 수령의 사상을 구현하고 대중을 공산주의 위업 실현으로 이끌어 나가는 정치적 영도기관이다. 다시 말해서 당은 근로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실현하도록 지도하는 역사적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은 인민대중에게 투쟁방향을 제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대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며 투쟁과정 전반을 장악하고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지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은 ‘령도예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김일성의 정의에 따르면 ‘령도예술’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령도예술이란 한마디로 말하여 사람들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그들이 창발성을 내어 일하도록 적극 고무해주며 군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이 바로 령도예술입니다.²⁷⁾

곧 ‘령도예술’이란 인민대중을 움직이는 방법으로서 당이 대중을 혁명과 건설에 조직동원하는 방법, 묘술의 총체를 뜻한다.²⁸⁾ 그러나 이 ‘령도예술’은 말할 것도 없이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지시에 근거하여 구현되며 그 근간은 김일성의 사상이고 그것의 구현체는 당이다.

당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과정에서 인민대중을 영도하고 그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 첫 걸음은 어디까지나 원리를 “타이르고 깨우쳐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지시는 이 점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타이르고 깨우쳐주는 설복과 교양의 방법에 의해서만 사람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27)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0: 령도예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1.

28) 위의 책.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당과 대중과의 연계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습니다.²⁹⁾

즉 인간개조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교양방법은 해설과 설복이다. 해설과 설복만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의 진리를 깊이 체득할 수 있게 하며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복잡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게 한다고 주장된다.

이 점에서 북한언론의 3가지 기능 가운데 선차적인 것은 선전선동자적 기능이며 선전과 선동을 굳이 구분할 때³⁰⁾ 「근로

2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68.

30) 엄밀히 말하면 선전과 선동은 같은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이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북한의 「백과전서」는 이 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선전이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이론, 당의 방침을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사상교양을 말하며 선동이란 군중의 기세를 돋우고 그들을 당면한 혁명과업수행으로 직접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말한다. 따라서 선전사업에서는 취급되는 내용을 원리적으로 깊이 납득시키며 교양사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심화시킬것을 요구하며 선동사업은 당면한 혁명과업수행으로 대중을 추동하는 정치사업인것만큼 구체적인 시간과 조건, 혁명임무에 맞게 그리고 해당시기에 나서는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기동성있게, 전투적으로 진행하며 강한 호소성과 높은 전투성을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선전사업과 선동사업은 그 내용과 조직진행방법에서 일련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들은 사람들의 인식과정에 작용하는 역할로 하여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선전은 주로 사람들의 론리적사유를 계발시키는 방법으로, 선동은 주로 사람들에게 강한 충동과 자극을 주는 방법으로 사상의식

자」와 같은 이론잡지의 경우 그 말은 일차적인 역할은 선전사업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선전이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리론, 당의 방침을 리론적으로 하나하나 깨우쳐주는 사상교양”으로서 무엇보다도 “취급되는 내용을 원리적으로 깊이 납득시킬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해설과 설복이라는 교양방법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의 주장처럼 사람들은 사상과 이론의 정당성 및 진리성을 원리적으로 깊이 인식하여야 그것을 신념화할 수 있는데³¹⁾ 순서상 제일 먼저 원리를 해설하여 납득시키는 것이 바로 이론선전사업의 임무인 것이다. 「근로자」창간 40주년을 기념하는 논설도 “우리 당 리론선전사업이 그 어느때보다 강화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치리론수준이 높아지고있는 커다란 성과에는 당리론선전의 일익을 맡고있는 「근로자」의 업적이 깃들여있으며---「근로자」가 걸어온 력사적 과정은 우리 당리론선전사업이 심화발전하여온 빛나는 로정의 중요한 일환이었다”고 찬양하고 있어³²⁾ 「근로자」가 당 이론선전사업의 중요한 수단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당 이론선전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발전에 작용한다. 그러므로 당사상사업에서는 선전도 중요하지만 선동도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이 둘 가운데서 어느하나에만 편중해서는 안된다.” 「백과전서 3」, p. 688.

- 31) 김용학, “리론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과업,” 「근로자」, 1991년 제10호, p. 33.
- 32)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깊이있게 진행하자-〈근로자〉창간 40돐에 즈음하여-,” 「근로자」, 1986년 제10호, p. 27.

당의 사상리론을 원리적으로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형식”으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과 이론에 대한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집행자로 만드는 데” 그 역할이 있다.³³⁾ 즉 당 이론선전사업의 주목표는 “당 사상리론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사업”을 통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며 당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도록 하는데” 있다.³⁴⁾

그런데 인민대중을 ‘참다운 공산주의혁명가’로 육성하기 위한 선전사업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되는 것은 김일성의 소위 ‘고전적 로작’과 당 문헌에 대한 이론적 해석선전이다. 왜냐하면 당 문헌에 대한 연구선전사업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킬뿐아니라 그들이 당의 위대성을 가슴깊이 체득하고 당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헌신적으로 투쟁할수 있게 하는 중요한 방도로 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⁵⁾

뿐만 아니라 북한은 당 이론선전사업과 주체사상 선전을 동일시하고³⁶⁾ 주체사상 선전의 심화를 위해서는 3가지 노력이

33) 위의 논문, p. 28.

34) 위의 논문, p. 29.

35) 위의 논문.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근로자〉 500호발간에 즈음하여-,” 「근로자」, 1983년 제 12호, p. 18.

36) 김정일은 당 이론선전사업이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의 사상리론을 깊이 체득시키는 사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³⁷⁾ 첫째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비롯한 모든 원리들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깊이 있게 체득하고 그 보편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당 정책이란 주체사상을 기초로 수립될 뿐 아니라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전술이고 또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곧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당 정책, 특히 당 경제정책에 대한 이론선전사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주체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해 반동적 부르쵸아사상과 온갖 기회주의 사조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자연히 당 이론선전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근로자」의 일차적인 임무는 주체사상의 위대성에 대한 선전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의 글은 「근로자」와 같은 출판물들이 띠고 있는 임무와 사명을 뚜렷히 제시해 주고 있다.

당중앙은 우리 출판보도물이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개조하여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 나가는데 그 기본임무가 있다는것을 새롭게 밝혀주었다.---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대중을 무장시키고 그들을

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p. 80.

37)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깊이있게 진행하자,” pp. 30~32.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이 내세운 혁명과
 업실천으로 대중을 조직동원하는것은 당적출판보도물의
 기본기능이다.38)

「근로자」 창간 40주년을 기념하는 북한 로동당 중앙위원회
 명의로 ‘축하문’은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 「근로자」가
 몇 가지의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39)

첫째는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리론선전
 사업을 심화시켜 간부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 주체의 혁
 명적세계관을 튼튼히 세우고 그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
 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주체사상과 주체
 의 혁명리론, 주체의 령도방법을 원리적으로 해설하는 무게있
 는 론설들과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고귀한 업적을
 리론적으로 전개하는 품위있는 글들을 더 많이 편집하여 간부
 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혁명의 정치적양식을 끊임없이 보
 장하여주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둘째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

38) 김덕현,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근로자」, 1974년 제9호,
 pp. 36~37.

3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근로자>편집일군들에게,” pp. 18
 ~19.

과 이론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깊이 해설선전하며 당경제정책선전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넣음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고 나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선전을 힘있게 벌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연대성을 공고히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위의 임무들을 요약해 보면 첫째의 임무는 주체사상 교양을 축으로 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교양, 당 정책 교양, 혁명전통 교양, 계급교양 등의 사상교양을 말하며 둘째의 임무는 “경제와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소를 점령”하기 위해 “특히 경제선동을 전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섬멸전의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는것”을 의미하며 셋째의 임무는 “남조선혁명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전술적방침과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널리 해설선전하고---미일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는 거족적투쟁에 전체인민을 힘차게 불러일으키는것”을 뜻한다.⁴⁰⁾ 따라서 「근로자」의 논설 대부분은 바로 이것들을 기

40) 김덕현,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pp. 37~39; 조선로동당 중

본주제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은 「근로자」를 당의 정책, 즉 혁명과업 수행을 위한 도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성격은 매우 제한적이고 획일적이라 할 수 있다. 분명히 북한 사회주의 헌법 제53조는 공민이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는 있으나 「근로자」와 같은 언론매체의 이런 성격 때문에 소위 ‘언론의 자유’는 북한사회에서 유명무실한 것에 지나지 않고 있다. 다음의 설명은 이 점을 명쾌히 뒷받침하고 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며 그것을 철저히 옹호관철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가일층 강화하며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여 그들을 당과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데 복무한다.⁴¹⁾

양위원회, “축하문: <근로자>편집원들에게,” pp. 2~4;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출판물전통은 우리 당 출판물이 계승한 력사적뿌리,” 「근로자」, 1976년 제11호, pp. 15~16;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깊이있게 진행하자,” pp. 29~32;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근로자>편집일군들에게,” pp. 17~18; 김용학, “리론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과업,” pp. 36~37.

41) 사회과학출판사, 「력사사전 I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p. 1307.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에서 언론자유란 당의 노선과 정책을 해설·선전하고 김일성의 교시를 인민들에게 전파·주입시키는 일에 국한된 자유이다. 따라서 북한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는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언론의 자유와는 무관한 것이다.⁴²⁾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근로자」의 기능과 역할 등은 북한의 「정치사전」이 잘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여기에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월간 정치리론잡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인 발기와 지도밑에 1946년 10월25일에 창간되었다. 근로자사에서 발행한다. <근로자>는 혁명의 위대한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노선과 정책을 리론적으로 해설선전함으로써 간부들과 당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것을 자로 삼아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도록 사상리론적으로, 정치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다. 잡지는 혁명과 건설의 강령적지침인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교시, 로작들과 그이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구현한 당의 문헌들을 신는다. 또한 잡지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 정책을 해설선전한 론문들과 론설들, 그이의 혁명력사와 고매한

42) 유재근·이상호·박상천, 「북한의 문화정보 I」 (서울: 고려원, 1991), p. 31.

덕성에 관한 논문들, 그이에 의하여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관한 논문들을 신는다. 잡지는 또한 당건설의 제문제,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과 관련된 리론실천적문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문제, 우리 당의 대외정책과 국제관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식민지해방투쟁에 관한 문제등을 취급한 여러가지 논문들과 론설들 그리고 미제의 침략정책과 반동적부르조아사상을 분석비판한 논문들과 자료들을 신는다. <근로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장기간에 걸쳐 혁명적출판물의 창간과 그에 대한 지도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창간되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항일무장투쟁의 간고한 나날에 혁명적출판물의 창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투쟁하시였으며 <3.1월간>을 비롯한 혁명적출판물의 발간사업을 몸소 지도하시였다. <근로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혁명적출판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직접 계승하였다. <근로자>는 창간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끊임없는 지도와 배려밑에서 발전하여왔다. 그이께서는 <근로자>의 편집방향을 직접 밝혀주시였으며 출판보도일군들을 양성하고 그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며 출판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지도와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근로자>는 전당에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며 간부들과 당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리론실천적으로 준비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특히 혁명과

건설의 매단계에서 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로 간부들과 당원들을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 당의 강유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⁴³⁾

2. 「근로자」의 구성

「근로자」에는 「신문리론」의 분류에 의하면 논설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종류의 글이 게재되어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논설로 구성되어 있다.

논설이란 “혁명과 건설에서 중요한의의를 가지는 문제의 본질적내용, 그의 합법칙성과 현실적해결방도를 리론적인 분석과 론증을 통하여 밝히는 기사”인데⁴⁴⁾, 「신문리론」은 논설이 특정 문제의 본질과 내용에 대한 해설이므로 ‘심오한 교양적 성격’을 띤다는 데 가장 큰 특징이 있으며 그 목표가 당의 의도와 방침을 지시하기 보다는 당 정책의 정당성과 수행의 가능성, 구체적인 방도를 해설·논증함으로써 독자를 납득시키는 것이라고 한다.⁴⁵⁾

이처럼 논설의 목적이 일차적으로는 독자를 납득시키는 데

43)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17.

44) 「백과전서 2」, p. 481.

45) 「신문리론」, pp. 87~88.

이므로 당연히 논설에게는 “당 정책을 인민대중 자신의 것으로 만들도록 이바지”하기 위해 “인민대중의 요구와 수준에 적합”하도록 쓰여져야 한다는 원칙이 요구되고 있다.⁴⁶⁾ 예컨대 문체의 간결성·정확성·명료성을 보장하여 논설들을 인민대중이 읽고 알 수 있는 통속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이 원칙의 반영이다.⁴⁷⁾

따라서 「근로자」는 정치이론잡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논설의 내용이 까다롭고 난해하며 현학적이지 않고 매우 평이하다. 이는 “원래 글이란 사람들이 보고 그 내용을 명백히 알수 있도록 써어져야 (함에도) 착취계급들은---저들의 ‘유식’을 자랑하기 위하여 글을 인민대중이 이해할수 없게 까다롭게 만든다”고 인식한 때문이기도 하고⁴⁸⁾ 논설이 “문제의 본질과 내용을 리치적으로 설득력있게 깨우쳐주는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것인만큼 어휘와 표현에서 통속성, 정확성, 간결성을 보장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때문이기도 하다.⁴⁹⁾

46) 위의 책, p. 60.

47) 이에 관해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고 있다. “출판물의 형식과 내용을 대중의 수준과 요구에 맞게 하며 문체의 간결성, 정확성, 명료성을 보장하여 우리 출판물들을 인민대중이 읽고 알수 있는 통속적인 출판물로 고쳐야 하겠습니까.”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10」, p. 297.

48) 김덕현, “출판보도선전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 「근로자」, 1983년 제1호, p. 44. ()안은 필자주.

49) 「백과전서 2」, p. 482.

한편 「백과전서」에 의하면 논설은 그 내용에 따라 정치논설, 경제논설, 정세논설, 기념논설로, 그 성격과 서술방식에 따라 이론논설, 경험논설, 지도논설, 보도논설, 해설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 「근로자」의 논설은 내용으로 볼 때 정치논설이, 성격으로 볼 때 이론논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근로자」는 북한의 대표적인 정치이론잡지로 지칭되고 있다. 이는 「근로자」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사명이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당 방침의 본질을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해설·논증하고 김일성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문제들에 이론적 해답을 제공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로자」에 간혹 경험논설이 게재되는 것은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업적과 경험을 이론적으로 일반화하기 위한 것이다.⁵⁰⁾

「근로자」에는 이 이론논설과 경험논설 이외에 지도논설, 보도논설, 그리고 서적해제, 문학예술평, 방문기, 각종 문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신문리론」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0) 「근로자」의 자체 분류는 「백과전서」의 구분법을 혼용하고 있다. 즉 「근로자」는 자체에 실린 논설을 편집국논설, 혁명전통논설, 당건설논설, 정치사상논설, 경제건설논설, 과학문화논설, 경험논설, 국제논설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대부분 논설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나 경험논설은 그 성격에 따른 분류이다.

가. 이론논설

이론논설은 맑스-레닌주의 일반적 명제들이 창조적으로 적용된 모범적인 경우나 당 정책의 정당성을 대중에게 교양하는데 주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⁵¹⁾ 「근로자」에 실린 이론논설 중의 많은 주제는 당 및 국가건설과 관련된 문제,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문제이다.

이론논설의 실례로는 “농업 협동조합 경영 위원회의 조직은 농촌 경리의 새로운 양상을 위한 역사적 계기”를 들 수 있다. 논설은 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2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와 김일성의 직접 발기에 의해 농업 협동조합 경영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정확히 포착하고 그것을 혁명적으로 해결한 위대한 사변”이라고 전제하면서 경영위원회 조직의 필연성과 同위원회의 역할, 조직구성, 기능을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다.⁵²⁾

이 논설의 목적이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의 긴밀한 관계의 기초 위에서 국가적 지도와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를 더욱 완전히 결합시킨 새로운 농업 지도 기관”인 경영위원회를 조직한 당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있음은 물론이다. 이

51) 「신문리론」, p. 89.

52) 리석록, “농업 협동조합 경영 위원회의 조직은 농촌 경리의 새로운 양상을 위한 역사적 계기,” 「근로자」, 1962년 제3호, pp. 18~24.

와 같이 이론논설은 맑스-레닌주의의 진리를 선전하며 그것을 복한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당 정책의 정당성과 성과를 해설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론논설에는 혁명전통과 관련한 주제의 논설, 김일성의 생일과 창당기념일·창군기념일 등에 맞춘 일련의 기념논문들도 해당되며 자본주의의 반동성을 비판하는 논설들도 있다. 예컨대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이라는 논설도 이론논설에 해당하는데, 여기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전통의 중요한 내용, 혁명전통 계승의 필요성과 그것이 가지는 의의,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전통 교양과 결부시키려는 당 정책의 정당성, 혁명전통 교양이 이룩한 사회주의 건설상의 성과 등이 설명되어 있다. 이 논설은 다음과 같은 일반화를 끌어내고 있는데 이것이 필자의 진정한 집필의도이다.

우리는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높이 발휘된 혁명전통교양사업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심화시켜나감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를 더욱 다그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힘있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⁵³⁾

53) 리영선,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 『근로자』, 1983년 제12호, p. 26.

나. 경험논설

경험논설은 당, 정권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의 실천적 활동과 경험을 분석·일반화하여 긍정적 사업경험을 보급·선전하며 사업상 나타나고 있는 결함과 편향을 지적·시정할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⁵⁴⁾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얻은 몇가지 경험”이 그 일례이다. 필자는 “군을 잘 꾸리고 그 역할을 높임으로써 지방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훨씬 높일데 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여야 할것”이라고 강조한 김정일의 지시에 입각하여 신양군 당 위원회가 군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서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논설은 군의 자연경제적 조건과 주민들의 소비품 수요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서부터 행정경제일군들에 대한 당 생활지도와 사상사업의 강화에 이르기까지의 경험, 실제 지도사업을 통해 각종 분야의 생산을 증대시키기까지의 실무적인 노력 등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필자는 군 당 위원회가 지방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 관건이 대중을 동원하는 데 있다고 인식하고 강연과 해설담화, 방송, 경험발표회 등의 다

54) 「신문리론」, p. 89.

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대중에 대한 선전선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이 효과가 컸음을 역설하고 있다.⁵⁵⁾

이처럼 경험논설은 실천적인 행정에서 얻은 성과와 경험을 보급·선전할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험논설이 우선적으로 실무 문제에 주의를 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의 정치적 내용을 소홀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예외없이 경험논설에는 정치적 성격의 결론이 뒤따른다. 이는 경험을 위주로 분석하면서도 문제의 정치적 내용, 의의가 명백히 밝혀질 때만이 논설의 지도성과 정론적 수준을 가일층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되기 때문이다.⁵⁶⁾ 경험논설의 필진은 대부분 기관장이다.

다. 지도논설

지도논설은 매 시기 당면하여 제기되는 당 정책이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방도와 수단을 구체적으로 해설, 지도해 주는 것을 기본 사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 자료의 분석을 통한 일반화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동성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다.⁵⁷⁾

55) 김종호,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얻은 몇가지 경험," 「근로자」, 1991년 제8호, pp. 87~91.

56) 「신문리론」, p. 90.

57) 위의 책, p. 89.

지도논설의 실례로는 “강철 12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한 중심 과업”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논설은 “120만 톤 강철 고지 점령은 6개 고지를 중심 과업으로 하는 금년도 인민경제계획의 전반적 문제를 해결하며 방대한 7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축성하는 중요 담보”라고 전제하면서 금속 부문의 당 조직들과 지도일군들 앞에 제기되는 당면과업이 기존 설비의 이용률 제고와 보수체계의 철저한 확립, 선진 기술 및 선진 작업방법의 광범한 도입, 기술혁신 운동의 강화, 공장 당 위원회의 역할 제고 등이라고 지도하고 있다.⁵⁸⁾

이와 같이 지도논설의 실천적 가치와 의의는 매 시기 당이 제시하는 정책과업을 신속히 반영하는 동시에 현실상황에 비추어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적합한 방도를 구체적이고 실무적으로 제시해 주는 데 있다.

라. 보도논설

보도논설은 현실의 여러 현상들 속에서 가장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현상들을 식별해 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시야를 넓혀주어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 기본사명이라 한다.⁵⁹⁾

58) 박승훈, “강철 12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한 중심 과업,” 『근로자』, 1962년 제11호, pp. 20~25.

따라서 그 주제는 대부분 국제문제 및 남한정세에 관한 것이다.

실례로 “날로 심각화되는 제국주의 나라들에서의 재정위기”라는 논설은 자본주의 세계, 특히 미국에서의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증대 등을 강조하면서 날로 심화되어 가는 재정위기가 어디에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인 숫자, 대비자료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독자들을 이끌어 간다.

모든 사실은 오늘 제국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국가재정 위기는 반동통치기구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있으며 반동적인 자본주의경제체제를 밀뿌리쳐 뒤흔들고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현대제국주의는 자기의 부패성과 취약성을 드러낼대로 드러내고있는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이며 그 파멸은 불가피하다.---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발악적책동을 다하여도 파멸의 운명을 면치 못하며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억센 투쟁에 의하여 반드시 멸망하고야말것이다.⁶⁰⁾

성격상 보도논설의 대부분은 반제반미투쟁의 고취와 대남비방이 그 내용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구라파 <공동 시장>과 제국주의국가들 간의 모순” “케네디의 <신 전략>과 남조선”이라는 논설의 필자들은 1962년 말에 제국주의

59) 「신문리론」, p. 90.

60) 황한옥, “날로 심각화되는 제국주의나라들에서의 재정위기,” 「근로자」, 1985년 제6호, p. 92.

자들의 내부 모순이 격화되고 남한을 기지로 한 미국의 대북 침략책동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음을 강변하고 있다.⁶¹⁾

마. 서적해제

「신문리론」에 따르면 서적해제의 사명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서적을 분석·일반화함으로써 서적의 내용과 의의를 해명하여 독자들은 물론, 필자 및 출판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⁶²⁾

이미 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각종 서적들을 비롯한 출판물은 인민대중을 교양하는 강력한 무기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부터 북한에서 서적해제가 갖는 구체적 임무가 제시된다.

북한은 서적해제의 구체적 임무가 해당 서적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상적 내용과 의의를 밝힐 뿐 아니라 긍정적이고 새로운 경험 및 성과들을 분석·일반화하며, 그 서적이 가지고 있는 결함과 부족점을 정확히 분석·평가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⁶³⁾ 따라서 출판되는 서적 전부를 평가하고 해제하지는 못하므로 당 정책 관철에서 제기되는 당면 문제를 독창적으로 제

61) 박순재, “서구라파 <공동 시장>과 제국주의국가들 간의 모순,” 「근로자」, 1962년 제16호, pp. 43~48; 강효진, “케네디의 <신 전략>과 남조선,” 「근로자」, 1962년 제20호, pp. 39~44.

62) 「신문리론」, p. 96.

63) 위의 책.

기한 서적이거나, 이와 반대로 원칙적인 결함이나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서적 등은 해제의 좋은 대상이 된다.

서적해제의 사례로는 “위대한 혁명 정신, 고결한 품성-〈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인민들 속에서〉에 대하여-”를 들 수 있다. 필자는 이 책들이 김일성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던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과 각 계층 인민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통해 김일성의 고매한 품성을 보고 느끼고 체험한 그대로 솔직히 기록한 회상 실기집이라고 하면서 책의 구체적 내용과 그것이 갖는 사회 정치적 의의 및 교양적 가치를 지적하고 있다.

필자가 이 서적해제를 통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로 독자들을 유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회상 실기집을 통하여 간고한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김일성 동지에 의해서 이룩된 우리 당의 고귀한 혁명 전통에 대하여 무한한 자랑과 긍지감을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된다. 동시에 오늘의 빛나는 성과와 벅찬 행복이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주렁진 결실이라는 것을 감개무량하게 생각하게 된다.---우리는 이 책의 한 장 한 장을 펼치면서 바로 그이를 본받아 공산주의자답게, 혁명가답게 일하며 배우며 살 것을 굳게 결의하게 된다.”⁶⁴⁾

64) “서적해제 및 평론: 위대한 혁명 정신, 고결한 품성-〈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인민들 속에서〉에 대하여-,” 『근로자』, 1962년 제8호, p. 42.

바. 문학예술평

문학예술평은 평론의 대상에 대한 보도·선전과 함께 그 사상·예술적 수준, 의의를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한다. 이 가운데 평론이 한편으로는 평론대상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히 해명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는 교양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평론대상의 창작과정에 참가한 주인공이나 집단들로 하여금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고 결함과 부족점을 개선하도록 고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⁶⁵⁾ 비단 북한만의 주장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문학예술평의 독특한 점은 그것이 평론대상에 대한 보도적 기능과 선전적 기능도 담당·수행하는 데 있다. 즉 새롭게 창작된 문학예술의 성과와 의의, 그 내용을 대중들에게 적시에 알려줄 뿐 아니라 당의 영도 하에 발전하는 문학예술의 모습을 국내외에 선전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성황당>을 비롯한 5개 연극에 대한 문학예술평이 그 실례이다. “우리 당의 령도밑에 창조된 5대혁명연극은 혁명적 연극 예술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라는 평론에서 필자는 <성황당>, <혈분만국회>, <딸에게서 온 편지>, <3인1당>, <경축대회>의 5대연극이 혁명적인 연극예술 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된

65) 「신문리론」, p. 97.

다고 주장하면서 이 연극이 갖는 의의, 연극의 내용과 형식, 형상방법에 있어서의 혁신적 성과들을 선전하고 있다. 필자는 5대연극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다.

혁명 연극 <성황당>을 비롯한 5대혁명연극은 우리 연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새로운 높은 경지에서 계승발전시키고 불후의 고전적 명작의 불패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으며 <성황당>식 연극의 창작원칙과 요구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실천적으로 확증하였다. 5대혁명연극은 <성황당>식 연극의 새 시대를 찬란히 장식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연극예술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등대로 된다.⁶⁶⁾

이와 같이 문학예술평은 작품의 사상·예술적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선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사. 방문기

방문기는 「근로자」사의 기자가 여러 곳을 기행하면서 보고 듣고 느낀 견문과 감정을 여정에 따라 전달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필자와 함께 여행하는 듯한 감정 속에서 다양하게 벌어

66) 리령, “우리 당의 령도밑에 창조된 5대혁명연극은 혁명적 연극예술 발전의 새로운 리정표,” 「근로자」, 1968년 제11호, p. 79.

지는 사건의 본질을 인식·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⁶⁷⁾

김일성은 1962년 5월3일 북한의 신문, 잡지들이 공산주의 도덕교양과 역사, 문화, 예술, 자연, 지리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국해방때 용감히 싸운 인민군대와 인민들의 업적에 대하여 쓰는것이 필요합니다. 가렬한 싸움이 있었던 고지들과 골짜기, 도시와 마을 그 모든곳에 깃든 훌륭한 이야기들을 기행문형식으로 쓰는것도 좋을 것”이라고 교시했다.⁶⁸⁾

이 교시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여 소위 “다방면으로 발전된 새 형의 인간”으로 개조하는 데 방문기가 유용함을 지적한 것이다. 中蘇를 비롯한 일련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기행문이 「근로자」에 실려 있는 것은 그것이 근로자들을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그들로 하여금 해당 국가의 발전상에 대한 인식을 모체로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문이다. 이처럼 대중잡지가 아닌 「근로자」에 기행문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에서 기행문의 인식 교양적 의의는 자못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듯하다.

67) 「신문리론」, p. 108.

68) 김일성, “출판사업과 학생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6」, p. 231.

아. 문헌

「신문리론」에 의하면 문헌이란 무엇을 인식하거나 터득함에 있어 매우 귀중하거나 참고로 될만한 기록의 총체로서 보고나 연설, 결정, 정령, 호소문, 성명, 선언서, 커뮤니케, 질의문, 공개적인 서한 등을 의미한다. 즉 문헌은 해당 시기 당과 정부가 제시하는 혁명과업 및 그 수행방도, 대중의 행동방향을 명시함은 물론 국제적 상황과 정치적 사건에 대한 당 및 국가의 태도와 견해, 이해와 관계를 천명한 문서이다.⁶⁹⁾

따라서 특정 시기에 제기되는 중요한 혁명과업이나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행해진 보고 및 연설, 인민대중이 앞으로 취할 태도나 행동방향을 제시한 결정, 주어진 시기 혁명과업으로 대중을 불러 일으키는 내용을 담은 호소문, 국제적 사건에 대한 국가의 견해와 태도를 국제사회에 표명한 공식 성명이나 선언서 등은 당연히 이에 해당한다.

문헌의 목적과 의의는 구체적 내용과 성격에 따라 상이하지만 북한의 주요 공식 문헌의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성격은 당의 정책과 노선, 당의 태도와 견해가 투철하게 천명된다는 데 있으며 문헌에서 표명된 견해는 북한주민들의 행동강령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당 대회를 비롯한 중요 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보고 및 연설, 신년사, 당의 결정 등은 혁명과업

69) 「신문리론」, pp. 113~114.

의 내용과 목적, 방향과 수행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규정한 것”으로 취급된다. 바로 이같은 사정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에서는 문헌들을 특별히 신중하게 편집한다고 한다.⁷⁰⁾

본 연구에서 취급한 기간 내의 「근로자」에는 김일성의 문헌이 95편, 1982년 11월에 처음 게재되기 시작한 김정일의 문헌이 15편, 최용건의 연설이 2편 수록되어 있다.

70) 「신문리론」, p. 114.

第Ⅲ章 「근로자」 논설주체의 변동양상

1. 대분류에 의한 변동추세

I장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주제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3가지로 구분하였으나 여기서는 대분류에 의한 변동추세만을 먼저 언급하고자 한다. 대분류는 논설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치, 경제, 군사외교, 사회문화,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의 5개 범주로 나누었는데 이 범주로 보면 정치분야의 논설이 45.4%로 으뜸이고 다음이 경제분야의 논설로 23.3%, 사회문화분야의 논설이 11.8%로 3위이며 군사외교가 10.4%, 통일문제를 다룬 논설이 9.1%이다.

사회문화를 사회와 문화로, 군사외교를 군사와 외교로 각각 분리했을 경우의 순서는 통일분야의 논설이 정치, 경제의 뒤를 이어 3위, 외교분야 논설이 8.8%로 4위, 문화분야 논설이 8.6%로 5위, 사회분야 논설이 3.2%로 6위이며 군사분야 논설이 1.6%로 맨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다.

이 통계수치는 「근로자」가 정치이론잡지임을 뚜렷이 증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II장에서 이미 언급한 「근로자」의 구체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표 3>참조).

<표 3> 논설주제의 부문별 분포상태

부 문	논 설 편 수	백 분 율 (%)
정 치	1,416	45.4
경 제	726	23.3
군 사 외 교	323	10.4
(군 사)	(50)	(1.6)
(외 교)	(273)	(8.8)
사 회 문 화	369	11.8
(사 회)	(101)	(3.2)
(문 화)	(268)	(8.6)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	285	9.1
계	3,119	100.0

연대별로 볼 때도 대체로 정치, 경제에 관한 논설이 압도적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때에 따라 통일, 외교, 문화분야의 논설이 비슷한 수치로서 순서가 뒤바뀌고 있다. 하지만 사회, 군사분야의 논설은 언제나 마지막 순위를 점하고 있다.

대분류에 의한 주제별 변화추세는 <표 4>와 같다. 60년대에는 정치분야 논설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평균보다 낮은 반면 경제와 외교분야 논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북한이 60년대에 제3세계 등 국제관계에 역점을 두고 경제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던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추세 중 뚜렷한 점은 정치분야와 경제

분야의 논설을 합제한 비율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군사분야의 논설은 그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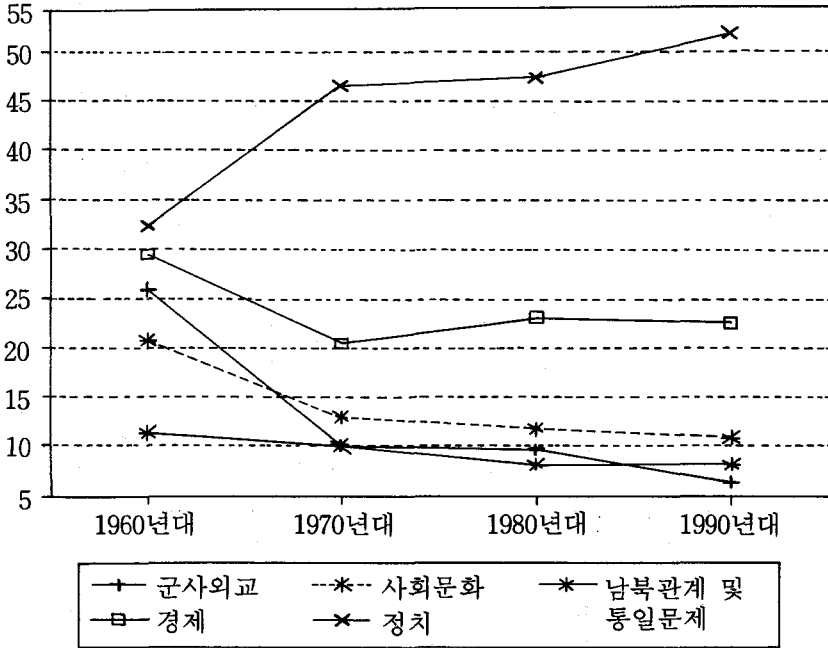
이와 같은 추세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좀더 면밀히 살펴보기 위하여 증분류에 따른 각 부분의 주제별 변화양상을 추적해 보았다.

<표 4> 대분류에 의한 연대별 주제의 분포

(숫자는 %)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전 체
정 치	32.3	46.5	47.5	52.2	45.4
경 제	29.5	20.5	23.2	22.6	23.3
군사외교	16.0	10.0	9.6	6.3	10.4
(군사)	2.6	2.4	1.0	0.7	1.6
(외교)	13.4	7.6	8.6	5.6	8.8
사회문화	10.8	12.9	11.7	10.7	11.8
(사회)	2.2	3.9	3.2	3.0	3.2
(문화)	8.6	9.0	8.5	7.8	8.6
남북한 관계 및 통일문제	11.4	10.0	8.1	8.1	9.1
계	100.0	99.9	100.1	99.9	100.0

<그림 1> 대분류에 의한 연대별 주제의 분포 추세



2. 정치부문

정치분야에서 가장 빈번히 취급된 주제는 37.1%를 차지한 당에 관한 것이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일반론이 15.6%로 다음이며 주체사상에 대한 해설 및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11.7%로 3위, 혁명전통계승이 11.2%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는 사상교양이 9.8%, 김일성 및 그의 가계 이상화가 7.2%, 국가에 관한 것이 3.9%, 3대혁명이 3.0%, 법제가 0.5%이다. 이 가운데 김일성의 이상화를 위한 논설과 주체사상에 관한 논설을 합계할 경우 18.9%로 당에 관한 논설의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한다(<표 5>참조).

<표 5> 중분류에 의한 정치부문 주제의 분포

분 류	논설편수	백분율(%)
우 상 화	102	7.2
주체사상	165	11.7
당	526	37.1
국 가	55	3.9
법 제	7	0.5
사회주의건설	221	15.6
3대혁명	43	3.0
혁명전통	158	11.2
사상교양	139	9.8
계	1,416	100.0

<표 6>에서 나타나듯이 정치분야의 논설내용을 연대별로 보면 먼저 60년대에 두드러진 것은 당, 특히 당일군들의 사업 자세에 관한 언급과 사상교양의 강조이다. 이 때만 하더라도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과 주체사상에 관한 해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에 오면 사상교양에 대한 강조가 현저히 떨어진 반면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과 주체사상의 해설 및 그 확립에 관한 언급이 60년대의 약 4.5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3대혁명을 강조하는 논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북한의 70년대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매진하던 시기임을 상기하면 쉽게 이해되는 결과이다.

80년대에 이르면 김일성의 우상화 작업은 절반으로 떨어진 반면 온 사회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주체사상 관계 논설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시 당사업에 관한 강조가 70년대에 비해 약 30% 증가하기에 이른다. 당에 관한 언급이 70년대에 전체적으로 감소했지만 ‘군중로선’을 중심으로 하는 당사업방법론에 관한 논설은 60년대 이래 계속 늘어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90년대를 보면 정치분야 논설 총수의 약 절반 가량을 당에 관한 언급이 차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는데, 이 중 특히 당일군의 책임과 역할, 자세를 강조한 논설이 증가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 점은 90년대에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을 독려하는 논설이 크게 늘어난 점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걸고 기존의 체제를 끝까지 고수하고자 하는 북한정권의 의지를 잘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6> 정치부분 연대별 주제의 분포

(백분율은 %)

주 제 분 류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우상화	5	3.4	44	10.5	45	6.3	8	5.7	
주체사상	5	3.4	63	15.1	93	13.1	4	2.8	
당	당관계 일반	28	19.0	59	14.1	143	20.1	33	23.4
	당일군의 자세	16	10.9	32	7.7	70	9.9	18	12.8
	당사업 방법	10	6.8	36	8.6	66	9.3	15	10.6
국가	8	5.4	22	5.3	21	3.0	4	2.8	
법제	-	-	4	1.0	3	0.4	-	-	
사회주의 건설	21	14.3	59	14.1	109	15.4	32	22.7	
3대혁명	1	0.7	20	4.8	20	2.8	2	1.4	
혁명전통	22	15.0	51	12.2	70	9.9	15	10.6	
사상교양	31	21.1	28	6.7	70	9.9	10	7.1	
계	147	100.0	418	100.1	710	100.1	141	99.9	

3. 경제부문

<표 7>을 보면 경제부문에서 가장 자주 논설의 주제로 된 것이 경제건설 일반론으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경제건설 일반론만 보면 경제목표 및 정책 달성을 촉구하는 논설이 10.9%,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조한 논설이 9.0%, 국가규모의 경제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거기에 필요한 방법론을 제시한 논설이 6.7%, 원가절감이나 설비이용률 제고와 같이 경영활동의 개선을 독려하는 논설이 9.1%, 절약이나 증산 등 경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제적 태도를 지적한 논설이 2.2%,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비롯해 경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대중운동을 강조한 내용이 3.6%, 마지막으로 경제계획을 해설하고 계획수립과 경제통계의 중요성을 역설한 논설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약 50%를 점하고 있는 이 경제건설 일반론에 이어 농림수산업에 관한 논설이 16.9%, 광공업을 언급한 논설이 14.6%로 뒤를 잇고 있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기술혁신과 기술인재의 양성을 강조한 논설이 7.9%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14.6%는 각각 1~3%씩을 기록한 상업, 분배, 재정·금융·예산, 교통, 건설, 국토관리, 노무행정 및 노무관리, 대외무역 및 대외 경제협력을 다룬 논설로 구성되어 있다.

<표 7> 중분류에 의한 경제부문 주제의 분포

주 제 분 류		논설편수		백분율(%)		
중분류	소 분 류		소 계		소 계	
경제건설 일반론	경제목표 달성 촉구	79	334	10.9	46.0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	65		9.0		
	국가규모의 경제관리	49		6.7		
	경영활동 개선	66		9.1		
	경제적 태도	16		2.2		
	경제부문의 대중운동	26		3.6		
	경제계획 및 통계	33		4.5		
농림 수산업	농업일반	35	123	4.8	16.9	
	사회주의농촌건설	74		10.2		
	임업, 수산업, 축산업	14		1.9		
광공업	사회주의공업화 일반론	22	106	3.0	14.6	
	광업	17		2.3		
	공업	전력공업		12		1.7
		금속공업		6		0.8
		기계공업		10		1.4
		화학공업		5		0.7
		건재공업		2		0.3
		경공업		15		2.1
		지방공업		17		2.3
과학기술		57	57		7.9	
기타	상업	6	106	0.8	14.6	
	분배	7		1.0		
	재정·금융·예산	13		1.8		
	교통	18		2.5		
	건설	11		1.5		
	국토관리	20		2.8		
	노무행정 및 노무관리	20		2.8		
	대외무역 및 대외경제협력	11		1.5		
계		726	726	100.1	100.1	

농림수산업을 다룬 논설의 총수는 123편이나 이 중 농업 및 농촌건설을 언급한 논설이 109편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임업, 축산업, 수산업을 다룬 논설은 불과 14편에 불과하다.

그리고 광공업을 다룬 총 106편의 논설의 경우 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업건설을 촉구하는 일반론이 22편, 석탄채굴 등을 강조한 광업분야의 논설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업의 발전을 다룬 논설이 각각 17편, 주로 소비품중산의 독려를 내용으로 하면서 경공업분야를 언급한 논설이 15편, 전력공업에 관한 논설이 12편, 금속공업에 관한 논설이 6편, 기계공업을 다룬 논설이 10편, 화학공업에 관한 논설이 5편, 건재공업을 언급한 논설이 2편이다.

60년대에 평균보다 빈도가 높은 주제는 농업부문의 증산과 사회주의농촌건설이다. 활용할 수 있는 농지면적이 부족한 북한으로서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그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때는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어 농업부문의 기술혁신과 함께 농촌의 문화, 사상혁명이 크게 강조되고 농촌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제를 강화한 시기였다. 바로 이런 사정들이 농업분야를 다룬 논설의 비중을 높인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 경제부문 연대별 주제의 분포

(백분율은 %)

주제 분류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중분류	소분류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경제 건설 일반론	경제목표달성촉구	17		19		42		1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	10	7.5	13	7.1	39	11.2	3	4.9	
	국가규모의 경제관리	5	3.7	11	6.0	26	7.5	7	11.5	
	경영활동개선	10	7.5	15	8.2	30	8.6	11	18.0	
	경제적 태도	3		5		4		4		
	경제부문의 대중운동	3		7		15		1		
	경제계획 및 통제	5		10		16		2		
소 계		53	39.6	80	43.5	172	49.6	29	47.5	
농림 수산업	농업일반	5		16		11		3		
	사회주의농촌건설	20		17		31		6		
	임업, 수산업, 축산업	5		3		6		-		
소 계		30	22.4	36	19.6	48	13.8	9	14.8	
광공업	공업화일반론	10	7.5	5	2.7	6	1.7	1	1.6	
	광업	4		8		3		2		
	공업	전력공업	1		3		6		2	
		금속공업	1		1		4		-	
		기계공업	3		1		5		1	
		화학공업	1		1		2		1	
		건재공업	2		-		-		-	
		경공업	1		2		10		2	
	지방공업	1	1.5	4	3.3	8	5.2	4	9.8	
소 계		24	17.9	25	13.6	44	12.7	13	21.3	
과학기술		10	7.5	18	9.8	27	7.8	2	3.3	
기타	상업	2		-		2		2		
	분배	2		1		3		1		
	재정·금융·예산	2		3		8		-		
	교통	1	0.7	8	4.3	8	2.3	1	1.6	
	건설	4		2		4		1		
	국토관리	1	0.7	7	3.8	12	3.5	-	1.6	
	노무행정 및 관리	5		4		8		3		
	대외무역 및 경제협 력	-		-		11		-		
소 계		17	12.7	25	13.6	56	16.1	8	13.1	
총 계		134	100.1	184	100.1	347	100.0	61	100.0	

60년대의 수치 가운데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공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업경영 및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업화 일반론이 많았다는 점이다. 아마도 이는 북한의 60년대가 7개년경제계획(1961-1967년)에 이어 3개년계획(1968-1970년)이 연속적으로 시행되면서 공업기반을 조성하던 시기였던 데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70년대에 와서 주목되는 변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 일반론에서 국가규모의 경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주장의 논설과 기술개발을 강조한 논설이 다소 증가하고 특히 교통 및 국토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논설이 크게 늘어난 점이다. 간석지사업을 비롯한 자연개조사업과 물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교통의 중요성이 강조된 점에서, 그리고 경제발전의 속도와 경제부문간의 균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경제관리가 강조된 점에서 70년대의 북한경제가 가장 필요로 했던 점들이 무엇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80년대에 오면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조한 논설이 늘어난 반면 농업분야를 다룬 논설은 뚜렷히 감소한 것과 인민소비품의 증산 및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경공업·지방공업관계 논설이 증가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경제의 침체로 인해 주민의 생활이 어려워져 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 가운데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대외무역 및 대외 경제협력을 내용으로 하

는 논설이 11편이나 등장했다는 점이다.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주제를 다룬 논설은 단 한 편도 없었다는 점에서 가장 뚜렷한 변화이며 이는 자력갱생을 기조로 하는 북한경제가 한계에 부딪히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90년대에 이르러 더욱 뚜렷해진다. 경제분야를 다룬 90년대의 논설총수가 61편에 불과해 표본수에 있어 신뢰도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인민생활의 향상과 직결되는 경공업 및 지방공업의 발전을 촉구하는 논설은 비율로 볼 때 80년대의 5.2%에서 9.8%로 증가한다.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그로 인한 인민생활의 궁핍 및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데 북한정권이 최대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표 8>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가절감이나 설비이용률 제고 등을 독려하면서 경영활동의 개선을 촉구하는 논설이 90년대에 크게 증가하고 또 사회문화부문에서 후술하겠지만 80년대와 90년대에 인민생활의 편의를 위한 복리후생시설의 마련과 의료보건 등의 복지문제를 주제로 한 논설이 70년대의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4. 군사외교부문

군사분야의 논설은 크게 보아 3가지로 그 내용을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인민군의 창건과 발전사를 언급하면서 군을 찬양

하고 군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 둘째는 북한이 지향하는 군사노선을 해설하고 그 정당성과 관철을 주장하는 내용, 셋째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와 그 의의를 설명하면서 승리의 전통을 계승하길 촉구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근로자」에 실린 논설총수 3,119편 가운데 군사부문의 논설은 불과 50편에 지나지 않아 연대별로 변화추세를 관찰하고 그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체로 보아 군사부문은 「근로자」의 주요 관심분야가 아니며 군사부문을 다룬 논설은 2월호와 4월호, 7월호에 게재되고 있다. 이는 군사분야를 다룬 논설이 2월과 4월에 각각 인민군 창군기념일과 군 통수권자인 김일성의 생일이 들어있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논설이기 때문이다. 특히 '조국해방전쟁'을 기념하는 논설 13편 모두가 7월호에 실려있는 것에서 논설의 기념적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한편 외교 및 국제관계 부문의 논설도 3가지 내용이 주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대외정책의 기초를 해설한 것, 둘째 식민지 민족해방의 조류나 제3세계의 혁명투쟁,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내외 움직임 등 국제정세를 소개한 것, 셋째 반제·반자본주의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비동맹운동에 대한 지지를 강조한 것이다.

<표 9> 군사의외교부문 연대별 주제의 분포

(백분율은 %)

주 제 분 류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중분류	소 분 류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군사	인민군	5		6		7		-		
	군사노선	4		12		3		-		
	조국해방 전쟁	3		4		4		2		
	계	12		22		14		2		
외교	대의정책 및 그 기초	6	9.8	10	14.7	24	18.6	1	6.7	
	국제정세 소개	20	32.8	15	22.1	21	16.3	-	-	
	반제 투쟁 선동	일반론	17		20		44		12	
		반미	12	57.4	14	63.2	31	65.1	2	93.3
		반일	6		9		9		-	
계	61	100.0	68	100.0	129	100.0	15	100.0		

<표 9>를 볼 때 주목되는 점은 일반 국제정세를 소개한 논설이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반제투쟁의 강화를 주장하는 논설이 꾸준히 증가해 90년대에는 외교부문의 논설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북한정권이 사회주의권의 몰락 등 자신에게 불리한 국제정치적 변화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편 반미·반일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반제국주의투쟁의 강화를 통해 체제의 동요를 단속하려는 데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5. 사회문화부문

사회부문을 살펴보면 인민생활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 복지문제를 다룬 논설이 39.6%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뒤이어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 있어 근로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논설이 34.7%로 2위, 사회주의생활양식의 확립과 생활질서의 준수를 촉구하는 논설이 21.8%로 3위, 마지막으로 여성의 혁명화와 남녀평등 문제를 거론한 논설이 4.0%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근로단체의 역할을 강조한 논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역할을 거론하면서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청년들의 임무를 역설하고 있는 것과 여성에 대한 관심도가 극히 미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남녀평등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심을 보인 논설은 총 3,119편 중 단 두 편에 불과하다.

연대별 변화추세를 볼 때 특기할 사항은 70년대에 들어와 생활질서·규율의 준수를 강조하는 논설이 등장해 80년대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과 전술한 바와 같이 80년대에 들어와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인민생활개선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한 사실이다. 규율·질서·공중도덕을 언급한 논설이 60년대에 단 한 편도 없었다가 70년대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그만큼 이 시기의 북한사회가 사회질서면에서 문란해져 갔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80년대 이후 인민들의 의식주생활과 사회복

<표 10> 사회문화부문의 주제별 분포

(백분율은 %)

중분류	주제 분류 소분류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계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사회	근로단체의 역할	2		6		-		-		8		
	사로청 및 청년의 역할	4	60.0	9	42.9	11	22.9	3	37.5	27	34.7	
	여성의 혁명화, 남녀 평등	1		3		-		-		4	4.0	
	인민생활향상과후생시설개선	3		7		16		3		29		
	의료보건	-	30.0	2	25.7	8	50.0	1	50.0	11	39.6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	-		2		5		1		8		
	생활질서·도덕 준수	-		6	22.9	8	27.1	-	12.5	14	21.8	
계		10		35		48		8		101	100.1	
문화	문예정책	12	30.8	25	30.9	38	29.9	5	23.8	80	29.9	
	인테리정책	1		5		5		2		13	4.9	
	교육	3	7.7	24	29.6	28	22.0	2	9.6	57	21.3	
	문예	문학	9		6		10		5		30	11.2
		음악	2		1		7		2		12	4.5
		무용										
		미술	1		1		2		2		6	2.2
		연극										
		영화	-		7		11		2		20	7.5
	언어	5		3		2		-		10	3.7	
	체육	2		1		2		-		5	1.9	
	출판·보도 (언론)	1		3		5		-		9	3.4	
	민족문화계승·발전	1		2		5		1		9	3.4	
문화혁명	2		3		3		-		8	3.0		
역사	-		-		9		-		9	3.4		
계		39		81		127		21		268	100.3	

지문제를 거론한 논설이 증가한 것은 당시 북한의 경제사정 악화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문화분야의 논설을 보면 전체의 29.9%가 문예정책을 해설하면서 거기에 맞는 작품의 창작을 강조한 것으로 문화분야 논설 가운데 양적으로 으뜸이고 그 다음이 교육에 관한 것으로 21.3%이다. 나머지 약 50%는 각 문화분야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논설인데 이 중 수위는 문학을 다룬 것으로 이는 문화분야 논설 전체의 11.2%를 차지하고 있고 연극·영화를 다룬 논설이 전체의 7.5%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연대별로 변화를 보면 주목되는 점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70년대에 교육부문 논설과 연극·영화부문 논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전자는 1977년에 '사회주의 교육 체제'가 발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며 후자는 김정일의 개인 관심사가 크게 반영된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 부문

이 부문의 논설은 내용으로 볼 때 크게 4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통일에 관한 북한의 기본방안이나 각종의 대남제의, 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등을 제시하고 있는 논설로 이 분야의 논설 전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인 40.0%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는 전체 논설의 3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남한의 정치

·경제·사회·문화 등을 중상비방하는 논설이다. 셋째는 남한정세나 사회적 분위기가 혁명과 통일에 유리해져 가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남한혁명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동하는 논설로 25.6%를 점하고 있다. 마지막은 조총련의 활동을 언급한 논설로 3.9%를 차지하고 있는데 논설의 거의 전부를 한덕수가 집필한 것으로 되어있다.

<표 11>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 부문의 주제별 분포

(백분율은 %)

주 제 분 류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계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논설수	백분율
남 한 혁 명	남한혁명 강조	16	44.2	21	28.9	5	16.5	-	18.2	42	25.6
	남한정세	7		5		15		4		31	
대 남 비 방	정치비방	11	40.4	10	20.0	22	35.5	4	22.7	47	30.5
	경제비방	4		2		12		-		18	
	사회· 문화비방	6		6		9		1		22	
통일방안		6	11.5	42	46.7	54	44.6	12	54.5	114	40.0
조총련의 활동		2	3.8	4	4.4	4	3.3	1	4.5	11	3.9
계		52	99.9	90	100.0	121	99.9	22	99.9	285	100.0

이 부분의 연대별 변화추세를 보면 60년대에 남한혁명을 강조한 논설이 44.2%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체 평균으로 볼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고 있는 통일관련 논설이 11.5%로 3위에 그친 것이 특이하다. 이는 4·19혁명과 제3공화국의 통치에 대한 끊임없는 국민적 저항으로 남한정국이 불안정해 북한이 혁명의 好機로 인식한 때문인 듯하다.

그러나 남한의 노동자·학생들에게 혁명을 위한 투쟁과업을 제시하면서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이런 논설은 70년대 이후 크게 감소함에 비해 통일을 위한 북한의 기본방침과 각종의 대남제의를 해설하고 그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설은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70, 80년대에 남북적십자회담을 비롯한 남북간 접촉이 많았고 통일문제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쌍방간의 줄다리기가 활발히 전개된 때문일 것이다.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대남비방의 변화추세이다. 남한혁명을 강조하던 60년대의 경우 대남비방 논설도 가장 많은 40.4%를 기록했고 70년대에 와 남한혁명을 선동하는 논설이 60년대의 44.2%에서 28.9%로 떨어지자 대남비방 논설도 20.0%로 감소했다. 그러나 80년대에 이르면 남한혁명을 촉구하는 논설이 16.5%로 줄었음에도 대남비방 논설은 다시 35.5%로 늘어났는데, 증가의 원인은 대남비방 가운데 남한경제의 대외 예측성을 강조하는 대남경제비방 논설이 현저히 늘어난 데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

남정치비방과 사회·문화비방은 각각 줄어들었으나 경제비방만은 70년대의 11.1%에서 27.9%로 증가했다. 이는 아마도 자신의 경제침체와는 달리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남한경제의 실상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第IV章 결어

「근로자」의 논설은 북한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인용되는 자료의 하나이다. 이는 북한연구자들이 참고로 할 수 있는 북한의 1차문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북한의 다른 대중잡지와는 달리 「근로자」가 당과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기관지임과 동시에 정치이론잡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근로자」의 논설을 어떤 형태로든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가 없어 많은 불편과 아쉬움을 남겼다. 본 연구는 이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하는 의욕에서 출발했다.

북한은 「근로자」의 글들을 가끔 ‘론문’으로 지칭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통념으로 볼 때 그것들은 논문이 아니다. 우리의 통념상 논문은 “어떠한 사물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자기 의견을 적은 글”인데⁷¹⁾ 「근로자」의 글들은 필자가 ‘자기 의견’을 밝힌 것이라기 보다는 천편일률적으로 소위 ‘당의 이론’을 선전하고

71)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 사전」(서울: 삼성출판사, 1992), p. 705. 한편 북한의 「조선말대사전」은 ‘론문’을 “어떤 문제성이 있는 제목을 가지고 과학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얻은 결과나 업적을 발표하는 글”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979. 그러나 이 정의에 따르면이라도 「근로자」의 글들은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을 그대로 북한주민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어반복의 나열에 가깝다. 이 때문에 이미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다른 북한의 문헌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이용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II장에서 「근로자」의 역할과 성격, 거기에 실려있는 글들의 특징을 살펴 보았다.

III장에서 시도한 「근로자」 논설주제의 변동양상에 대한 추적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표집할 수 있었던 60년대와 90년대의 논설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그 기간에 대한 분석의 신뢰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또한 논설수의 증감에 대한 해석도 매우 서술적이고 피상적인 선에서 그쳤음을 자인한다. 방대한 양에 반한 시간적 제약 때문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이 번의 분석결과가 「로동신문」의 사설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론⁷²⁾과 많은 점에서 일치한다는 것이 하나의 수확이며 이 점에서 III장의 도출결과가 북한사회의 변동상을 한 단면에서나마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기초적 논거의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번 연구에서는 각 논설의 내용을 시기별로 정밀하게 분석해 그 변화상을 추출해내는 작업과 「근로자」의 성격을 소개하고 실린 논설들의 주제를 가능한 한 세부적으로 분류해 배

72) I장의 각주 6)을 참조

치하는 일종의 색인작성 작업에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논설 주제의 변동양상이 나타나게 된 자세한 이유를 설명하는 작업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북한의 모든 분야에 정통하다고 할 수 없는 필자가 통계처리를 통해 나타난 수치들에 대해 어설피게 해석하기 보다는 북한의 특정 부문에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진척시켜 나갈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오히려 본 연구의 진정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백과사전 1」.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_____ . 「백과사전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_____ . 「백과전서 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김영주·이범수 공편.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서울: 나남,
1991.

레닌 저. 김민호 역.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운동의 긴급한
과제」. 서울: 거름, 1988.

북한 외국문출판사. 「김일성저작집색인」. 평양: 외국문출판사,
1991.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2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
판사, 1981.

_____ . 「조선전사 29」. 평양: 과학백과사전출
판사, 1981.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사회과학출판사. 「김일성동지의 로작색인」. 동경: 구월서방, 1971.

_____. 「력사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1.

_____.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10: 령도예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_____.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유재근·이상호·박상천. 「북한의 문화정보 1」. 서울: 고려원, 1991.

이상두.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언론 -북한언론의 본질과 비판」. 서울: 범우사, 1979.

이은죽. 「북한사회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0.

조선로동당출판사. 「조선로동당력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_____.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2. 論 文

- 김일성. “당보를 창간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 _____.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_____.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김일성저작집 1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출판사업과 학생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1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김창순. “공산주의 및 공산권 연구개관.”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편. 「공산권연구현황」. 서울: 법문사, 1981.
- 안병영. “통일 및 북한연구의 방법론 평가.” 「통일정책」, 제3권 제1호 (1977).
- 안춘옥. “북한신문의 기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 오유석. “북한잡지를 통해 본 북한사회변화 추세 연구.” 통일원. 「북한·통일연구논문집(IV)」 (1991).
- 이병철. “북한잡지를 통해 본 북한사회변화 추세 연구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원. 「북한·통일연구논문집 (IV)」 (1991).

이상우. “로동신문사설에 나타난 북한정책 관심의 변천: 1967
~1973.” 「성곡논총」, 제6집 (1975).

_____. “북한연구.”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편. 「공산권연구현
황」. 서울: 법문사, 1981.

정세현. “북한의 국제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태도와 대외관, 자
아상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논문집」, 제9호
(1985).

조형준. “북한언론에 관한 연구 -로동신문사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2).

황성모. “북한연구 현황과 방법론.” 「북한학보」, 제4집 (1980).

附 錄

빈 면

「근로자」 논설의 주제별 분류

- * ()안의 4자리 숫자 가운데 처음 두 자리는 년도를 표시하며 뒤의 두 자리는 월을 나타낸다. 따라서 예를 들면 (7005)는 1970년 5월호이다. 뒤의 두 자리가 12를 넘는 경우는 「근로자」가 1962년 4월부터 1966년까지 반월간으로 발간되었기 때문인데, 그럴 경우 예컨대 (6219)는 1962년 10월호이다.
- * 논설제목 마지막에 있는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덧붙인 것이다.

I. 정치

1. 김일성 우상화

가. 김일성 및 그의 가계 찬양

- (6204) 평남도에 대한 김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
- (6204) 고상한 품모, 혁명적 령도 작풍
- (6906) 조국해방을 위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투쟁과 조선혁명에서의 주체확립
- (6911)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현지지도방법을 따라배우자
- (700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학습을 더욱 심오히 하자
- (7201)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있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긍지와 행복(김일성 생일 60주년)
- (7201)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와 항일무장투쟁
- (720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
- (720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

경과 흠모

- (7203) 조선공산주의녀성운동의 탁월한 선구자 강반석녀사
- (7203) 조선민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에 의한 조선국민회창건과 그 불멸의 업적
- (7204) 인민들은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
- (7212) 민족의 태양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남조선에서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다
- (73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일가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위대한 가정
- (7404)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예와 행복
- (7404) 어버이수령님께서 보여주신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위대한 모범
- (7405) 수령님에 대한 항일혁명선렬들의 끝없는 충실성의 빛나는 모범
- (740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 계신다
- (7407) 우리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은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다
- (7408)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끄신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시다
- (7504) 어버이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뭉쳐나아가는 우리 나라의 혁명적대풍모
- (75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 (7504)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싸우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의 기치
- (75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에게 민족적대변영과 룡성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었다
- (75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지니고 계신다
- (7511)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권선생님의 불멸의 혁명업적
- (76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조국과 인민을 구원하여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시다

- (7604)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하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 (7606)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높이 드신 민족자주의 기치
- (77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 (7704) 아버지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 (7707)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강반석녀사는 조선공산주의여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다
- (7904)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자주성의 시대를 빛내이시는 인류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 (7907) 조선민족해방운동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불멸의 혁명업적(김형직 찬양)
- (8004)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령도예술
- (8004) 세기에 빛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력사
- (8006) 위대한 수령의 령도는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
- (8203) <지원>의 애국사상(김형직 찬양)
- (82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 (8211) 주체사상의 창시는 우리 혁명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
- (8304) 위대한 령도와 불멸의 업적
- (8404) 주체의 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위대한 령도
- (8407) 자주독립의 기치밑에 민족단합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고귀한 업적(김형직 생일 90주년)
- (8409) 충성으로 빛나는 혁명가의 참된 삶(김정숙 찬양)
- (8504)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운명을 개척하고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 (8508)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승리
- (8604)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령도사는 로동계급의 수령의 빛나는 령도의

력사

- (8606)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조국과 민족 앞에 쌓아올리신 혁명업적
- (87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숭고한 공산주의적동지애로 수놓아진 빛나는 력사
- (87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위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다
- (8712)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공산주의녀성혁명가의 빛나는 생애(김정숙 찬양)
- (88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의 숭고한 력사
- (8904)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의 길로 빛나게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 (9004)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인민을 위한 참다운 정치를 베푸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나. 수령에 대한 충실성, 대이어 충성 강조

- (6707) 항일유격대원들의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
- (7311)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적당성의 기본
- (740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관철과 일군들의 혁명가적기풍
- (7404)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서 나타나야 한다
- (7405) 수령님께 끝없이 충성다하는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
- (740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확고히 신념으로 삼고 사업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고귀한 품모
- (7409)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 혁명과 건설에서 위대한 비약을 일으키자
- (7504)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꽃피워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예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 (7602)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 나가자

- (7606) 신념화된 절대적인 충실성
- (7703) 위대한 수령님을 다함없이 경모하고 따르는 것은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
- (7804)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혁명적의지이다
- (7904)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
- (7904)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본분
- (7904)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수령의 위업이다
- (8004)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닌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
- (8102)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기본품성
- (8106)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은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
- (8205)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
- (8212)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의 영원한 정치적생명
- (8304) 당성은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 (8311) 주체형의 혁명가의 신념과 의리
- (85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충실성은 조선혁명의 계승성을 담보하는 사상정신적원천
- (8509) 공산주의혁명가의 인간관계와 동지적의리
- (8608)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은 당발전의 합법칙적요구
- (8610) 당을 옹호보위하는 성세가 되고 방패가 되자
- (8612) 청년공산주의자들속에서 높이 발휘된 불굴의 혁명정신
- (8702) 주체의 혈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불멸의 업적
- (8707)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는 력사의 자주적인 주체
- (8708)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수령관

- (8709)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우리 사회의 위대한 혁명적 풍모
- (8710) 혁명의 주체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는것은 혁명위업에 충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 (8711)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하는것은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의리로 간직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 (8801)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녀수
- (8802)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집단주의적 생명관에 기초한 충실성
- (8804) 혁명적 수령관은 혁명적 인생관의 핵
- (88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일심단결
- (8805) 당원은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을 위하여 값있게 살아야 한다
- (8903)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도덕의 최고 표현
- (8904)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혁명적 수령관의 숭고한 발현
- (8905) 혁명의 수령을 어버이로 모시고 충성으로 받드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중요한 품성
- (9007) 일심단결의 정신도덕적기초
- (9108) 수령과 전사사이의 믿음과 충성, 사랑과 효성은 우리 당의 일심단결의 확고한 담보
- (9108)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것은 당의 불패성의 담보
- (9109)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의 결정체
- (9110)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의 원천
- (9110) 당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대를 이어 고수하고 강화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
- (9112) 당과 수령을 옹호보위하는것은 혁명전사의 첫째가는 임무

2. 주체사상

가. 주체사상 해설

- (6519)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 자주, 자립의 사상이다
- (6906)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제의 규모와 생산발전속도의 호상관계에 대한 독창적리론(「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 (6906)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의 상품적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에 대한 위대한 사상(「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 (7001)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
- (7008)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종국적승리에 관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
- (710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가장 위대한 맑스-레닌주의적지도사상
- (72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 (721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와 그 심화발전
- (7212)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의 기초이다
- (7212) 위대한 주체사상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사조
- (7304) 주체사상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위대한 사상
- (7305) 위대한 주체사상은 가장 철저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적사상이다
- (7309) 위대한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자#
- (740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위대한 사상
- (74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과학적 공산주의의 불멸의 가치
- (750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

- (7512) 주체사상은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되고 혁명실천을 통하여 검증된 혁명과 건설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
- (760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시대의 혁명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 (76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새로운 철학적원리에 기초한 불멸의 사상
- (7608) 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
- (77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의 창시자이시다
- (7709) 주체사상은 시대와 혁명의 진로를 밝혀주는 위대한 혁명사상
- (7710) 주체사상은 민족적 자주권과 독립, 번영을 위한 투쟁의 가치
- (7803)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
- (7804)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참다운 혁명적세계관
- (7806)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진수
- (7903) 주체사상의 창시는 인류사상발전과 자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위대한 사변
- (7904)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
- (7905)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
- (7906) 사람은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사회적존체
- (7907)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
- (7907)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것은 주체사상의 요구
- (7909) 주체사상은 과학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는 지도적지침
- (7912)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
- (7912) 주체사상은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불멸의 가치
- (8001)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참다운 혁명사상

- (8003) 주체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적원리
- (8005) 주체사상이 기초하고 있는 철학적원리
- (8005) 주체사상은 민족적 자부심과 자주의식을 높여주는 참다운 혁명사상
- (8006) 주체사상은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창시되고 그 정당성이 확증된 위대한 지도사상
- (8009) 주체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
- (8012)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
- (8104)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세계관
- (8204) 주체사상의 역사적지위와 특징
- (8204) 주체의 혁명리론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학설
- (8206)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이 노는 결정적역할
- (8206) 주체사상이 밝힌 세계에 대한 관점과 입장
- (8206) 자주성과 창조성, 의식성은 사람의 본질적속성
- (8207) 자주성은 사람의 사회정치적생명
- (8207) 인민대중은 사회력사의 주체
- (8211)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혁명적세계관
- (8211)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을 집대성한 위대한 역사적문헌(「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발표 45주년)
- (8303)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한 지침
- (8303)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새로운 철학사상
- (8303)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 집대성한 역사적문헌(김정일의 「주체사상에 대하여」 발표 1주년)
- (8304)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위대한 공산주의건설리론
- (8309)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밝힌 역사적문헌(「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발표 40주년)

- (8311)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사람중심의 세계관의 초석
- (8312)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정치에 관한 이론
- (8403) 주체사상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의 길을 밝힌 위대한 사상
- (8404) 주체철학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방도를 밝혀 주는 혁명적세계관
- (8404) 인간에 대한 과학적해명은 주체철학이 이룩한 빛나는 업적
- (840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은 전일적인 구성체계를 가진 불멸의 사상
- (8410) 주체사상은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높여주는 위대한 혁명사상
- (8411) 주체사상이 밝힌 인식과 개조의 방법론
- (8501)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세계에 대한 견해
- (85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은 창조성으로 빛나는 위대한 모범
- (85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리론은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
- (8505)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은 사회 발전의 기초
- (8506) 사람의 주동적활동과 객관적조건
- (8508)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끈 불멸의 기치
- (8511)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원리
- (8512) 자주적사상의식과 창조적능력은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기본요인
- (8603) 사람을 중심으로 세계에 대하는것은 사고와 실천의 일반적방법론
- (8603) 주체사상을 심화발전시킨 우리 당의 업적
- (86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기치
- (8606)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령도리론
- (8610) 주체의 혁명리론은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역할을 높이는 위력한 혁명리론

- (8611) 주체철학에서 인간문제
- (8612) 주체사상이 밝힌 사람의 실천활동
- (8703) 주체사상은 주체시대 혁명리론의 세계관적 기초
- (8703) 사람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은 본질에 있어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 (87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사상리론가이다
- (8708) 주체사상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빛내이는 불멸의 사상
- (8710) 주체의 세계관은 세계의 본질과 인간의 운명문제에 가장 심오하고 포괄적인 해명을 준 철학적 세계관
- (8711) 주체의 철학적 원리는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을 밝혀주는 원리
- (8711)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길을 밝혀준 휘황한 등대(「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발표 50주년)
- (8712)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 자유와 평등에 관한 주체적 견해
- (8712) 주체사상은 인간해방의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주는 혁명학설
- (8712) 사회의 본질과 그 변화발전의 합법칙성
- (8803) 주체사상은 완성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령도리론과 령도방법을 밝혀주는 위대한 사상
- (88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자주성에 관한 혁명학설의 창시자이다
- (8804) 주체의 철학적 세계관의 본질적 특징
- (8805) 인간의 운명 개척의 길을 밝혀주는것은 철학적세계관의 근본사명
- (8811) 주체의 혁명관은 수령관, 조직관, 균중관, 도덕관으로 이루어진 전일적인 혁명관
- (8908)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혁명사상
- (9011) 주체사상은 새롭고 독창적인 로동계급의 철학사상
- (9012) 위대한 주체사상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사상적기초

나. 은 사회의 주체사상화, 주체확립

- (6521) 주체 확립은 과학, 교육 사업 발전의 기본 담보
- (6910)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은 우리 당건설의 확고한 지도적지침
- (7003)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로선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확고한 지침
- (7004)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자
- (7006) 자력갱생은 혁명과 건설의 근본원칙
- (7006)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전사회의 위대한 정치사상적통일
- (7012) 주체확립을 위한 우리 당의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된 강령적문헌(「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발표 15주년)
- (7101)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전투적임무
- (710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
- (7108)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7109)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사상체계에 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당 및 혁명 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사상
- (7212)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근본방법이다
- (7303)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전체 조선인민의 단결의 기초
- (7304)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적기치
- (7311) 주체사상으로 무장하는것은 사상혁명의 기본
- (731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석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정치사상적통일
- (74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은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이 지닌 가장 영광스러운 혁명위업
- (740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은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자

- (7502)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위대한 공산주의강령
- (75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숭고한 혁명위업
- (7511) 문답식학습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수령님의 혁명사상학습을 더욱 강화하자
- (7602)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은 공산주의 건설의 위대한 기치
- (7701) 전당과 온 사회에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자
- (7702)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역사적위업
- (7703)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고수하고 관철해나가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근본요구
- (7712) 자주 리념을 철저히 구현하자
- (77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 만세
- (7810)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것은 공화국정부의 최종목표
- (7812)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주체의 혁명관으로 튼튼히 무장시키자
- (7901)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심화하자
- (7902)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 (7904) 체정신을 가지고 혁명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정신적특질
- (7908) 자주, 자립, 자위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국가활동의 근본원칙
- (8002)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하는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근본담보
- (8004)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 (8011)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위대한 강령(조선로동당 제6차대회문헌)
- (8011)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투쟁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

- (8011)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혁명의 총적임무
- (8101)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
- (8104)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은 우리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
- (8112)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제일생명
- (8202) 당과 수령을 중심으로 한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
- (8202)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의 위대한 강령
- (8205)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8210) 실정에 맞게 하는 창조적방법
- (8211)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지켜야할 근본립장
- (8212) 사상에서 주체를 세우는것은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요구
- (8301)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
- (8304)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위한 혁명적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
- (8307) 주체적립장을 지키는 것은 공산주의운동과 맑스-레닌주의의 본성적 요구
- (8307) 자력갱생은 공산주의적 혁명기풍과 혁명정신의 중요한 특징
- (8309)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은 공화국의 튼튼번영을 위한 확고한 담보
- (8402) 주체사상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혁명적신념
- (8402)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당의 공산주의건설강령
- (8408)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당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령도
- (8508)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
- (8512)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의 강령적지침(「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발표 30주년)
- (8607) 주체사상이 밝힌 자주성실현의 합법칙성

- (8609) 주체의 인생관의 본질적내용
- (8702) 우리 당의 사상리론은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끄는 지도적지침
- (8703)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자
- (8706)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혁명적의지
- (8710) 자기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정신은 세계혁명앞에 지닌 민족적 임무에 충실하기 위한 혁명정신
- (8909)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아가자
- (8910)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는것은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 방침
- (9003)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자
- (9112) 주체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

3. 당

가. 당 찬양,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

- (6201) 맑스주의와 과학적 예견성
- (6204) 우리 당에 의한 레닌적 당 건설 원칙의 창조적 구현
- (6204)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의 빛나는 실현
- (6204)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 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다
- (6305)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통일 실천에 있어서의 획기적 사변(제1차 당 대표자회 5주년)
- (6306) 조선 로동당 제2차 대회와 력사적 의의
- (6515) 변혁과 창조의 20년
- (6516) 당 창건을 위한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투쟁(창당 20주년)

- (6519) 조선 로동당이 령도하는 우리 인민의 위업은 필승 불패이다
- (6521) 우리 당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로정과 우리의 임무
- (6709) 당대표자회의 위대한 사상은 빛나게 구현되고있다(당대표자회 1주년)
- (6710)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건되고 령도되는 우리 당은 필승불패의 대오로 장성하였다(창당 22주년)
- (7010)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조선로동당은 필승불패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당이다
- (7105) 혁명의 탁월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 (7108) 대중적당건설의 길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지침(「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 「북조선로동당창립대회의 총화에 관하여」)
- (7109)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거대한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대회(당 제4차대회 10주년)
- (7203)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
- (72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 (7310) 당은 우리 사회의 심장이며 원동력
- (750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조선로동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였다(창당 30주년)
- (7507) 민주주의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끈 위대한 당
- (7510)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당이다
- (7512)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인 당건설리론의 빛나는 승리
- (7512)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참다운 력사적시원과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의 축성
- (7608) 주체형의 대중적당건설의 길을 독창적으로 밝힌 강령적지침(「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 발표 30주년)
- (7704)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을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 (7710)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적력량이다 #

- (7908) 우리 당은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이다
- (7910)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영광스러운 당이다
- (7910) 당은 정치적생명의 보호자
- (8001)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의 새로운 이정표(당 6차대회)
- (8002) 우리 당은 불패의 위력과 령도력을 지닌 위대한 당
- (8005) 우리 당은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영광스러운 당
- (8006)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강령적지침
- (8008) 조선로동당은 준엄한 투쟁속에서 세련되고 단련된 강철의 혁명적당
- (8109)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정치적생명의 보호자
- (8110)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위대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영광의 대회(당 제6차대회 1주년)
- (8110) <트, 드>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 뿌리
- (8111)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향도적력량
- (8202)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위대한 당
- (8210) 조선로동당은 주체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향도적기치
- (8212) 조선로동당은 <<트, 드>>를 뿌리로 하여 자라난 영광스러운 당
- (8212) 주체형의 혁명적당건설에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강력적문헌(김정일의 논문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트, 드>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이다」)
- (8212) 조선로동당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로동계급의 새형의 혁명적당
- (8302)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
- (8310) 대중적당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고귀한 경험
- (8502) 우리 당의 창조적사상리론활동과 그 빛나는 결실
- (8510) 당창건위업의 완성은 우리 당 건설 력사를 빛내인 획기적사변(창당 40주년)
- (8602) 우리 당은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위대한 당

- (8607) 당건설위업수행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업적
- (8607) 주체의 당건설리론을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조선로동당건설의 역사적경험」)
- (8610) 조선로동당은 <트.디>의 전통을 계승한 영광스러운 당
- (8610) <트.디>를 뿌리로 하여 자라난 우리 당은 세계혁명위업에 충실한 위대한 당
- (8704)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을 로속하고 세련된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킨 위대한 수령이시다
- (8710) 당은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증추
- (8802) 주체의 혁명적 당 건설전통의 위대한 생활력
- (8802)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어머니당
- (8810)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 불패의 혁명적 당
- (8810) 우리 당은 사람들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보호하고 빛내여주는 어머니품
- (8902) 우리 당의 당풍은 당건설의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전통적이며 혁명적인 당풍
- (8904)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을 자주적인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킨 위대한 령도자이시다
- (8906) 우리 당은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당
- (8910)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위업의 위대한 향도자
- (9007) 첫 당조직의 결성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시원을 열어놓은 역사적사변
- (9010)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새형의 혁명적당
- (9011)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어머니당
- (9110) 우리 나라에서 통일적당창건위업의 빛나는 실현
- (9111) 우리 당의 사람과의 사업체계는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는 가장 우월한 사업체계

나. 당의 역할·지도 강조

- (6215) 당 위원회의 집체적 령도와 당원 대중의 통제
- (6302) 당의 령도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 (6422) 당 조직들의 지도적 기능을 더욱 높이자
- (6520)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당적 령도의 강화
- (6601) 혁명 력량의 확대 강화는 우리 혁명 승리의 결정적 담보
- (7107)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
- (7602) 당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향도성
- (7612) 주도권을 튼튼히 틀어쥐고 공격전을 들이대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원칙
- (7702)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빛나게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자
- (7702) 당의 혁명적지도에 충실하는것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 (7807) 당생활지도는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 (7901) 집체적 지도는 당위원회활동의 기본요구
- (7908) 당위원회와 집체적지도
- (8101)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높여 새해의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자
- (8102) 당의 세련된 령도는 우리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
- (8103)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지도는 정치적지도이며 정책적지도
- (8202) 당생활을 옹계 지도하는것은 당사업의 기본고리
- (8301)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
- (8310) 통이 큰 작전과 세밀한 조직사업
- (8407) 창조성은 우리 당 활동의 근본특징
- (8412) 혁명과업수행에 기본을 두고 당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 (8508) 장악과 통제는 당적지도실현의 기본형식
- (8508) 투쟁으로 혁명의 진로를 개척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기풍
- (8603) 당원들의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당위원회의 지도
- (8608) 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향도적력량
- (8608) 당의 령도는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
- (8609) 집체적지도는 당위원회활동의 기본방식
- (8703)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 (8710) 당의 령도는 주체혁명위업승리의 확고한 담보
- (8806) 200일전투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시당위원회의 지도
- (8812) 사회주의사회발전과 당의 령도적 역할의 제고
- (8908)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높이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
- (8909) 사회주의건설과 당의 령도적 역할
- (8910) 우리 당은 불굴의 의지와 담력을 지닌 혁명적 당
- (9002) 당의 령도는 인민대중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기본요인
- (9004) 당의 령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한 결정적담보
- (9005) 군살림살이와 군당위원회의 당적지도
- (9011)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혁명적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
- (9110) 로동계급의 당은 사회주의사회의 유일한 향도적력량이다
- (9110) 당의 령도는 올바른 투쟁 전략과 전술에 의거하여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
- (9112)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기본요인

다. 당 노선·정책의 정당성과 관철 강조, 당 사업 일반 강화

- (6311) 공장 당 위원회 사업의 가일층의 강화 발전을 위하여
- (6702) 당정책관철과 혁명적기풍
- (6708)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키는 우리 당의 노선
- (6709) 현지교시관철을 위한 공장당위원회의 사업
- (7002) 군당위원회사업개선에서의 강령적지침(「새 환경에 맞게 군당단체의 사업방법을 개선할데 대하여」 발표 10주년)
- (7010)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노선은 혁명과 건설의 근본리익에 부합되는 가장 정당한 혁명적노선이다
- (7012)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지침
- (7408) 군당은 당정책관철에서 집행단위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 (7507)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에 맞게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한 강령적문헌(「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1주년)
- (7802) 당정책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자
- (7802)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착시키는것은 당활동의 근본요구
- (7903) 당정책관철과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적기풍
- (8003) 당정책관철과 초급당조직의 역할
- (8209) 당정책관철에서의 절대성, 무조건성
- (8210)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 (8403) 혁명적규률을 세우는 것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중요한 요구
- (8502) 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신념
- (8509) 당정책관철에서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
- (8708) 당원들이 당규약의 요구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은 당대렬의 정예화를 위한 중요담보
- (8708) 혁명과업수행정형은 당 생활평가의 중요척도

- (8709) 당정책관철에서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
- (8710)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혁명의 전략전술
- (8805)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일군들의 혁명적 본분
- (8807) 당정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일군들의 혁명적기풍
- (8808)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공산주의 혁명가의 삶의 요구
- (8810) 당결정서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는것은 당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 (8901)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가의 고유한 투쟁기풍
- (8903)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일관성있게 관철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
- (8908)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는데서 획기적 전환을 가져온 강령적 문헌(김정일의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발표 15주년)
- (8910)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가장 혁명적이고 독창적인 전략과 전술
- (9001) 당정책관철과 일군들의 절대성, 무조건성의 혁명정신
- (9003) 정치생활, 문화생활, 물질생활을 다같이 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 (9007) 당의 결정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은 락원로동계급의 사상정신적특질
- (9012)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것은 당조직들의 첫째가는 의무
- (9111)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빛내이기 위한 근본담보

라. 당 조직 강화

- (6302) 당원들의 당 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 (6303) 당 세포의 강화는 전 당을 강화하는 기본 담보
- (6519) 당의 조직 사상적 공고화를 위한 투쟁

- (6711) 초급당조직의 전투적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 (7207)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는 기본담보
- (7308) 당 조직사업과 선전선동사업의 옴은 배합
- (7308)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사업의 기본고리
- (7410) 조선로동당을 영원히 위대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가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자
- (7510)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다
- (7605) 당원들의 당생활은 혁명과업수행과 밀접히 결부되어야 한다
- (7606) 당대렬을 불패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은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
- (7812) 당세포들이 활발히 움직여야 당의 전투력을 높일수 있다
- (7902) 민주주의중앙집권제는 혁명적 규률의 기초
- (7906)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건설의 기초
- (7908) 당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열쇠
- (8005) 당생활을 정규화하는것은 당원들을 조직사상적으로 단련하는 중요한 담보
- (8009) 기층당조직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
- (8012) 당생활과 당성단련
- (8101) 당세포는 당생활의 거점
- (8106) 혁명적당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당성단련의 중요한 요구
- (8108)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강화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결정적담보
- (8111) 당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당원의 고상한 품성
- (8203) 혁명적인 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
- (8203) 당규률을 강화하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근본요구
- (8206) 당생활의 정규화는 조직관념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 (8307)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
- (8405)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이는 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확고한 담보
- (8408) 당과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것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확고한 담보
- (8410) 당세포는 대중속에서 활발히 움직여야 한다
- (8503) 당조직은 정치적생명의 보호자
- (8505) 규률은 당의 생명
- (8510)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혈연적으로 연결된 대중적당
- (8512) 세포의 전투력을 높이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 (8602)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
- (8605)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성단련의 기본방도
- (8609) 조직관념을 바로 가지는것은 당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선결조건
- (8609) 당대렬의 조직사상적공고화는 당건설의 기본내용
- (8610) 당대렬을 정예화하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근본요구
- (8707)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고리는 당조직을 활발히 움직이는데 있다
- (8709)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의 전투적 위력의 원천
- (8712)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당풍을 철저히 세우자
- (8802) 당성을 높이는것은 당안에 혁명적인 당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 (8803) 당조직관념을 높이는것은 당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 (8901) 당생활은 사회정치적생명의 요구를 실현해나가는 정치생활
- (8906) 당조직은 사회정치적 생명의 모체
- (8907) 당생활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조직들의 기본임무
- (8910) 당원들의 조직사상생활수준을 높이는것은 당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 (8911) 당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우리 당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 (9002) 당내부사업에 힘을 넣는것은 당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 (9003) 기층당조직을 튼튼히 꾸리는것은 당을 강화하기 위한 원칙적요구
- (9005) 당안에 혁명적사업기풍을 세우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근본요구
- (9009) 당생활은 당조직과 당원들의 생명활동
- (9011)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는것은 당과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
- (9107) 당생활 조직과 지도를 잘하는것은 당세포 앞에 나서는 기본임무
- (9108) 기층당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 (9109) 당세포를 강화하는것은 전당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
- (9110) 당원들의 당생활을 강화하는것은 당조직건설의 중요한 요구
- (9111) 당조직건설을 잘하는것은 당을 수령을 중심으로 굳게 결속된 규를 있는 전투부대로 만들기 위한 기본담보
- (9111) 사회계급적기초를 강화하는것은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마. 당내 유일사상체계 확립, 당의 통일·단결 강조

- (6520) 당과 대중의 불패의 통일 단결
- (6712) 당의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전원회의(당중앙위원회 제5차전원회의 15주년)
- (6903) 김일성동지의 로작《함경북도당단체들의 과업》은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전당의 확고부동한 통일단결을 이룩하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문헌
- (7005)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원칙
- (7207)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당정책학습
- (7211)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는 주체의 사상체계

- (7306)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과 혁명적실천
- (7311)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 사상사업의 일관한 원칙
- (7412) 전당을 유일사상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선결조건
- (7502) 우리 당사업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환
- (7503)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우리 당건설의 근본문제
- (7504) 우리 당은 수령님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 (7510)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전투적인 당이다
- (7510) 우리 당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혁명적인 당이다
- (7702)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는 우리 혁명 승리의 결정적담보
- (7705)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우리 당 건설의 기본로선
- (7910)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력사
- (8003) 우리 당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는 영광스러운 당
- (8007)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철통같이 통일단결된 불패의 당
- (8009) 유일사상체계에 기초한 통일단결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
- (8011)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당건설의 기본로선
- (8103)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풍부히 한 우리 당의 위대한 공적
- (8103)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선결조건
- (8103)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근본초석
- (8104)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자
- (82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
- (8302) 우리 당은 통일단결을 실현한 위력한 혁명적당
- (8302) 주체사상은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지도적지침

- (8304)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것은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근본담보
- (8310)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빛내어나가자
- (8310)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 것은 로동계급의 당의 본성적요구
- (8404)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근본요구
- (8410)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위대한 전통을 빛내이자
- (8411)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은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
- (8504) 전당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한 위대한 령도
- (8510)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활동하는 혁명적당
- (8510) 조선로동당은 주체의 혈통을 순결하게 이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
- (8510) 전당을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빛나는 령도
- (8510) 조선로동당은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을 실현한 불패의 당
- (8510) 혁명적 조직성과 규률성을 지닌 강철의 당을 마련한 탁월한 령도
- (8602)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당 활동의 확고부동한 지도적지침
- (8603)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는것은 당건설의 근본원칙
- (8609) 당과 인민대중의 통일단결을 실현하는것은 혁명적당건설의 중요원칙
- (8701)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는것은 당사업체계확립의 원칙적요구
- (8702) 우리 당은 일심단결을 실현한 불패의 혁명정당
- (8702)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
- (8705) 우리 당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
- (8710)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사상
- (8808) 준엄한 혁명의 길에서 강화발전되여온 우리 당의 불패의 통일단결
- (8810) 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
- (8901) 사상의 일색화는 령도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 (8902) 주체사상을 빛내어나가는 우리 당의 창조적 사상리론활동

- (8904) 당의 령도체계 확립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 문헌(김정일의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 (8906)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의 령도체계를 세우기 위한 탁월한 령도
- (8906) 조선로동당은 일심단결을 실현한 위대한 당
- (9002) 사상의 일심단결, 행동의 일심단결을 이룩한 위대한 당
- (9010) 불패의 통일단결을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가는 위대한 당
- (9010) 항일혁명투쟁시기 당창건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불멸의 업적
- (9012)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당의 조직사상적공고화를 위한 근본원칙
- (9109) 사상론의 원리를 구현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건설의 원칙적요구
- 바. 당 일군의 자세·책임·역할, 당 간부가 지녀야 할 품성, 당 간부 육성
- (6205) 지도 일'군들은 스스로 일을 찾고 조직하고 집행하자
- (6205) 간부들 속에서 혁명적 수양을 더욱 강화하자
- (6208) 간부들에 대한 개별 교양 체계의 철저한 확립을 위하여
- (6214) 간부들의 정치 실무 수준 제고는 당 위원회들 앞에 제기된 긴절한 과업
- (6301) 학습에서 독서와 론쟁
- (6307) 일'군들의 이신작칙
- (6314) 나라 살림살이와 일'군들의 책임성
- (6515) 과학적인 사고 방법과 사업 태도를 철저히 수립하자
- (6516) 우리 당의 간부 육성 정책의 빛나는 결실
- (6516) 일'군들 속에서 학풍을 철저히 세우자
- (6602) 전사회의 혁명화와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
- (6705) 전반장악과 <섬멸전>

- (6706) 당원의 선봉적역할
- (6708) 당원은 자기의 당성을 부단히 단련하여야 한다
- (6904)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가장 고결한 품성이다
- (6907)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더욱 높이는것은 현실발전의 필수적요구
- (7001)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자
- (7103) 간부들의 정치실무적자질을 높이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선결조건
- (730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당원된 영예를 더욱 빛 내이자
- (7303) 이신작칙은 일군들의 중요한 혁명적사업기풍
- (7305) 나라살림살이와 일군들의 주인다운 태도
- (7308) 모든 일을 주인답게 하는것은 일군들의 혁명적사업태도
- (7311) 일군들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져야 혁명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다
- (7404) 비판과 자기비판은 일군들을 혁명화하는 위력한 무기
- (7407) 간부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철저히 세워 정열적인 독학가가 되자
- (7411) 수령님의 고매한 공산주의적품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품을 따라배우자
- (7505) 혁명가는 죽는 순간까지 학습을 하여야 한다
- (7608)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어 들이는것은 당일군의 참된 일본새
- (7611) 간부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이는것은 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
- (7701) 일군들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실천투쟁에서 나타나야 한다
- (7703) 일군들은 혁명가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 (7707)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고상한 품성
- (7708) 당정책관철에서 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

- (7709)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의 일군들의 지휘능력
- (7805) 당일군은 경제지식과 현대과학기술을 알아야 한다
- (7807) 모든 일군들은 세밀하고 간지게 일하는 기풍을 철저히 세우자
- (7808) 일군들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
- (7808) 일군들은 과학기술지식을 깊이 알아야 생산을 더 잘 지도할수 있다
- (7810) 학습기풍을 세우고 조직관념을 높여 혁명가의 본분을 다하자
- (7811) 지도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정통하여 혁명과 건설을 책임적으로, 창발적으로 밀고나가자
- (7901) 일군들의 혁명적본분과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
- (7902)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원문학습과 일군들의 학습기풍
- (7902) 당정책관철과 일군들의 높은 요구성
- (7905) 비판과 자기비판은 일군들을 교양하는 힘있는 무기
- (7905) 지도일군들은 당의 방침을 근기있게 관철해나가자
- (7907) 조직성과 규률성은 당원의 고상한 품모
- (7911) 선봉적역할은 당원의 본분
- (7912)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은 일군들의 숭고한 혁명적기풍
- (8003) 책임성과 창발성은 주인다운 태도의 중요한 요구
- (8007)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는것은 당원들의 신성한 의무
- (8108) 일군들의 이신작칙은 위력한 정치사업
- (8111)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과 지휘능력
- (8207) 당세포사업과 당원들의 선봉적역할
- (8211) 높은 혁명적열정과 왕성한 사업의욕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 사업기풍
- (8301)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첫 당조직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시원
- (8302)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는 것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일군들의 중요한 과업

- (8303) 일군들의 혁명화와 혁명적세계관 확립
- (8306) 주체형의 당일군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특질
- (8408) 당일군들은 방법에서 로속하고 작풍에서 원만하여야 한다
- (8412) 일군들의 자체수양과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
- (8412)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것은 주체사상의 중요한 요구
- (8501) 당성, 인민성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규정하는 근본요인
- (8505) 주체형의 공산주의자의 혁명적정열과 전투적기백
- (8506) 사업을 근기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일군들의 혁명적인 일본새
- (8506) 당일군은 군중의 친근한 벗이 되고 혁명동지가 되어야 한다
- (8507) 당원은 혁명의 선봉투사
- (8507) 일군들의 혁명화와 조직생활
- (8509) 살림살이를 자체로 꾸리는 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일본새
- (8510)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에서 높은 혁명성을 발휘하자
- (8511) 일군들은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불러 일으키는 기수가 되어야 한다
- (8601) 인간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한 품성
- (8603) 모든 당일군들은 어머니당의 당일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자
- (8604)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더욱 높이자
- (8606) 일군들은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책임적으로 일하여야 한다
- (8607) 당일군은 실력을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
- (8608) 당일군에게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야 한다
- (8611) 이신작칙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기풍
- (8611) 어깨를 들이밀고 일을 대담하게 전개해나가는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일본새
- (8612) 모든 일을 예견성있게 짜고들어 주인답게 하는것은 일군들의 중요한 혁명적 사업기풍

- (8612) 당일군들이 기발을 들고 앞장서야 한다
- (8701) 겸손성과 소박성은 당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업작풍
- (8701)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은 참다운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
- (8703) 패기와 정열에 넘쳐 일하는것은 당일군들의 혁명적사업기풍
- (8706) 일군들은 높은 인민성을 지녀야 한다
- (8707)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은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 (8707) 일군들은 모든 일을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 (8708) 당일군은 인민대중의 리익의 참다운 옹호자
- (8712) 혁명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고상한 기풍
- (8801) 어깨를 들이밀고 투신하는 것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혁명적 사업기풍
- (8801) 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문제를 제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
- (8802) 혁명적 열정과 패기는 모든 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중요한 열쇠
- (8802) 일군들이 인민의 총복답게 일하도록 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
- (8803) 창조적 사색과 혁명적 전개력
- (8803)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 일군들의 조직적 수완
- (8803) 당일군은 혁명의 기수가 되여야 한다
- (8805) 높은 혁명성을 지니는것은 참다운 혁명가가 되기 위한 근본요구
- (8806) 당일군은 혁명적 수양을 끊임없이 쌓아나가야 한다
- (8806)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일하는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투쟁기풍
- (8806) 당원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선봉적 역할을 높이자
- (8807) 당일군은 끊임없이 사색하고 대담하게 실천하여야 한다

- (8808)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사업하는것은 당일군들의 고유한 일본세
- (8808)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대건설행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 (8808) 일군들은 당성과 인민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 (8810)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당의 전투력과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
- (8810) 혁명성과 전투력을 높이 발휘하여 투쟁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 (8902) 혁명성과 전투력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기질
- (8902) 일군들은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이악하게 투쟁하여야 한다
- (8903) 일군들은 언제나 당정책관철의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
- (8903)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것은 일군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사업기풍
- (8903) 당일군들은 참다운 정치일군이 되어야 한다
- (8904) 일군들은 풍부한 정서와 높은 문화적 소양을 가져야 한다
- (8905) 당일군은 고상한 인간성과 인정미를 가져야 한다
- (8906)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 (8907)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당정책관철에 투신하는것은 일군들의 혁명적 본분
- (8908) 당일군들은 사업에서 언제나 공명정대하고 원칙적이어야 한다
- (8908) 창조적인 사색과 활동은 일군들의 고유한 일본세
- (8909) 당일군들은 대중의 참다운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 (8912) 당원들은 당적량심을 가지고 당생활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 (9001) 일군들은 높은 정치적수준과 능숙한 조직적 수완, 혁명적전개력을 지녀야 한다
- (9002) 당에 대한 신뢰와 당일군의 풍모
- (9003) 당일군은 언제나 사색하고 움직이는 정치활동가가 되어야 한다
- (9004) 일군들은 인민의 참다운 복무자, 총복이 되자

- (9006) 사회주의건설에서의 혁명적대고조와 일군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 (9006) 모든 일군들은 <9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자
- (9006) 당일군들은 천리마대고조시기에 발휘된 혁명정신, 일본새대로 살며 일해야한다
- (9007) <9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당원들의 선봉적역할
- (9007) 풍만한 정서와 당일군
- (9007)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것은 우리 일군들이 일관하게 구현해야 할 혁명적구호
- (9008) 정책적대를 바로세우는것은 일군들이 사업에서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립장
- (9009) 당일군은 정치가, 박식가가 되어야 한다
- (9011) 일군들은 인민의 총복이 되고 성실한 심부름군이 되어야 한다
- (9107) 인민대중의 리익의 철저한 옹호자, 충실한 복무자로 되는것은 당일군의 숭고한 의무
- (9108) 주인다운 립장과 높은 책임성은 당적량심을 보여주는 척도
- (9108) 충실성과 실력은 주체형의 당일군이 지녀야 할 기본징표
- (9108)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초급일군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나가자
- (9111)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고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것은 당일군의 본분

사. 당 사업방법론

- (6205) 인민대중과 현실은 일'군들의 훌륭한 교사이다
- (6215) 초급 간부들 속에서 균중적 사업 작풍의 철저한 확립을 위하여
- (6220) 사회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 균중 로선의 전면적 관철
- (6303) 청산리 방법은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하는 위력한 무기이다
- (6307) 계급 로선과 균중 로선

- (6702) 군중로선구현에서의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
- (6706)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은 우리 당의 위력한 사업방법
- (6802)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혁명적사업방법
- (6808) 대중지도와 일군들의 사업작풍
- (6905)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심화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
- (7006)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위력한 사업방법
- (7007) 우리 당의 혁명적군중관점과 인민적사업작풍의 빛나는 전통
- (7007) 일반적지도와 개별적지도를 결합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
- (7101) 당사업의 기본을 명시해준 력사적문헌(「당사업에서 주되는것은 모든 사람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단결시키는것이다」 발표 10주년)
- (7102) 당사업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철저한 구현
- (720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 (7210)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사업
- (7305)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는것은 우리 당의 혁명적사업방법
- (7307)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
- (7307)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람과의 사업을 힘있게 벌려 모두가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게 하자
- (7312) 당사업을 개선하자면 행정식사업방법을 없애야 한다
- (7502)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계승한 우리 당의 전통적사업방법
- (7503) 당사업은 정치사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7510)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은 대중과의 혈연적연계에 있다
- (7510)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은 주체형의 혁명적인 당, 조선로동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
- (7601)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자
- (7602) 우리 당이 제시한 방법론에 관한 사상은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의

길을 밝혀준 위대한 방침

- (7603) 청산리방법대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살며 일하자
- (7604)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사업방법, 수령님사업방법대로 일해나가자
- (7605) 당사업을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 (7702) 우리 당에 의한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의 빛나는 구현
- (7705) 당일군들은 어머니다운 품성으로 사람과의 사업을 더욱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 (7706)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선결조건
- (7803) 정권기관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 가야 한다
- (7804)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지도방법은 공산주의적령도방법의 위대한 모범
- (7807) 당일군은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
- (7901) 사업은 객관에서 얻고 결합은 주관에서 찾아야 한다
- (7902) 항일유격대식으로 일하는것은 당사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기본담보
- (7902)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모든 사업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 (7906) 아래를 실속있게 도와주는것은 당일군들의 기본사업방법
- (7907)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은 대중지도의 기본요구
- (7909) 대중지도와 사업작풍
- (7909) 정치사업은 일군들의 본분
- (7911) 전반장악과 중심고리
- (7911) 당사업은 사람과의 창조적사업
- (7912)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는것은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 (8002) 우리 당 사업방법에서의 위대한 전환의 력사
- (8007)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당의 전투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 (8007) 주체사상과 균중로선
- (8008)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요구
- (8009)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의 옳은 결합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
- (8012) 우리 당 사업방법은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
- (8102) 당 사업체제와 사업방법 확립에서의 위대한 전환
- (8104)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완성된 공산주의적령도방법
- (8201) 전반을 장악하고 아래를 도와주는것은 하부지도의 중요한 원칙
- (8202) 우리 당 사업방법에서 일어난 혁명적인 전환
- (8204) 주체의 령도방법은 완성된 공산주의적대중령도방법
- (8205) 균중로선은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당 활동의 근본원칙
- (8207)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자
- (8208) 당사업의 기본은 사람과의 조직정치사업
- (8209)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창조적방법
- (8210)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관계
- (8301) 정치사업선행은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칙적요구
- (8304)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혁명적령도예술의 백과전서
- (8306)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
- (8307)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
- (8308) 인민대중과의 혈연적관계는 우리 당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
- (8401) 계급로선과 균중로선은 우리 당 활동의 기초
- (8408) 장악하고 도와주는 것은 하부지도의 중요한 원칙
- (8409) 우리 당의 령도예술을 따라 배우자
- (8502) 청산리방법은 우리 당의 위력한 대중지도방법
- (8503)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당사업의 중요한 원칙

- (8505) 책임지는 립장에서 아래를 도와주어야 한다
- (8509) 아래에 내려가는것은 실속있는 지도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 (8510)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
- (8601)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관점
- (8601) 예비는 대중을 발동시키는데 있다
- (8601) 정치사업은 당일군의 본분
- (8602) 주체의 당사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위대한 령도
- (8602) 전당이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자
- (8602)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근본담보
- (8605) 군중과의 사업은 당일군의 중요임무
- (8608) 사람과의 사업은 당의 정치실현의 기본방식
- (8609) 우리 당의 령도예술은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혁명적군중로선을 구현한 주체의 령도예술
- (87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령도예술
- (8706) 사람과의 사업은 당의 고유한 활동방식
- (8708) 아래에 내려가야 사람을 알고 사상을 알수 있다
- (8709)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혁명실천을 통하여 불패의 생활력이 확증된 위력한 대중지도방법
- (8709) 군중속에 들어가야 문제해결의 열쇠를 찾을수 있다
- (8711) 혁명적 군중관점을 가지는것은 인민의 총복이 되기 위한 근본요구
- (8712) 일군들의 군중관점과 사람과의 사업
- (8801) 령도예술은 조직과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 나가는 활동방식이며 령도적 수완
- (8801) 위대한 청산리방법은 가장 우월한 공산주의적 령도방법
- (8802) 혁명적 사업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
- (8804) 위대한 수령님식 사업방법은 실천을 통하여 생활력이 확증된 참다

운 공산주의적 사업방법

- (8805)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령도예술의 사상리론적 기초
- (8805) 사람과의 사업은 대상의 특성에 맞게 하여야 한다
- (8805) 인민대중과의 혈연적 관계를 강화하는것은 당의 본성적 요구
- (8806) 당의 령도체계와 혁명적 군중로선을 결합시켜 나가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
- (8807) 200일전투와 군중정치사업
- (8808) 당사업은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사람과의 사업으로 일관되어야 한다
- (8811) 당적 방법, 정치적방법으로 모든 사업을 지도하는것은 당 일군들의 고유한 사업기풍
- (8812) 군중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중의 창조적 지혜를 발동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기본열쇠
- (8901)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군중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 (8902) 당일군들은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 (8903) 당의 유일적 령도와 군중로선을 결합시키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근본원칙
- (8906) 혁명적 방법에 의거하는것은 혁명과업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구
- (8907) 혁명적 군중관과 일군들의 사업방법
- (8907) 담화는 사람과의 사업의 기본형식
- (8910)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당의 령도적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 (8911)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 (8912)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는것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
- (9001)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불패의 힘의 원천
- (9002) 대중지도에서 근본적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 창조 30주년)

- (9004) 당일군은 군중속에 들어가 사람을 알고 사람을 움직일 줄 아는 일군이 되어야 한다
- (9004)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를 빛나게 실현한 탁월한 령도
- (9005) 모든 일군들은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는 참다운 교양자, 조직자가 되자
- (9008) 당일군들은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사업하는 것을 습성화하여야 한다
- (9009) 당적령도의 보장과 군중로선의 관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원칙
- (9010) 탁월한 령도예술로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세련된 령도
- (9010) 사람과의 사업만 잘하면 역경도 순경으로 만들수 있다
- (9011) 당의 령도밑에 군중과의 사업에서 일어난 위대한 전환
- (9012) 당적, 정치적 방법을 구현하는것은 당의 령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방도
- (9012)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는것은 당의 불패성의 담보
- (9111)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
- (9112) 당의 구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을 관철하는데서 얻은 군당위원회의 경험
- (9112) 혁명적사업방법을 확립하는것은 당과 인민 대중의 혈연적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4. 국가(인민정권)찬양, 국가의 역할·임무·기능, 지방정권기관의 역할, 프롤레타리아독재

- (6207) 정치적 주권 기관으로서의 지방 정권 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제고하자
- (6215)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역할
- (6317) 공화국 정권은 최대한의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 (6317) 인민의 자유와 행복과 번영의 기치-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 (6702) 우리 나라에서의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의 수립과 그 강화발전

- (6710) 인민정권의 불패의 위력
- (68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의 길, 혁명승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건국 20주년 경축연회에서의 보고)
- (6902) 국가활동에서 독재와 민주주의의 정확한 결합
- (7009)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 (710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나라에서의 첫 프로레타리아독재 국가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 (7109)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인민혁명정부로선과 그 빛나는 실현
- (7202) 인민정권기관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 문헌(「현재단계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발표 20주년)
- (72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시다
- (720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과도기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관한 창조적사상
- (7309) 우리의 국가는 참다운 로동자, 농민의 국가(건국 25주년)
- (730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시하신 혁명주권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
- (7409) 수령님께서 세워주신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임무
- (77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세우신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다
- (7706)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
- (7707) 우리의 정권기관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인민의 총복
- (7709)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자
- (7801)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

- (7801)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주권문제를 해결하는것은 혁명정권 건설의 근본문제
- (7801) 위대한 주체사상의 찬연한 빛발로 혁명적인 정권건설의 길을 휘황히 밝힌 강령적문헌(「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 (7801) 판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인민정권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 (7808) 공화국의 품속에서 살며 일하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 (7809)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공화국의 모든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
- (78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영광스러운 혁명정권
- (7809) 공화국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30년
- (780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다
- (8009) 공화국정권은 근로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강력한 무기
- (8109) 국가사회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
- (82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리론의 불패의 생활력
- (8206) 인민정권과 3대혁명은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기치
- (8206) 우리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는 정치적무기
- (8209)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 (8309) 인민정권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
- (8309)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역사적경험을 풍부히 한 우리 당의 인민정권건설리론
- (8509)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인민정권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 (8509)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정권활동의 근본원칙
- (8509)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혁명정권
- (8608) 사회주의조국은 우리 인민의 보람찬 삶과 행복의 요람
- (8611) 우리의 인민정권은 우월한 주체적인 정권

- (8703)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우리 당 군중로선의 기본요구
- (87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정권건설 위업에 쌓아올리신 고귀한 업적
- (8705) 인민정권기관은 당의 3대혁명로선의 집행자
- (8709) 공화국정권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정권
- (8809) 공화국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속에서 쟁취한 혁명의 위대한 전취물
- (8809) 우리 공화국은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 있는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
- (8809) 공화국은 주체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기치
- (8909) 로동계급의 혁명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
- (9001)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개조를 다그치기 위한 근본요구
- (9108)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
- (9109)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우리나라 사회주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가자
- (9109) 우리의 정권은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

5. 법제

- (7301) 새 사회주의헌법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가장 선진적인 헌법
- (7309) 혁명과 건설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한 새 국가기관체계(사회주의헌법)
- (7712) 우리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혁명적인 대법전
- (7806) 로동문제해결의 길을 밝혀준 위대한 법전(「사회주의로동법」)

- (8212)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확고한 법적담보
- (8511) 사회주의법은 당정책관철을 위한 위력한 수단
- (8607) 환경보호법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구현한 혁명적법전

6. 사회주의건설

가. 일반론(사회주의혁명과 건설 독려)

- (6201) 계속 전진, 계속 혁신의 혁명적 사상
- (6218) 조선 인민의 당면한 전투적 과업
- (6218) 10월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자
- (6308) 백전 백승의 레닌의 기치
- (6522) 우리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 (6707)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을 받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혁명적고조를 일으키자
- (6711) 10월의 사상은 승리하고있다
- (6901) 사회주의의 기초가 건설된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 (6903) 김일성동지의 민주개혁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 (69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 (6908)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반드시 점령하여야 할 두 요새
- (6908) 수령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한 휘황한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 (7001) 우리 당 제5차대회를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로 맞아하자
- (7002)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위력한 무기

- (7003)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 (7004) 레닌의 기치는 영생불멸할것이다
- (7005)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문제를 창조적으로 밝힌 탁월한 맑스-레닌주의적로작(「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 (70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당과 인민의 력사적승리, 그 웅대한 혁명적강령(당 제5차대회에서의 보고)
- (7102) 프롤레타리아독재와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를 고수하자
- (7103) 빠리콤문의 위업은 영생불멸할것이다
- (7111)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를 총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승리의 길을 밝혀준 력사적문헌(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 (7202) 수령님의 두리에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 세우는것은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
- (7304)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한 우리나라 사회주의혁명
- (73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길을 새롭게 개척하시였다
- (7304) 민주주의혁명수행에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
- (7307) 공산주의건설의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자
- (7310) 투쟁없이 는 전진할수 없고 혁명없이 는 발전할수 없다
- (7312) 혁명의 길에서는 죽어도 영광이고 살아도 영광이다
- (7402) 주체사상에 기초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위력한 무기
- (7403)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과 당중앙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모든 힘을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총동원하자
- (740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완성하자
- (7409)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영원히 고수하고 빛내어나가자
- (7503)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3대혁명의 기치밑에 혁명기지를 정치, 경

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자

- (7511)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의 승리의 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강령(창당 30주년 경축연회에서의 연설)
- (7601)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올해 전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자
- (7606)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대오를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자
- (7609)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구현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철옹성같이 지키자
- (7701)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는것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본분
- (7701) 영광의 새해를 더욱 큰 승리로 빛내이자
- (7702)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혁명적신조이다
- (77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끊임없이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의 예술가이시다
- (7712) 혁명과업수행과정은 곧 혁명화과정이다
- (7801)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을 안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 (7810) 주체사상의 전면적승리의 길을 밝힌 위대한 강령(건국 30주년 기념 중앙경축대회에서의 보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 (7906) 혁명초소를 대를 이어 굳건히 지켜나가자
- (8006) 민족해방, 계급해방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
- (8009) 당의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로 빛나는 영광의 로정
- (8101)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당면과업
- (8102) 대담한 작전, 능숙한 지휘,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총진군운동을 다그쳐나가자
- (8110) <E, D>의 기치밑에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자(<E, D>결성 55주년)

- (8203)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불굴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 (8208)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은 혁명과 건설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근본원칙
- (8209) 높은 목표를 향하여 대담하게 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
- (8303)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칼 맑스 사망 100주년)
- (8307) 사회주의사회의 공산주의적성격과 과도적성격
- (8308) 사회주의하에서의 정치도덕적 자극과 물질적 자극의 옳은 결합
- (8308)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 점령은 공산주의 건설의 기본전략목표
- (8312) 우리 나라에서 통일전선운동의 역사적경험
- (8402) 공산주의자들의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성
- (8405)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더욱 다그쳐나가자
- (8405)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인 투쟁기풍
- (8503)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을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자
- (8504) 주체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에로의 진군길을 열어놓은 빛나는 업적 (「4월테제」 발표 30주년)
- (8506)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투쟁기풍
- (8511) 일군들은 장인한 투지와 패기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 (8512) 민주건설시기 대중전취를 위한 위대한 령도
- (8602) 주체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
- (8604) 사회주의사회 발전과 완성의 몇가지 문제
- (8606) 당과 혁명대오를 끊임없이 강화하는것은 혁명승리의 근본담보
- (8611) 당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은 당을 믿고 따르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
- (8701)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
- (8702) 당의 령도따라 주체위업을 완성해나가자

- (8702) 사회주의완전승리에 관한 과학적리론과 전략전술을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시정연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 (8703)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적요구
- (8705) 80년대의 역사적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품모
- (8705) 사회주의완전승리는 과도기의 전략적목표
- (8712) 수령, 당 대중은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
- (8712)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적 요인과 객관적 조건의 호상관계
- (8801)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 (8802) 주체위업을 실현하는 길에서 이룩된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인 통일단결
- (8802)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자
- (8803) 공화국창건 4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자
- (8805)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 (8806)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주체사상의 근본요구
- (8808) 주체의 기치밑에 영웅적 위훈으로 수놓아진 우리 인민의 자랑스런 역사
- (8809) 당과 공화국을 불패의 성새가 되어 받들어 나가는것은 우리 영웅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적 특질
- (8809) 당의 령도밑에 영웅적 위훈의 창조자로 자라나고있는 우리 인민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
- (8809) 주체의 기치밑에 승리와 영광의 한길을 걸어온 빛나는 40년
- (8811)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는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이 높이 들고 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
- (8812)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 입장을 확고히 고수하자
- (8909)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 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완성을 위한 필수적 요구
- (8911) 로동계급의 혁명적 입장과 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고수하기 위한 근본요구

- (8912) 1980년대를 빛내인 우리 당의 탁월한 령도
- (9001)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1990년대를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년대로 빛내이자
- (9001)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안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
- (9001) 사회주의리념은 반드시 승리한다
- (9002) 당의 위업에 끝까지 충실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
- (9003)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건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열쇠
- (9004) 천리마대고조의 역사를 창조한 불멸의 업적
- (9005) 높은 혁명성을 가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유한 투쟁기풍
- (9007)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 주체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 (9008)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주체혁명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 (9008) 새 사회 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준 강령적로작(「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발표 45주년)
- (9009)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근본문제
- (9010)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자
- (9011)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 (9012)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 (9012)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 (9012) 승리에 자만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질
- (9107)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
- (9107)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

(9108) 사회적소유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

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강조, 북한 국가사회제도 찬양

(6515)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적 우월성

(6808)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우리 인민의 가장 위대한 혁명적 전취물

(7301)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위대한 선언

(7312)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이자

(7812)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참다운 민주주의

(8309)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

(8501) 근로인민대중의 운명과 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

(8512)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의 자유와 행복을 확고히 담보하는 근본원천

(8601) 사회주의제도에서 사는 우리 인민의 긍지와 자부심

(8609)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깊이 인식시키자

(8706) 로동당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8710)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우월성에 대한 주체적 견해

(8711)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과학적 견해

(8809)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전면적으로 마련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우리의 국가사회제도

(8901)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그 승리의 필연성

(89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불패의 생활력을 지닌 가장 선진적인 사회제도

(8907) 인민대중이 자주적인 정치생활을 누리는데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우월성

(9009)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 (9009)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보람차고 행복한 사회주의생활
- (9012) 우리 인민이 지닌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의 원천
- (9107)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 (9107) 우리 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
- (9110) 사회주의정치는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민주주의정치

다. 전 사회의 혁명화·노동계급화

- (6906) 사회주의하에서의 계급투쟁
- (6911) 노동계급의 혁명화
- (6912) 전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는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중요임무
- (7008) 혁명적대고조와 노동계급의 혁명화
- (7008)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것은 우리 혁명 승리의 튼튼한 담보
- (7010)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화와 혁명적세계관확립
- (7109) 온 사회의 혁명화와 혁명적조직생활
- (7210) 노동계급의 혁명화를 더욱 다그쳐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힘있게 밀고나가자
- (8011)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하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중요한 요구
- (8012) 노동계급의 혁명화는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의 선차적요구
- (8211)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적적요구
- (8702) 사람과 사회관계를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무계급사회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기본문제
- (8706) 계급폐절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

(8708) 농민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와 집단주의교양

라.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대중의 정신·심리·태도(혁명적 낙관주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조국애, 향토애 등)

(6306) 공산주의자와 혁명적 낙관주의

(7211) 혁명적의지를 키우는것은 혁명화의 중요한 요구

(7306)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

(7306)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는것은 주체사상의 근본요구

(7308)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것은 사회정치적생명이다

(7608) 혁명하는 사람들답게 언제나 혁명적으로 생활해나가자

(7609)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혁명과 건설을 떠미는 위력한 추동력

(7611) 혁명적낙관주의는 혁명하는 사람의 고유한 품모

(7706)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7708)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참다운 애국주의

(7711) 정치적 생명은 혁명가의 영원한 생명이다

(7908) 혁명적신념과 혁명적낙관주의는 공산주의자의 사상정신적품모

(7909) 사회주의조국애 대한 사랑은 우리 인민이 지닌 숭고한 사상정신적품모

(8001) 혁명적의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정신도덕적품성

(8007) 집단주의는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상한 사상정신적품모

(8104) 영광스러운 주체위업의 길에서 높이 발양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8106)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품모

(8304)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혁명적신념

(8304) 조국애의 사상정신적원천

- (8306) 학습과 조직생활, 혁명적실천은 주체의 혁명관 확립을 위한 근본방도
- (8403) 혁명적세계관확립과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
- (8404)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우리 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
- (8408) 당의 사상과 이론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 (8410) 집단주의와 개성문제
- (8501) 참다운 애국자의 숭고한 품모를 지니자
- (8504)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립장과 반제투쟁정신
- (8505) 혁명적세계관은 참다운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
- (8507) 미래를 확신하고 투쟁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중요한 사상정신적품모
- (8511) 사회주의적애국주의는 공산주의혁명가의 고상한 품모
- (8512) 혁명적세계관확립과 당성단련
- (8608) 새것을 지향하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중요품모
- (8610) 공동로동에서의 주인다운 태도는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고유한 품모
- (8703) 집단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의 활동방식
- (8707) 혁명적동지애는 통일단결의 중요한 기초
- (8711) 혁명가의 한생은 투쟁속에서 빛난다
- (8801) 사회주의애국주의와 향토애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정신적 특질
- (8803) 승리의 신심과 혁명적 락관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고결한 혁명정신
- (8807) 혁명적 락관주의는 간고하고 준엄한 혁명의 길을 승리적으로 헤쳐 온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혁명정신
- (8807) 높은 혁명성과 전투력을 가지는것은 로동계급의 본성적 요구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 담보
- (8812)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의 주인으로서 지녀야 할 혁명에 대한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
- (8901) 승리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자

- (8904) 집단주의적 인생관은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인생관
- (8907) 동지애에 기초한 혁명적 의리의 원리는 사회주의사회의 고유한 도덕적 원리
- (9001)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는것은 자주적 인간의 보람찬 삶
- (9002)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자
- (9003) 주체의 로동관은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이 지녀야 할 중요한 품성
- (9008)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
- (9108)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는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
- (9111) 진정한 민족주의는 애국주의의 발현
- (9111) 집단을 위하여 사는것은 사회적인간의 가장 보람찬 생활

마. 사회주의건설에 필요한 대중운동

- (6314) 문제는 인민 대중을 동원하는 데 있다
- (6519) 천리마 운동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지의 구현
- (6710) 사회주의건설의 혁명적고조와 천리마작업반운동
- (7004) <강선속도>, <청산리사람들의 일솜씨>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적앙양
- (7105)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다그치는 대중적운동
- (7404) <속도전>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는 투쟁의 기치
- (7408)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 (7602) 속도전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는 전투적인 사업전개원칙
- (7802) 속도전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틀어쥔 위력한 무기
- (8001)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새로운 형태의 공산주의

적대중운동

- (8002)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단계에서 발생한 공산주의적 대중운동
- (8008)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 (8210) 대중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추동력
- (8302)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운동은 우리 당의 대중운동방침의 빛나는 구현
- (8410)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울데 대한 우리 당 방침의 불패의 생활력
- (8604)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 (8608)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을 심화시키기 위한 당위원의 사업
- (8610) 시범단위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
- (8611) 조국 건설을 힘있게 추동한 대중운동(「건국사상총동원운동」 개시 40주년)
- (8612) 천리마운동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빛내이자(「천리마운동」 개시 30주년)
- (8612) 숨은 공로자들은 우리 시대의 참다운 애국자들이다
- (8711) 한 단위에서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는데서 얻은 몇가지 경험

7. 3대혁명(3대혁명소조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 (6522)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 간의 차이 극복과 기술, 문화, 사상혁명
- (7008)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심화발전시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더욱 촉진하자
- (7303) 사상, 기술, 문화혁명의 가치를 높이 추켜들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 (73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
- (7401)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6개년계획을 앞당겨끝내자

- (75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높으신 3대혁명로선은 주체의 혁명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불멸의 기치
- (7505) 3대혁명소조운동은 우리 당의 균중로선을 구현한 위대한 혁명운동
- (7511)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수행해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때까지의 계속혁명의 과업
- (760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기하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 (7603)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전진하자
- (7604) 3대혁명소조운동은 3대혁명에 대한 당의 혁명적령도를 실현하는 위대한 운동
- (7604)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새로운 대중적운동
- (7606)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새로운 높은 단계로의 심화발전
- (7608) 당의 정치적지도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승리의 확고한 담보
- (7701) 3대혁명소조원들은 당의 로선 관철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의 전위투사들이다
- (7802) 3대혁명소조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는 위력한 추동력
- (7803) 3대혁명로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방침
- (7811) 3대혁명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역사적과업
- (7902)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중운동
- (7904)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현시기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
- (7908) 3대혁명소조운동은 새로운 형식의 혁명지도방법
- (8011) 3대혁명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
- (8101) 3대혁명은 로동계급의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전략적과업
- (8105)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 (8205) 3대혁명소조운동은 위력한 혁명지도방법
- (8207)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방도
- (8208) 3대혁명과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
- (8302)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총로선
- (8302) 3대혁명소조운동은 불패의 위력과 생활력을 가진 위대한 혁명지도방법
- (8405)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성격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 (8407)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심화시키자
- (8411)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대한 군당 위원회의 지도
- (8503) 당의 령도따라 3대혁명로선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
- (86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로선
- (8611)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 (8702)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전인민적대중운동
- (8703)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대중적 사상개조운동
- (8705)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 (8709) 3대혁명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는 혁명방식
- (8801) 3대혁명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의 기본전략선로선
- (8908) 3대혁명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9003)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
- (9111)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

8. 혁명전통(혁명전통계승 강조, 항일무장투쟁 찬양, 항일무장투쟁 시기의 역사적 사건과 그 의의 해설)

- (6205) 영광스러운 항일 유격대 창건 30주년
- (6208) 조국 광복의 해'불을 높이 추켜 든 보천보 전투 승리 25주년
- (6309) 전 인민을 무장시킬 데 대한 김일성동지의 방침과 동만 유격 근거지에서의 그의 구현
- (6312)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발휘된 자력 개생의 혁명 정신
- (6703)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공산주의자들의 군중전취사업
- (6704)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더욱 빛내이자
- (6704)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 인민무력건설의 전통
- (6705) 보천보전투승리 30주년
- (6708) 항일유격대원들의 불요불굴의 투쟁정신
- (6709) 유격근거지-해방지구 보위를 위한 투쟁
- (6711) 항일유격대내에서의 정치교양사업
- (6712) 항일유격대원들의 고상한 혁명적동지에
- (6808)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인민혁명정부로선과 유격근거지에서의 그 빛나는 구현
- (6808)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자력개생의 혁명정신
- (6901)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군중규율
- (6903)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사업방법
- (6904) 혁명근거지창설과 그 빛나는 업적
- (6905) 김일성동지의 직접적지휘하에 조직진행된 무산지구전투
- (6907) 항일무장투쟁시기에 항일유격대원들이 발휘한 혁명가적기풍
- (6908)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인민교육의 빛나는 전통

- (6911) 항일무장투쟁시기 김일성동지에 의한 혁명적골간의 육성
- (6912) 항일무장투쟁시기 두만강연안에 창설된 혁명근거지에서의 인민들의 혁명화
- (7001) 항일유격대내에서의 혁명적학습기풍
- (7002)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
- (7003) 항일무장투쟁시기 발양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 (7004)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의 역사적뿌리인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시다
- (7005)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그 빛나는 실현
- (7008)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해방과 항일무장투쟁의 중국적승리를 위한 전략적방침과 그 빛나는 실현
- (7101)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
- (710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역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과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
- (7103)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반제공동전선의 빛나는 전통
- (710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조국광복회와 그 불멸의 업적
- (7106)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가정혁명의 빛나는 전통
- (710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신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
- (7111) 조선공산주의운동의 강령적문헌, 반제반봉건 민주주의혁명의 위대한 기치(「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발표 34주년)
- (7111) 항일무장투쟁의 승리의 길을 밝혀준 역사적인 회의(명월구회의)
- (7203)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항일유격대의 창건
- (72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시다
- (7205) 불멸의 혁명적기치-조국광복회10대강령

- (7207)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대중전취사업
- (7210)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사회주의적애국주의의 빛나는 전통
- (730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국내에로의 진출과 역사적인 왕재산회의
- (7304)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사상에 의하여 령도된 영광스러운 혁명전쟁
- (7305) 항일무장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 대오안에서의 혁명적생활기풍
- (7306) 항일혁명투쟁시기 사람과의 사업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
- (7308)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의 빛나는 모범
- (7401) 항일혁명투쟁시기 이룩된 이신작칙의 빛나는 모범
- (7503) 항일유격대의 정치선동
- (7505)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수해나가자
- (7507) 조선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역사적전환의 새 시기를 열어놓은 회의 (카룬회의)
- (7601) 항일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된 위대한 혁명투쟁
- (7602) 주체의 기치밑에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양상으로 이끈 위대한 강령(「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발표 40주년)
- (7603)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킨 위대한 해불-왕재산회의
- (7605) 반일의 기치밑에 민족대단결을 빛나게 실현한 조국광복회
- (7607)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근거지-해방지구보위를 위한 영웅적 투쟁
- (7609)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
- (7612) 무장투쟁의 봉화를 높이 추켜든 역사적인 명월구회의
- (7701) 항일무장투쟁시기 높이 발현된 혁명적당생활기풍
- (7702)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
- (7703)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든 조선국민회
- (77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불

멸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전설적영웅이시다

- (7706)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준 역사적인 보천보전투
- (7708)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조선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결성 50주년)
- (7709)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 (7711) 주체의 기치밑에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관한 전략전술을 밝혀준 위대한 강령(「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발표 40주년)
- (7803) 주체의 해불로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준 역사적인 회의(「왕재산회의」 45주년)
- (7806) 항일유격대원들속에서 높이 발양된 자력갱생의 숭고한 혁명정신
- (7808) 주체의 기치밑에 조국광복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조선혁명가들은 조선을 잘 알아야 한다」 발표 35주년)
- (7812) 혁명적조직관념은 항일유격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적품도
- (7901) <고난의 행군>에서 높이 발휘된 항일유격대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
- (7905)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계속 양양으로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전투(「무산지구전투」 승리 40주년)
- (7908)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항일혁명대오의 불패의 통일단결
- (7911)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근본담보
- (8003)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민족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경험
- (8003) 온 사회에 항일유격대식 사업기풍과 생활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우자
- (8006) 항일의 기치밑에 전민족을 굳게 결속시킨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 (8006)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준 역사적인 카륜회의
- (8006)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한 참다운 혁명전위
- (8006) 무장투쟁로선은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킨 혁명적기치
- (8012)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8102) 주체의 혁명전통을 만대에 빛내어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
- (8103) 우리 당의 혁명전통은 주체의 혁명전통
- (8104)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귀중한 재부
- (8105) 항일의 기치밑에 민족대단결의 넓은 길을 열어놓은 역사적인 사변(「조국광복회」 창립 45주년)
- (8107)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설된 유격근거지와 그 빛나는 업적
- (8108) 우리 혁명의 심화발전과 혁명전통의 발전풍부화
- (8110) <E, D>에서 자라난 청년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적수령관
- (8110) 조선혁명의 새로운 진군길을 개척한 불멸의 업적(<E, D>결성 55주년)
- (8110) 조선혁명의 불멸의 기치-<E, D>의 위대한 강령
- (8112)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의 시초를 열어놓은 역사적인 사변(「명월구회의」 50주년)
- (8201)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대중정치사업
- (8204)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영원한 재부
- (8206) 조국광복의 서광을 비쳐준 불멸의 업적(「보천보전투」 45주년)
- (8208)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전통(「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 결성 55주년)
- (8303) 역사적인 왕재산회의와 항일무장투쟁의 국내에로의 확대발전
- (8305) 항일혁명투쟁시기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의 빛나는 실현
- (8310)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당조직건설의 빛나는 전통
- (8311) 항일유격대식학습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학습방법
- (8403)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
- (8405) 탁월한 전략전술의 위력을 과시한 역사적인 전투(「무산지구전투」 승리 45주년)
- (8406)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빛나는 전통

- (8410) 항일혁명투쟁시기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 결성의 역사적의의
- (8412)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조직관념과 자각적인 당생활기풍
- (8501)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발휘된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
- (8502) 항일의 혁명전통을 심화발전시킨 우리 당의 업적
- (8504)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룩된 당생활지도경험
- (8505) 조국광복회는 당적령도가 보장된 통일 전선조직
- (8506) 주체의 혁명로선을 선포한 역사적회의(「카륜회의」 55주년)
- (8509)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정권건설경험
- (8511) 항일혁명투쟁시기의 농촌혁명화경험
- (8512)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생활기풍
- (8601) 항일의 혁명전통은 우리 혁명승리의 만년초석
- (8603) 항일혁명투쟁시기 군중전취를 위한 투쟁
- (8605)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민족적단결의 전통을 빛나게 구현하여나
가자(「조국광복회」 창건 50주년)
- (8610) <트.디>는 주체혁명위업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전위조직
- (8610) <트.디>의 결성은 조선혁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역사적사변
- (8612)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수행과 혁명전통 계승문제
- (8701)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숭고한 애국정신
- (8703) 민족자주적인 애국력량의 단합에 이바지한 조선국민회(「조선국민
회」 결성 70주년)
- (8706) 백두의 혁명정신을 계승하고 빛나게 구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숭
고한 의무
- (8706)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신심을 안겨준 역사적인 국내 진공작전
(「보천보전투」 승리 50주년)
- (8706) 항일유격대오안에서 높이 발휘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
- (8708)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조선공산주의청년동
맹」 결성 60주년)

- (8709) 항일혁명선열들의 혁명적 수령관
- (8710) 혁명전통은 혁명의 주체가 그 역사적 뿌리에서 자라나고 강화발전 되는 과정에서 쟁취한 고귀한 혁명적 재부
- (8803)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일대 양양을 가져오게 한 역사적인 왕 재산회의
- (8805) 항일유격대원들이 지녔던 혁명적인 조직관념
- (8807) 수령, 당, 대중의 혈연적 통일의 빛나는 전통
- (8811) 백두산밀영일대에서 새로 발굴된 사적물들은 항일의 혁명전통을 빛 내이는 귀중한 재부
- (8812) 혁명전통을 일관하게 계승하는것은 주체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적 의지
- (8901) 항일혁명투쟁시기 혁명의 주체를 튼튼히 세우는데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
- (8903) 준엄한 투쟁속에서 체득한 항일혁명투사들의 신념화된 주체의 혁명관
- (8904) 주체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전통을 마련한 불멸의 업적
- (8905) 항일혁명투쟁에 대한 당적 령도를 보장하는데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결성 55주년)
- (8905)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준 역사적인 국내진공작전(「무산지구전투」 승리 50주년)
- (8906) 북부조선일대를 믿음직한 혁명기지로 튼튼히 꾸리고 조선혁명을 계속 양양으로 이끌어올린 역사적 회의(「국사봉회의」 50주년)
- (8908) 항일혁명투쟁의 위대한 승리는 불멸의 주체사상과 탁월한 령도예술의 빛나는 결실
- (8909) 항일혁명투쟁의 역사를 찬연히 빛내이는 혁명적 구호문헌
- (8910) 대부대선회작전으로 항일무장투쟁을 계속 즐기치게 발전시킨 역사적인 회의(「량강구군정간부회의」 50주년)
- (8910)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옹호고수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 (8911)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니었던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락관주의
- (8911)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집단주의의 빛나는 전통

- (8912)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공산주의적 핵심육성경험
- (9001) 혁명전통은 수령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된 고귀한 혁명적재부
- (9003) 조선혁명의 주체를 확립하는데서 획기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역사적인 회의(「요영구군정간부회의」 55주년)
- (9004) 혁명적구호문헌에 반영된 항일혁명투사들의 혁명적수령관
- (9005)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조국을 끝없이 빛내여주는 귀중한 혁명적재부
- (9006)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선포한 역사적회의(「카륜회의」 60주년)
- (9007) 새로 발굴된 혁명적구호문헌은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
- (9008) 조국의 해방은 민족의 자주권을 위한 영웅적 투쟁의 빛나는 승리
- (9011)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민족통일전선운동의 고귀한 전통과 그 빛나는 계승발전
- (9012)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역사적회의(「오가자회의」 80주년)
- (9107)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의 역사적원천
- (9108) 항일혁명투쟁시기 당적령도실현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
- (9109) 백두산근거지창설과 그 역사적의의
- (9110) 조선혁명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ㄷ, ㄷ>의 빛나는 업적
- (9111)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사람과의 사업의 빛나는 전통
- (9112) 항일무장투쟁의 개시를 선포한 역사적인 명월구회의

9. 사상교양(공산주의교양, 계급교양, 정치교양, 문화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 사상투쟁 강조,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육성)

- (6204) 공산주의 교양의 역사적 과업은 성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 (6206) 계급 의식 제고는 공산주의 교양의 기본이다.
- (6207) 대중 속에서의 문화교양

- (6208) 집단주의 정신의 배양은 공산주의 교양의 중요 내용
- (6216) 부르쥬아 사상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하자
- (6219) 대중 정치 교양에서의 5호 담당제
- (6220) 당 사상 교양 사업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 (6307) 우리 혁명의 현 단계와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
- (6307) 현 시기 청소년 학생들 속에서의 계급 교양
- (6308) 계급 교양의 강화는 혁명 진지를 공고화하는 중요 담보
- (6309) 청소년들 속에서의 도덕 교양
- (6309) 공산주의 도덕 교양
- (6311)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
- (6312) 공산주의 도덕의 기본 원칙으로서의 집단주의
- (6422)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력사 교양
- (6517)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향토애
- (6517) 나라의 살림살이와 근로자들에 대한 계급 교양
- (6523) 농업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 교양 사업을 강화하자
- (6705) 로동계급의 혁명임무와 공산주의도덕
- (6706) 근로자들 속에서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
- (6706) 혁명전통교양을 더욱 강력히 진행하자
- (6708)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당정책교양을 강화하자
- (6808) 혁명적략관주의
- (6808) 사회주의적애국주의
- (6901)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근로자들을 교양하는것은 공산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 (6901) 혁명적세계관확립과 당정책교양
- (6902) 청산리방법은 균증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교양방법

- (6904)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에 대한 자부심,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것이다
- (6905)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사상혁명
- (6907) 농민혁명화와 집단주의교양
- (6911) 혁명전통교양은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 힘있는 수단
- (7002)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하여
- (7004) 계급교양사업의 옳은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당원들속에서 계급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 (7009)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화하는것은 우리 혁명 발전의 절실한 요구
- (7111) 근로자들속에서의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
- (7203) 계급교양은 공산주의교양의 기본
- (7307)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
- (7310)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당정책관철의 기본
- (7310)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실>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 (7312) 긍정교양은 사회주의하에서 군중교양의 기본방법
- (7401) 혁명적세계관확립과 혁명전통교양
- (7405) <사상전>은 사상분야에서의 전격전, 집중공세, 섬멸전
- (7405)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
- (7410) 혁명전통교양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
- (7505)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통한 대중교양
- (7507) 근로자들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자
- (7512)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다
- (7607)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여야 혁명을 계속해나갈수 있다

- (7703)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의 원리로 튼튼히 무장시키자
- (7703)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 (7709) 긍정교양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위력한 군중교양방법
- (7804)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인간개조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
- (7805) 주체사상교양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 (7806) 사람들의 사상이 발동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 (7808)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교양
- (7811) 우리 혁명의 심화발전과 근로자들속에서의 계급교양사업
- (7903) 혁명사적지와 근로자들속에서의 혁명전통교양
- (7910) 사상혁명은 인간개조사업이며 정치사업
- (7912) 긍정감화교양은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위력한 대중교양방법
- (8002)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공산주의적사상개조운동
- (8003) 로동계급적관점과 혁명교양, 계급교양
- (8004)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 공산주의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
- (8007) 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은 사상혁명의 기본
- (8008) 우리 혁명의 심화발전과 공산주의도덕교양
- (8101)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긍정감화 교양방침을 구현한 대중적사상개조운동
- (8103)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그 위대한 생활력
- (8103) 우리 당이 제시한 사상전은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의 위력한 무기
- (8105)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은 당사상교양사업의 기본임무
- (8107) 공산주의적인간개조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고귀한 경험
- (8107) 주체사상교양은 혁명적세계관확립의 중요한 요구

- (8109)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
- (8109) 혁명사적지를 통한 혁명전통교양
- (8201)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실천의 밀접한 결합
- (8202) 유일사상교양을 심화시켜나가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방침
- (8210) 주체의 혁명관을 세우는것은 사상개조의 기본
- (8211) 사상개조의 선행은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필수적요구
- (8212) 혁명전통교양은 당의 통일단결의 위력한 수단
- (8302) 사상혁명에 인간개조를 위한 숭고한 역사적과업
- (83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인간개조 리론과 불패의 생활력
- (8306)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깊이있게 진행하자
- (8306)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주체사상의 지도적원칙
- (8311) 혁명적정서교양과 공산주의적인간육성사업
- (8311) 공산주의적인간개조의 역사를 빛내인 위대한 령도
- (8312) 혁명전통교양은 사람들을 혁명화하기 위한 위력한 수단
- (8402) 당사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령도
- (8402)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을 위한 우리 당 사상교양사업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
- (8403) 농촌사상혁명수행을 위한 군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 (8407)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문화정서적소양
- (8411) 혁명사적지를 통한 충실성교양
- (8501) 계급교양과 혁명적세계관확립
- (8502) 주체사상교양을 심화시킨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
- (8503) 사상의식에서 기본은 계급의식
- (8506) 비판과 자체수양
- (8509) 설복과 교양은 당사업의 기본방법

- (8601) 혁명교양, 계급교양은 근로자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중요방도
- (8601) 인간개조는 사회발전에서 기본
- (8602) 주체형의 혁명가의 고상한 품모와 공산주의도덕교양
- (8602)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발동하는것은 당사상사업의 기본
- (8605) 혁명전통교양은 유일사상교양의 중요내용
- (8608) 주체사상교양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자
- (8609) 주체사상교양을 구체적인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자
- (8611) 혁명전통교양은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
- (8701) 주체사상교양은 공산주의적인간 육성의 위력한 수단
- (8703)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근로자들속에서 로동계급적립장을 확고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 (8707) 사람은 알아야 자주적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수 있다
- (8708) 주체사상학습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하자
- (8708) 혁명전통교양과 혁명실천의 밀접한 결합
- (8709) 사상의식을 높여 모든것을 풀어나가는것은 공산주의자의 본성적 방법
- (8710)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의식을 높이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사업경험
- (8711)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적 수령관의 확립
- (8711)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관한 주체적 리론
- (8711) 새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심화발전하는 우리 혁명의 중요한 요구
- (8711)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자
- (8712) 혁명적 수령관을 확고히 세우는것은 청년교양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
- (8801) 혁명과업수행에 모를 박고 당사상사업을 심화시킨 구역당위원회의 경험
- (8801) 주체사상의 기본원리에 기초한 혁명전통교양

- (8802) 인간개조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
- (8803) 혁명적 학습기풍은 우리 인민의 사회적 풍조
- (8810) 계급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주체사상교양의 중요한 형태
- (8811)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공산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자
- (8811) 당정책교양을 틀어쥐고 사상혁명을 일관하게 벌려나가는것은 당조직들의 기본임무
- (8812) 인간개조사업은 력사의 주체를 강화하기 위한 창조적 사업
- (8902)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기치밑에 당사상사업에서 이룩된 근본적인 전환
- (8905) 사회주의에국주의교양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상교양사업
- (8909) 당사상사업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되어야 한다
- (8909)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은 공산주의교양의 중요과업
- (8911) 주체사상교양은 사상사업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과업
- (8911) 청년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은 혁명의 대를 굳건히 이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
- (8912)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자
- (9002) 계급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로동계급적 관점과 입장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 (9005) 정치사상사업을 틀어쥐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
- (9006) 사상사업의 결과는 혁명실천에서 나타나야 한다
- (9008) 혁명전통교양은 당사상사업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과업
- (9009) 혁명적구호문헌을 통한 혁명전통교양
- (9011)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은 공산주의 사회의 주체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
- (9110) 리론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당사상 사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과업

- (9112)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를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구
- (9112)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온 사회의 사상적일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 (9112)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산 모범을 가지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교양하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

II. 경제

1. 사회주의경제건설 일반론

가. 경제목표·정책 달성 촉구

- (6201) 모든 힘을 다하여 여섯 개 고지를 점령하자
- (6204)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에 대하여
- (6212) 하반기 전투에서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 (6213) 창성 련석 회의와 그 의의
- (6213)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6개 고지 점령을 위한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자
- (6219) 사회주의 혁명과 자력 갱생
- (6219) 우리 나라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 (6306)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
- (6312) 자력 갱생과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
- (6601) 사회주의 건설과 나라 살림살이
- (6709)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 로선의 위대한 생활력

- (6808)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우리 당 경제건설의 기본로선
- (6901) 천리마진군을 다그쳐 7개년계획의 모든 중요고지들을 점령하자
- (6904) 김일성동지의 로작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문제들을 천재적으로 밝힌 탁월한 맑스-레닌주의 문헌
- (6905) 김일성동지의 천재적로작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령적지침
- (6907)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은 사회주의하에서 민족적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기본담보
- (6912) 사회주의 경제건설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중요임무
- (7003) 생산이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발전의 합법칙성
- (7006)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
- (7108)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부강한 새 사회 건설의 기초를 닦는 혁명적변혁
- (7205)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 웅대한 6개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자
- (7210)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계속 혁명적양양을 일으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자
- (7308)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위대한 로선
- (7309)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기초
- (7403)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발표 5주년)
- (7510)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 (7511)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
- (7603) 3대혁명의 전투적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자

- (7608)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승리적으로 진행된 력사적인 중요산업국유화
- (7802)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는것은 새 전망 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방도
- (7802) 자력갱생은 우리 인민이 견지하고 있는 전투적인 혁명정신
- (7804)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경제발전의 끊임없는 높은 속도에 관한 사상은 빛나게 구현되고있다
- (7806) 인민경제의 현대화, 과학화
- (7809) 자립적민족경제는 공화국의 끝없는 튼성과 번영의 확고한 물질적담보
- (7901)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해야 할 전략적방침
- (7910)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고귀한 경험
- (8004) 우리 나라에서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력사적경험
- (8012)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전략적로선
- (8102) 인민경제의 주체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건설의 선차적요구
- (8103)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
- (8104)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과 그 불패의 생활력
- (8105) 경제적자립은 자주성의 물질적기초
- (8106) 인민경제의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과업
- (8108) 중요산업국유화에서 이룩한 우리 당의 고귀한 경험
- (8110) 자립경제건설은 민족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물질적담보
- (82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경제건설사상의 빛나는 구현
- (8206) 사회주의경제건설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과업
- (8207) 사회주의적생산장성의 합법칙성
- (8208)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회의(「창성련석회

의」 20주년)

- (8212) 경제에서 자립은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물질적기초
- (8302)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으로 이끌어 나가는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
- (8303)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자
- (8308) 사회주의확대재생산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혁명적로선(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킴)
- (8308)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민족경제의 자립적체제의 확립(당 중앙위원회 제6차전원회의 30주년)
- (8308)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
- (8309) 자립적민족경제는 공화국정권의 불패의 위력을 담보하는 물질적기초
- (8311)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의 근본방도
- (8401) 사회주의경제건설의 5개전선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 (8404)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비약과 혁신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
- (8507)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
- (8507) 조국해방 40돐과 당창건 40돐을 맞으며 경제건설의 진군속도를 더욱 다그치자
- (850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고발전하여온 자립적민족경제
- (8510)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경제건설의 실천투쟁에서 높이 발양되어야 한다
- (8512) 채취공업과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틀어쥐고 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근본원칙
- (8602) 경제건설에서 당이 이룩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는것은 우리 일군들의 책임적인 사업
- (8608)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
- (8610)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건설

의 중요과업

- (8702)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과업
- (87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경제건설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 (8706) 우리 당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건설의 지도적지침
- (8803) 대건설행군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
- (8808)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를 공고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
- (8809) 200일전투의 기세로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자
- (8810) 사회주의대건설은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
- (8810)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우리 인민의 영웅적 기상을 더욱 힘있게 떨치자
- (8902) 대건설행군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령도
- (8903) 사회주의경제건설리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위대한 업적(「사회주의경제의 뗏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발표 20주년)
- (8911) 우리 나라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참다운 우월성
- (9008) 자력갱생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담보

나.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 강조

- (6205)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강화를 위하여
- (6205) 대안 전기 공장에 대한 지도 정신을 철저히 관철시키자
- (6208) 생산에 대한 지도는 곧 기술적 지도이다
- (6211) 당의 경제 정책 관철에서 지방 당 위원회 경제 부서들의 역할
- (6212) 당 정책 관철에서 혁명적 사업 기풍의 확립은 하반기 전투 승리의 중요 담보
- (6214) 인민 경제 지도에서 중심 고리를 틀어잡을 데 대하여

- (6215) 6개 고지 점령과 혁명가적 사업 기풍
- (6517) 사회주의 경제의 지도 관리와 균중 로선
- (6522) 사회주의 경제 관리 운영에 관한 지식으로 무장하자
- (6912) 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강령적문헌(「지도일군들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을 높이며 인민경제의 관리운영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발표 5주년)
- (7212) 사람과의 사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
- (7308) 당위원회의 집체적령도를 강화하는것은 행정경제사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담보
- (7601) 생산의 정상화와 일군들의 조직사업
- (7609)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 (7609) 당면과업과 전망과업을 옹계 결합시켜 풀어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본질적요구
- (7703)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자
- (7705) 경제조직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
- (7707)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정치적지도는 당적령도의 기본요구
- (7802) 생산지도를 잘하는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 (7806) 당사업의 성과는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 (7902) 정치적방법으로 경제사업을 보장하는것은 당적령도의 기본요구
- (7903) 기업적방법으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 (7909) 생산지휘는 경제일군들의 중요한 임무
- (8002) 당사업과 경제사업의 옹은 결합
- (8101)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새 전망과업 수행의 중요방도
- (8106)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공장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자

- (8107) 경제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 (8110)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 공장당위원회의 사업
- (8112)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는 대안체계의 근본요구
- (8202) 우리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
- (8205) 객관적경제법칙의 정확한 리용과 경제조직사업의 개선
- (8208) 지방경제건설과 군당위원회의 조직지도사업
- (8210) 당경제정책관철과 지도일군들의 책임성
- (8211)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중심고리를 빛나게 풀어나가는 위대한 령도
- (8306) 당경제정책관철과 군당위원회의 조직지도사업
- (8311) 생산정상화를 위한 당 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 (8401)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의 행정경제조직 사업과 당정치사업
- (8402) 당사업과 경제사업을 밀접히 결합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성과를 위한 확고한 담보
- (8403)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의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의 옳은 배합
- (8408) 당사업의 성과는 경제사업의 성과에서 나타나야 한다
- (8409) 경제사업에 대한 일군들의 지도수준을 더욱 높이자
- (8410)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근로자들의 자각성과 통제의 옳은 결합
- (8510) 정치사업과 기술경제사업의 옳은 결합
- (8510)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향도적력량
- (8511) 키잡이는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실현의 기본방법
- (8511) 경제사업보장을 위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 (8512) 경제지도일군들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더욱 높이자
- (8512) 생산의 끊임없는 앙양과 경제조직사업
- (8603) 자력갱생과 일군들의 창조적담구력
- (8605) 경제사업에 대한 지도와 당일군들의 지도작풍

- (8607) 경제지도사업과 일군들의 혁명적기풍
- (8610)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은 당위원회의 중요한 임무
- (8702) 당의 령도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
- (8706)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는것은 새전망계획 수행의 중요방도
- (8805) 경제사업을 당적, 정치적 방법으로 지도하기 위한 구역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 (8806) 당경제정책선전과 경제선동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임무
- (8807) 생산 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의 기본임무
- (8812) 우리 당이 사회주의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원칙
- (8903)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
- (8906) 정치적 지도와 경제기술적 지도를 옹계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의 중요원칙
- (8906) 당의 경제정책 관철을 위한 장악지도사업
- (8910) 정치적 방법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기본요구
- (9004) 경제조직 사업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
- (9007) 당일군들은 행정경제사업을 당적방법으로 밀어주어야 한다
- (9110) 높은 경제건설성으로 당의 위업을 받들어 나가는것은 경제지도일군들의 혁명적본분

다. 국가규모의 경제관리 철저, 그 방법론

- (6317)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경제 관리 체계
- (6523)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균형
- (6701) 대규모기업소와 중소규모기업소의 배합
- (6706) 대안체계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경제관리체계

- (6711)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대안의 사업체계의 위대한 생활력
- (7001) 협동생산의 정확한 보장은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필수적요구
- (7007) 대안체계의 위력을 발휘시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 (7408)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잘 관철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야 한다
- (7611) 경제적공간을 옹계 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를 더욱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
- (7612)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적인 경제관리체제는 사회주의건설의 위력한 무기
- (7703)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와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중요요구
- (7711) 대안의 사업체계는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옹계 결합시키는 주체의 경제관리체제
- (7803)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의 경제관리리론은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의 가장 정확한 지도적지침
- (7807)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과업
- (7903)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생산수단의 상품적 형태와 가치법칙의 리용문제
- (7909)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경제법칙의 올바른 리용
- (8112) 대안의 사업체계는 주체의 공산주의기업관리형태
- (8112) 대안의 사업체계와 경제관리의 과학화, 합리화
- (8112)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우월한 경제관리체제
- (8210)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속도문제
- (8305) 균중로선관철과 과학적인 경제관리
- (8309)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속도와 균형문제
- (8403) 경제관리의 합리화와 가치법칙의 올바른 리용
- (8412)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의 과학적인 방법론
- (8504) 경제관리에서 경제법칙의 리용문제

- (8602) 우리 나라 연합기업소는 사회주의 기업소조직의 새로운 형태
- (8605) 경제관리에서 국가의 중앙집권적지도와 기업소창발성의 옳은 결합
- (8607) 대안의 사업체계 관철과 연합기업소
- (8607) 협동생산규률의 강화와 인민경제의 계획적발전
- (8612)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
- (8708) 대안의 사업체계는 민주주의와 집체적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 우월한 경제관리체계
- (8710) 집단주의적 방법으로 경제를 관리운영하는것은 사회주의적 경리의 본성적 요구
- (8802) 연합기업소는 우리 식의 우월한 기업관리조직형태
- (8802) 나라의 재부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요구
- (88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경제관리체계는 인민대중중심의 경제관리체계
- (8806) 대안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대건설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
- (8811) 협동생산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
- (8812) 생산적 추적을 늘이는것은 사회주의적 확대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과업
- (8904)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는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담보
- (8907) 사회주의경제지도관리에서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와 매개 단위의 창발성의 옳은 결합
- (8909) 대안의 사업체계는 우리 당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
- (8910) 집단주의적 방법은 사회주의경제관리운영의 기본방법
- (9006)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속도와 균형 문제
- (9009) 제약제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원칙에 맞는 우월한 자재공급방법
- (9011)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적 원칙과 방법의 구현문제

- (9110) 인민대중을 경제관리의 실제적인 주인으로 되게 하는것은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기본원리
- (9110)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고르롭게 높이는 원칙에서 가격을 정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 (9111) 정치적방법은 우리 당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 경제관리의 가장 중요한 방법
- (9112)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사변(「대안의 사업체계」 창조 30주년)

라. 경영활동 개선(원가절감, 생산의 정상화, 제품의 질 개선, 자원 개발, 설비이용률 제고, 자재공급 원활 확보, 내부예비 동원 등)

- (6208) 자재 공급 사업은 가장 중요한 행정 조직 사업
- (6208) 설비 리용률 제고는 생산 장성의 중요 예비
- (6308) 대중적 기업 관리 방법으로서의 작업반 내부 채산제
- (6309) 공장, 기업소에서의 생산조직과 로동조직
- (6314) 공장 경영활동에서 량적 지표와 질적 지표
- (6516)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중요 방도
- (6521) 현물 평가제의 본질과 우월성
- (6524) 종업원 1인 당 생산액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문제
- (6705) 경제예비동원과 조직사업
- (6808) 경제예비동원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 (7003) 원가를 낮추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
- (7107)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필수적요구
- (7303) 사회주의경제운영에서 상품화폐관계의 경제적공간을 옹계 리용하자
- (7311)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옹계 실시하자
- (7507)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

원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 (7709) 원가를 낮추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과업
- (7712)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 (7803)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것은 새 전망계획 수행을 위한 중요한 방도
- (7807) 지방예비는 경제발전을 위한 거대한 잠재력
- (7808) 대안체계의 요구에 맞게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경제관리 개선의 중요담보
- (7901) 자연부원의 효과적인 개발리용은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위한 중요한 과업
- (7907) 기업관리의 정규화는 경제관리의 개선과 생산정상화의 중요한 고리
- (7909) 독립채산제와 기업관리의 합리화
- (7911)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항구적인 요인
- (7912) 대안체계와 자재공급사업
- (8007) 기업관리에서 경제적공간의 합리적리용
- (8106) 제품의 질제고와 가격공간의 리용
- (8107) 설비관리를 잘하는것은 사회주의적생산조직의 중요한 원칙
- (8107) 기업관리의 정규화, 규범화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경제제도의 본성적요구
- (8108) 우리나라 사회주의자재공급체계의 우월성
- (8207)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구현한 계획적인 관리운영방법
- (8209) 인민경제의 내부예비동원과 일군들의 창발성
- (8310) 생산의 정상화와 제품의 질제고
- (8403) 내부예비동원과 생산조직사업
- (8405) 생산정상화와 자재공급사업
- (8407) 독립채산제는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계획적 관리운영방법

- (8407) 기업관리에서 원가공간의 합리적리용
- (8409) 인민경제의 주체화와 원료자원의 효과적리용
- (8501)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자
- (8502) 경제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 (8505) 경제적공간과 그 합리적리용
- (8506) 생산잠재력의 효과적리용은 중요한 경제건설과업
- (8509) 경영활동에서 기업소의 책임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
- (8511)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와 기업관리의 합리화
- (8511) 경제적효과성은 경영활동평가의 중요한 기준
- (8511) 생산정상화와 생산능력의 완전한 리용
- (8512)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내부예비의 동원리용문제
- (8601) 생산정상화와 일군들의 책임성
- (8601) 경영활동의 과학화와 경제적타산
- (8701) 내부예비동원은 생산장성의 확고한 담보
- (8712) 자원개발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보람찬 사업
- (8805) 생산의 정상화는 대건설행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
- (8806) 내부예비의 동원리용과 사회주의대건설
- (8901)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끊임없는 양양과 생산의 정상화
- (8911)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선차적 요구
- (9004) 생산의 정상화와 원료, 연료, 동력의 합리적리용
- (9005) 행정경제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생산정상화의 중요담보
- (9005) 원가저하는 증산절약의 큰 예비
- (9006) 기업관리와 경제타산
- (9010) 련합기업소에서의 2중독립채산제

- (9011) 경영활동의 합리화와 경제적공간의 리용
 - (9012) 내부예비동원과 일군들의 창발성
 - (9108) 경제적으로효과성을 높이는것은 경제조직사업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
 - (9108)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는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재정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방도
 - (9109) 기업관리의 합리화와 경영활동에 대한 과학적분석
 - (9112) 대중적설비관리운동의 위대한 생활력
- 마. 경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제적 태도(절약·증산, 국가재산 낭비 방지 등)
- (6709)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절약제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 (6710) 나라의 살림살이와 사회주의애국주의
 - (6908)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자#
 - (7203) 나라살림살이와 절약투쟁
 - (7606) 나라살림살이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
 - (7609)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자
 - (7611)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자!> 이것은 생산과 건설에서 더 큰 비약을 이룩하기 위한 당의 전투적구호
 - (7706) 절약투쟁을 강화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는것은 혁명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품성
 - (8109) 나라살림살이와 절약투쟁
 - (8505) 절약투쟁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
 - (8708) 증산, 절약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방도
 - (8901)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새로운 200일전투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
 - (9002)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

요한 요구

- (9007) 사회주의재산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부
- (9009) 증산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 (9112)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투쟁기풍

바. 경제목표 달성에 필요한 대중운동

- (6317) 천리마 운동과 자력 갱생
- (6518) 경제 지도에서의 모범 창조
- (6703)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천리마작업반운동
- (7007)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를 높이는것은 생산력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결정적요인
- (7407) 경제선동은 사회주의대건설에로 대중을 힘차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
- (7411) <속도전>을 힘있게 벌려 올해 계획을 앞당겨 완수하고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리자
- (7611) 경제선동은 군중을 사회주의경제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대중정치사업방법
- (7612) 달리는 천리마에 박차를 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키자
- (7805) 달리는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더 큰 비약을 일으키자
- (7907)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여 경제를 움직이는 우월한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
- (8102) 속도전의 방침을 구현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
- (8105)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는 사회주의적생산발전의 결정적요인
- (8105) 경제선동은 대중을 당경제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정치사업
- (8209)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투쟁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

- (8211) 경제선동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위한 힘있는 정치사업
- (8303) <80년대속도>창조투쟁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힘있는 추동력
- (8311) <80년대속도>창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를 앞당겨실현하자
- (8410) 설비관리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대중적혁신운동('26호선반을 따라배우는 충성의 모범기대창조운동')
- (8507) 경제건설과 사회주의경쟁운동
- (8509)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벌리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 (8602)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발양된 속도전의 불패의 생활력
- (8603) 경제선동은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추동하는 힘있는 대중정치사업
- (8607) 아래에 내려가 대중을 발동하는데 당경제정책 관철의 중요한 열쇠가 있다
- (8609) 근로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한 당조직정치사업
- (8905) 2000일·2만일 전투의 기세로 사회주의대진군운동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자
- (9006) 내부예비는 대중의 심장속에 있다

사. 경제계획 해설, 경제계획 수립 및 통계의 중요성 강조

- (6212) 인민 경제 계획은 법이다
- (6302) 계획하에서 균중로선의 구현을 위한 제 원칙
- (6303)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에서의 속도와 균형
- (6312) 사회주의와 타산
- (6523) 사회주의 경제 관리 운영에서 통계의 역할
- (7006) 통계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필수적요구
- (7009)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가장 위력한 사회주의계획화방침
- (7012) 새로운 투쟁강령-인민경제발전 6개년계획

- (7103) 6개년계획과 경제발전의 높은 속도
- (7211) 3대기술혁명실현을 위한 전투적인 계획
- (7310)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과 인민경제발전
- (7412) 인민경제계획하의 중요요소들을 옳게 타산하는것은 계획화사업의 기본요구
- (7801)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는 제2차7개년계획 수행에서 특히 들어주고나가야 할 새로운 투쟁강령
- (7812) 인민경제계획사업과 생산의 중요요소들에 대한 과학적타산
- (7905) 지표별 계획실행과 인민경제의 균형적발전
- (8001) 생산의 정상화와 인민경제계획화사업
- (8008) 사회주의통계는 경제관리개선의 힘있는 수단
- (8009)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계획화방침
- (8011) 사회주의완전승리를 담보하는 웅대한 경제건설 10대전망목표
- (8406) 정확한 경제계산과 과학적인 경제관리
- (8411) 경제사업에서 타산을 잘 하여야 한다
- (8501) 생산정상화와 계획규률의 강화
- (8505) 계량계측제도와 경영활동의 합리화
- (8506) 경제건설에서 질적지표의 개선문제
- (8507) 균형의 정확한 보장은 인민경제계획화의 기본
- (8507) 과학성과 객관성은 사회주의통계의 본성적요구
- (8512) 경영활동의 개선과 경제계산의 현대화
- (8703) 제3차7개년계획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하기 위한 위대한 목표
- (8707) 제3차7개년계획수행을 위한 진군을 힘있게 다그치자
- (8711) 국가의 통일적인 계획적 지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원칙
- (8712) 새 전망계획 수행과 경제조직 사업의 개선

- (9009)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우리 식의 우월한 계획화 체계이며 방법
 (9012) 과학적인 경제계산은 경영활동의 합리화를 위한 중요방도

2. 농림수산업

가. 농업일반

- (6210) 알곡 500만톤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농촌 당 조직들의 당면과업
 (6213) 우리 나라 농업을 높은 과학 기술의 토대 위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
 (6602) 농업 과학과 농업 생산
 (6701) 농업생산과 과학기술적지도
 (6708) 과수업을 더욱 발전시키자
 (7105) 과수부문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를 공고발전시키자
 (7109)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는것은 농촌경리발전의 중심과업
 (7309) 농업전선에서의 자랑찬 승리, 빛나는 전망
 (7312) 수령님의 은덕으로 올해의 대풍이 마련되었다
 (7405)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는것은 농업전선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7411)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중간지대 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7412)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류레없는 대풍이 이룩되었다
 (7502)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알곡 800만톤 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7502)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휘황한 길을 따라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자
 (7605) 농업전선에 힘을 넣어 올해에 다시한번 알곡 800만톤고지를 점령하자
 (7611)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농법의 자랑찬 승리
 (7705)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농업전선에서 끊임없는 양

양을 일으키기 위한 확고한 담보

- (7803)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 교시를 높이 받들고 올해에 또다시 만풍년을 안아오자
- (7807)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농업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확고한 담보
- (7812) 주체농법관철과 군당위원회의 지도
- (7903)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계획화사업을 개선하는것은 농업생산장성의 중요한 예비
- (8107) 주체농법과 그 위대한 생활력
- (8201) 부침땅면적을 늘이는것은 농업생산발전의 중요한 요구
- (8404) 주체농법은 농업생산의 끊임없는 양양을 담보하는 과학농법
- (8503) 주체농법을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 (8604) 농사제일주의는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원칙
- (8703) 농사일을 주인다운 립장에서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일본세
- (8706)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자
- (8805)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농업생산장성의 확고한 담보
- (8812) 새로운 농업지도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
- (8901)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관건적 과업
- (8903)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며 주체농법을 관철하는것은 농업생산장성의 기본담보
- (9002) 농업전선에 힘을 넣어 농업생산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하자
- (9003) 다수확군쟁취운동은 농업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힘있는 추동력
- (9009) 농사를 집약화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예비

나. 사회주의농촌건설, 농촌문제 해결, 토지개혁

- (6201)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 농촌 건설을 위하여
- (6206) 농업 협동 조합 경영 위원회의 조직과 도 인민 위원회의 경제 조직 자적 역할
- (6206) 농업 협동 조합 경영 위원회의 기업적 지도 방법
- (6212) 농촌 핵심 진지의 강화를 위하여
- (6212) 농촌 경리에 대한 군 당 위원회의 지도
- (6215) 도시와 농촌 간의 본질적 차이를 없앨 데 대한 맑스-레닌주의
- (6220) 새로운 농업 지도 체계의 우월성과 생활력
- (6220) 농업 생산과 우연성
- (6301)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에 대한 군 당 위원회의 지도에서의 몇 가지 문제
- (6307) 군 협동 농장 경영 위원회의 창설과 로농 동맹의 가일층의 발전
- (6523) 농촌에 대한 로동 계급의 지원과 로농 동맹의 발전
- (6601) 농업 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게 관리 운영 수준을 제고하자
- (6711)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의 군의 역할
- (6802) 김일성동지의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위대한 구상과 그 빛나는 구현(「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발표 4주년)
- (6902)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
- (6904)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창성의 모범을 따라배우자
- (6905) 농촌진지강화는 혁명력량강화의 중요담보
- (6907) 사회주의하에서의 농민시장과 그것을 없애기 위한 방도에 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
- (6908) 사회주의농촌건설과 군당위원회의 지도
- (6911) 농촌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 (7006) 농촌에서의 사상혁명과 농민혁명화
- (7009)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 (7103) 토지문제해결의 빛나는 모범
- (7103) 프락또르운전수들의 역할을 높여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다그치자
- (720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농촌문제의 종국적해결의 길
- (7202)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는것은 3대기술혁명의 중요과업
- (7303)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 (7305)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당적지원을 강화하자
- (7402)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 (740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농촌문화혁명에 관한 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
- (7402)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의 위대한 승리(「농촌테제」 발표 10주년)
- (7402) 농촌사상혁명수행에서 이룩된 자랑찬 성과
- (7402) 위대한 테제의 빛발아래 농촌기술혁명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 (7411) 위대한 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아래 우리나라 농촌에서 이룩된 세기적변혁
- (7603) 근로농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토지개혁
- (7901)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
- (7907)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만드는것은 농촌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
- (8005)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는 농촌기술혁명의 중심과업
- (8008) 농촌의 모든 지역을 고르롭게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과 그 생활력
- (8103) 민주주의혁명시기 토지문제해결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

- (8108) 자립적인 농업생산토대는 인민생활향상의 중요한 물질적 담보
- (8111) 협동적소유를 전민소유로 넘기는것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중요한 조건
- (8112)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
- (8208)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지역적거점에 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사상과 위대한 생활력
- (8402)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위대한 강령(「농촌테제」 발표 20주년)
- (8402) 농촌테제의 빛발아래 이룩된 세기적변혁
- (8502)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농촌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 (8503) 분조관리제는 우월한 농업관리방법
- (8503) 농촌당사업에 대한 지도는 군당위원회의 중요임무
- (8504) 협동경리를 그 특성에 맞게 지도하여야 한다
- (8505)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는 사회주의농촌경리 발전의 기본요구
- (8505) 사회주의문화농촌건설을 위한 군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 (8507) 농촌당사업과 일군들의 수준 제고
- (8507) 농촌당사업의 기본은 농민과의 사업
- (8507) 농촌당사업은 농민의 특성에 맞게하여야 한다
- (8603)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심화발전과 군당위원회의 사업
- (8603) 농촌문제해결에서 혁명적전환의 길을 열어놓은 력사적인 토지개혁
- (8608) 기술혁명에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중요방도
- (8703)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키는것은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한 근본방도
- (8705) 농업의 공업화는 농촌기술혁명의 중요한 목표
- (8709) 농촌경리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는 농업생산장성의 중요담보
- (8711) 농촌경리의 종합적 기계화를 실현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절박한 과업

- (8801) 농촌테제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중요과업
- (8804) 농촌테제에서 제시된 4대기술혁명과업을 가까운 몇해안에 완성하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농촌의 수리화, 전기화, 기계화, 화학화)
- (8806) 사회주의사회에서 협동적 소유의 발전방향과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관리
- (8808) 농업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우에 올려 세우는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중요과업
- (8902) 농촌테제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는 위대한 강령
- (8908)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자
- (9001)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
- (9010) 집단주의에 기초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
- (9011)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는것은 농촌테제완성을 위한 중요방도
- (9012)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치는것은 농촌테제완성을 위한 중요한 투쟁과업
- (9107)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농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과업
- (9109) 농촌당사업에 대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다. 임업

- (6215) 인민 경제 발전에서 산의 종합적 리용이 가지는 의의
- (6422) 립산 공업에서의 새로운 혁신을 위하여

라. 수산업

- (6210) 수산물 고지 점령을 위한 당면 문제
- (6908)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 (7407) 수산전선은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전선
- (7701) 수산전선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선
- (8511) 기술장비의 현대화는 수산업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
- (8709) 수산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보람찬 사업
- (8807) 수산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경제건설과업
- (8912) 현시기 수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중심과업

마. 축산업

- (6423) 축산업의 전문화와 집약화
- (7005) 가금업부문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 (8409) 성과의 비결은 조직사업에 있다
- (8609) 당의 축산정책 관철에서 얻은 몇가지 경험

3. 광공업

가. 공업화 일반론(공업관리체계, 공업경영, 공업의 중요성 강조)

- (6201) 산업 부문에서 청산리 방법의 위대한 구현
- (6206) 공장 당 위원회의 지도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 (6207) 공업에 대한 도 당 위원회의 정치적 및 조직적 지도의 강화를 위하여
- (6220) 공업 관리에서의 대안체계
- (6301) 새 체계 하에서 1년 간의 사업을 통하여 얻은 몇 가지 경험
- (6301) 대안 체계와 새 인간의 형성
- (6602) 생산의 정상화는 사회주의 공업발전의 중요 예비
- (6608) 우리 나라에서 자립적민족공업의 건설을 위하여(중요산업국유화실

시 20주년)

- (6905) 사회주의공업화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중요한 물질적담보
- (6912)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공장당위원회의 사업
- (7012) 우리 당의 주체적공업화로선의 빛나는 승리, 사회주의공업국가에로의 력사적전변
- (711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적공업화로선의 빛나는 승리
- (72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우리나라를 자립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신 혁명의 영재이시다
- (7412) 연합기업소의 창설은 위대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획기적조치
- (7906) 부문구조를 완비하는것은 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과업
- (8001) 협동생산규률의 강화는 사회주의공업경영의 중요한 요구
- (8111) 공업생산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
- (8203) 새로운 공업지도체계는 가장 우월한 우리식의 공업지도체계
- (8406) 생산능력의 효과적리용은 사회주의 공업건설의 기본원칙
- (8705) 기간공업의 생산능력을 늘이는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
- (8803) 기간공업부문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확대강화하는것은 올해의 중요한 경제건설과업
- (9008) 1차, 2차 가공품생산을 앞세우는것은 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선결조건

나. 광업

- (6211) 생산 준비 선행은 석탄 고지 점령의 기본 고리
- (6301) 채취공업의 선행은 현 시기 인민 경제발전의 절실한 요구
- (6705) 채취공업을 앞세우기 위한 중심문제
- (6902) 석탄공업부문에서 계속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 (7107)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석탄생산에서 계속 양양을 일으키자
- (7307) 채취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6개년계획수행의 중요담보
- (7310) 6개년계획의 석탄고지를 앞당겨 점령하자
- (7403)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회주의대건설의 휘황한 진군로를 따라 공업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양양을 일으키자
- (750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채취공업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이룩하자
- (7607)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경제발전에서 하나의 법칙
- (7707) 채취공업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 석탄과 광물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자
- (7802) 채취공업을 앞세우는것은 연료, 원료, 동력문제의 성과적해결을 위한 기본열쇠
- (8402)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경제건설의 근본원칙
- (8501) 검덕, 무산, 안주, 해산 지구는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투쟁전선
- (8806)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 (9005) 이미 마련된 생산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
- (9108) 지질탐사작업은 인민경제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다그쳐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

다. 전력(열·에너지)공업

- (6906) 전력공업발전에서 더욱 큰 혁신을 일으키자
- (7207) 열관리사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자
- (7612) 전력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현시기 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
- (7711) 기름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 (8605) 전력공업은 인민경제의 선행관
- (8612) 중소규모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는것은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과업
- (8707) 현시기 연료, 동력 문제해결의 기본 방향과 방도
- (8804)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대건설행군에서 힘을 넣어야 할 투쟁과업
- (8807) 전력은 현대공업의 기본동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
- (8905)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생산과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
- (9001) 전력공업을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정책적요구
- (9003) 전력, 석탄, 철강재 생산을 늘이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고리

라. 금속공업

- (6211) 강철 120만톤 고지 점령을 위한 중심 과업
- (7211)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금속공업앞에 나선 전투적과업
- (8501) 대중발동과 일군들의 힘있는 조직정치사업(황해제철련합기업소 당 위원회의 사업경험)
- (8504) 금속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절실한 요구
- (8608) 금속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중요한 경제건설과업
- (8801) 철강재생산을 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마. 기계·전자공업

- (6305) 기계 제작 공업 부문에서 협동 생산을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 (6702)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기계공업에서 혁신을 일으키자
- (6903)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현시기 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

- (7710) 사회주의대전설의 요구에 맞게 기계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으로 발전시키자
- (8409) 통이 큰 작전과 대담한 공격정신
- (8509)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은 인민경제의 기술장비를 강화하기 위한 대중적혁신운동
- (8901)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 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 (8905) <1985년 6월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거대한 생활력
- (8908) 우리 당이 제시한 기계공업발전의 기본방향
- (9005) 전자, 자동화 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요구

바. 화학공업

- (6711) 현시기 인민경제의 화학화에서 제기되는 중심문제
- (7306) 화학공업의 획기적발전을 위한 전투적과업
- (8308) 인민생활향상과 화학공업의 발전
- (8707) 화학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 (9111) 화학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것은 현시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절실한 요구

사. 전재공업

- (6707) 전재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 (6905)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요구에 맞게 전재공업을 더욱 발전시키자

아. 경공업(방직공업·소비품공업)

- (6210) 직물 고지 점령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 (7303)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자
- (7806) 경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영예로운 파업

- (8404) 인민생활향상과 경공업발전
- (8412) 경공업혁명과 생산의 전문화
- (8503) 소비품생산을 균중적운동으로 별리는 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담보
- (8506)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일테 대한 당정책 관철에서 얻은 경험
- (8604) 경공업혁명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영예로운 사업
- (8701)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것은 경공업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
- (8902)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생활필수품 생산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자
- (8906) 인민소비품생산에 힘을 넣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 (8909) 현시기 경공업발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과업
- (8910) 지방의 생산잠재력을 적극 동원리용하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방도
- (9001) 균중적운동으로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 (9004) 이미 마련해놓은 경공업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확고한 담보

자. 지방공업(지방경영공업, 지방경제 활성화)

- (6215) 지방 공업의 확고한 토대 축성과 새로운 발전 단계
- (7004)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지방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자
- (7102) 지방공업의 보다 급속한 발전은 현시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절박한 요구
- (7210) 지방공업발전을 위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 (7708) 지방의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하여 인민소비품 생산을 더욱 늘이자
(「창성련석회의」 15주년)
- (8005) 지방공업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

- (8008) 지방공업발전과 일군들의 조직사업
- (8406)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구
- (8408) 지방원료기지를 꾸리는데서 얻은 몇가지 경험
- (8503) 군을 단위로 지방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
- (8509)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과 일군들의 창발성
- (8603) 군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을 위한 기본담보
- (8708)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자
- (9107) 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과 지도일군들의 창발성
- (9108) 군의 역할을 높여 지방경제를 발전시키는데서 얻은 몇가지 경험
- (9109) 지방의 생산잠재력을 적극 동원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
- (9110) 지방공업을 현대화하는것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

4. 과학기술(기술의 중요성, 기술혁신 강조, 기술인재 양성)

- (6204) 우리 나라에서의 기술 혁명
- (6205) 공장 기업소들에서의 기술 발전 계획
- (6211) 도처에서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다
- (6214) 기술 혁신은 짜고 들어 추진시켜야 한다
- (6303) 현 시기 기술 혁명의 촉진을 위한 몇가지 문제
- (6317)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의 방침
- (6518) 기업소에서의 기술 혁신에 대한 당'적 지도
- (6519) 기술 혁명 수행을 위한 우리 당의 령도
- (6702) 현시기 경제발전의 기본방향과 기술혁명

- (6703) 과학기술발전에서의 주체
- (7007) 농촌에서의 기술혁명
- (7008) 사회주의하에서 기술혁명수행의 옳은 길을 밝혀준 강령적지침(「기술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데 대하여」)
- (7101) 3대기술혁명의 구호를 높이 들고 6개년계획의 첫해전투를 승리적으로 벌리자
- (7103)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새 단계와 3대기술혁명과업
- (7105) 수령님께서 지피주신 새 기술 혁신의 봉화는 3대기술혁명의 힘있는 추동력
- (7207) 녀성들을 부업과 가정일의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기술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자
- (7212) 3대기술혁명로선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
- (7303)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3대기술혁명수행의 중요담보
- (7410) 기술혁명은 낡은것과의 투쟁속에서만 전진한다
- (7507)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을 힘든 일에서 해방하는 혁명
- (7512) 3대기술혁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 건설의 전략적과업
- (7608) 전면적자동화의 빛나는 본보기
- (7708) 우리 혁명의 새로운 높은 단계와 과학기술의 발전
- (7806) 인테리들은 당의 높은 신임에 과학기술의 성과로 보답하여야 한다
- (7811)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는데 커다란 예비가 있다
- (7812)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숭고한 정치적과업
- (7910) 기술개조에서의 주체적립장과 인민경제의 현대화
- (7912) 기술혁명과 대중적기술혁신운동
- (8002) 숨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는 운동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위력한 기술개조운동
- (8003) 기술혁명은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

- (8201) 우리나라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기술개조사업
- (8212) 당의 령도밑에 급속히 발전한 주체적인 과학기술(「과학원」 창립 30주년)
- (8301) 기술혁신은 <80년대속도>창조를 위한 중요한 방도
- (8404) 로동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
- (8412)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강화하자
- (8506)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테리의 역할 문제
- (8506) 당의 신임에 기술로써 보답한 충성심의 높은 발현
- (8506) 새 기술도입은 인민경제 현대화를 위한 기본방도
- (8601)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양을 이룩하자
- (8603) 기술혁명은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기본고리
- (8605)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의 높은 신임에 빛나는 사업성과를 보답하자
- (8605) 생산잠재력의 효과적리용과 과학기술발전
- (8605)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공장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 (8607) 현시기 우리 나라에서 기술혁명의 중심방향
- (8609) 기술혁명은 경공업발전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 (8610) 생산공정의 기계화, 자동화는 기술혁명의 기본
- (8611)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 (8612) 생산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
- (8703) 기술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대중적기술혁신운동
- (8801) 과학기술발전과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조
- (8803) 발전된 과학기술에 토대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이룩하는것은 현 시기 경제발전의 기본추세
- (8805)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룩하자

- (8808) 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보람찬 투쟁과업
- (8812) 과학기술발전에 큰 힘을 넣는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응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선차적인 요구
- (8908) 과학기술지식은 사람의 창조성을 규정하는 기본요인
- (9002)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이 노는 역할
- (9009) 기술혁명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생명선

5. 기타

가. 상업, 상품공급

- (6210) 상품 공급 사업의 가일층의 개선 강화를 위하여
- (6216) 상업 정책 관철을 위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자
- (8506) 사회주의상업은 인민들에 대한 공급사업
- (8912)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한 담보
- (9008) 상업봉사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과업
- (9112) 사회주의상업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것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중요담보

나. 분배

- (6517) 현시기 사회주의 분배 원칙 관철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 (6524) 협동 농장들에서의 분조 도급제
- (7912)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는것은 경제관리개선의 중요한 요구
- (8401) 공산주의적시책과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의 옳은 결합

- (8408)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와 그 올바른 적용
- (8502) 로동에 의한 분배는 사회주의사회의 객관적법칙
- (9008)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를 정확히 실시하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정치

다. 재정·금융·예산

- (6211) 자금은 반드시 지정된 목적에 리용하여야 한다
- (6302) 로동 행정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데 은행 통제가 어떤 역할을 노는가
- (7609) 지방예산제는 지방의 살림살이를 간지게 해나가는 우월한 예산제도
- (7905)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것은 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
- (7908) 지방예산제와 일군들의 창발성
- (8007) 재정을 유일적으로 관리할데 대한 원칙의 본질과 우월성
- (8009) 일 생산 및 재정 총화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
- (8110) 재정관리사업과 기업관리의 합리화
- (8111) 경제사업과 은행의 통제적역할
- (8312) 사회주의재정은 경제관리합리화의 중요한 공간
- (8405) 재정규률의 강화와 원에 의한 통제
- (8504) 지방예산제는 우월한 살림살이방법
- (8907)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라. 교통

- (6703)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송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하자
- (7106) 철도운수부문의 전투적과업
- (7309) 현시기 교통운수부문앞에서 나서는 중요과업

- (7408)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수송전선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키자
- (7503) 수송전선은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선차적으로 힘을 넣어야 할 투쟁전선
- (7605) 수송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교통운수부문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
- (7705) 수송전선을 추켜세워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 (7805) 3대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수송혁명수행의 중요한 담보
- (7908) 수송사업은 전당, 전국, 전민이 지원해야할 중요한 사업
- (8403) 수송은 인민경제의 선행관
- (8502) 생산과 수송의 균형은 경제의 빠른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
- (8603) 철도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경제발전의 절박한 요구
- (8705) 현시기 철도수송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 (8710) 현대수송은 수송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도
- (8804) 철도의 수송능력을 늘이는것은 수송문제 해결의 중요한 방도
- (8906) 철도운수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
- (8908) 3대수송방침을 관철하는것은 수송혁명 수행의 기본방도
- (9011) 철도운수의 수송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은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절실한 요구

마. 건설

- (6211) 20만 세대의 주택 고지 점령을 위한 몇가지 문제
- (6213) 기본 건설에서 당 정책 관철을 위한 몇 가지 문제
- (6219)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 제고에 대한 몇 가지 문제
- (6704) 기본건설에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 (7305) 건설의 집중화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 (7403) 기본건설전선에 화력을 집중하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의 승리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전투
- (8403) 건설의 집중화는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 (8611) 중요대상건설에 힘을 집중하는것은 현시기 경제건설의 절실한 요구
- (8701) 서해갑문 건설식으로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 (8904) 기본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하기 위한 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 (9012) 건설을 집중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바. 국토관리(자연개조, 도시계획, 환경보호 등)

- (6912) 국토건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
- (7612) 알곡 1,0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 (7706) 도시경영사업은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봉사사업
- (7706) 위대한 수령님의 토지건설강령을 빛나게 관철하여 우리의 국토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자
- (7707)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에 관한 웅대한 구상은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 (7709) 우리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국토를 전망성있게 건설하기 위한 위력한 무기
- (7710) 경제수역설정은 나라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
- (7712) 우리나라 사회주의토지법은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
- (8001) 국토를 락원으로 전변시키는 대자연개조사업
- (8004) 위대한 수령님의 대자연개조구성을 실현해나가는것은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영예로운 사업
- (8105) 자연개조사업은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보람찬 투쟁
- (8108) 대자연개조의 위대한 강령(30만정보의 간석지개간 방침)#

- (8111)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웅대한 강령
- (8203) 대자연개조를 위한 투쟁과 당위원회의 조직지도사업
- (8502) 국토관리사업은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
- (8609) 남포갑문은 당의 웅대한 자연개조구상에 따라 건설된 우리 시대의 대기넘비적 창조물
- (8709) 광복거리 건설은 로동당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영예롭고도 거창한 사업
- (8904) 자연개조사업은 인간의 생존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는 창조적 활동
- (8910) 간척지건설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
- (8911) 국토를 락원으로 꾸리는것은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보람찬 사업(김정일의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5주년)

사. 노무행정 및 노무관리

- (6208) 로동 행정 사업에서 청산리 방법을 철저히 관철시키자
- (6302) 로동 행정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자
- (6306) 현 시기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 생산 능률 제고의 예비는 어데 있는가
- (6521) 농촌 경리에서의 로동 행정 사업
- (6707) 로동행정사업의 개선강화를 위하여
- (7002)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과 로동행정
- (7210)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담보
- (7706)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이룩하자
- (7911) 사람과의 사업, 정치사업을 잘하는것은 로동행정일군들의 중요한 임무
- (8109) 로력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중요한 요구

- (8306) 사회적으로동의 합리적리용은 사회주의 경제의 본성적 요구
- (8405) 로력예비를 적극 동원리용하는 것은 생산장성의 중요한 방도
- (8407) 사회주의건설과 로동의 합리적조직
- (8611) 로동행정사업은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나서는 중심적인 사업
- (8705)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새 전망계획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방도
- (8808) 사회주의대건설의 요구에 맞게 로동행정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자
- (8907)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사회주의대진군운동을 다그치기 위한 확고한 담보
- (9006)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것은 로동행정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중심과업
- (9007) 로동생산능률의 제고는 확대재생산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방도
- (9107) 혁명적로동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로동행정사업에서 나서는 기본과업

아. 대외무역 및 대외 경제협력

- (8310)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은 성숙된 절박한 문제
- (8404) 남남협조와 경제적자립
- (8412)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대외무역
- (8504) 남남협조실현에서 농업협작문제
- (8604) 대외경제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중요한 요구
- (8706) 남남협조를 실현하는것은 현시기 발전도상나라들 앞에 나서는 절박한 문제
- (8709) 남남협조는 발전도상 나라 인민들이 경제적해방과 자주권을 위한 국제적운동
- (8807)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경제적 자립성과 그 위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 (8811) 합영, 합작은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형태

- (8902)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
- (8909)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자

III. 군사외교

1. 군사

가. 인민군 찬양, 인민군의 역사

- (6303) 당의 령도 하에 불패의 무력으로 자란 조선 인민군
- (6702) 조선인민군은 혁명의 믿음직한 보위자
- (6802)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계승한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
- (6802)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육성하신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 (6802) 인민군대를 친형제처럼 사랑하고 성심성의로 원호하자
- (7002)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한 인민군대의 위력은 필승불패이다
- (7211) 조선인민혁명군내에서의 혁명적조직생활과 혁명화
- (7404) 조선인민혁명군은 숭고한 혁명적동지애로 굳게 뭉친 불패의 대오
- (77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시다
- (7705) 조선인민혁명군은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굳게 뭉친 불패의 혁명대오
- (7804)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건된 조선인민군은 우리 당의 필승불패의 혁명적무장력
- (8006)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 혁명적무장조직-조선혁명군
- (8204) 조선인민군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보위하는 당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창군 50주년)

- (8407) 정치사상적우월성은 혁명군대의 본질적특성이며 불패의 위력의 원천
- (8604) 우리 당 혁명무력건설의 빛나는 전통
- (8611) 인민군대는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이며 사회주의 건설의 적극적인 참가자이다
- (8704)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최고사령관이다
- (8804) 조선인민군은 당의 위업을 옹호보위하는 불패의 혁명대오

나. 군사노선, 임전태세 강조

- (6703) 전쟁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자들의 태도
- (6901) 우리 당의全民무장화방침의 정당성
- (6902) 당의 자위노선을 받들고 일당백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필승불패이다
- (6906) 미제침략자들은 조선전쟁의 역사적교훈을 망각하고 함부로 덤벼든다면 더욱 큰 참패를 면치 못할것이다
- (7006) 미제침략자들이 조선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의 불길을 일으킨다면 더욱 큰 참패를 당하고야말것이다
- (7007)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자위적인 군사노선의 정당성
- (7102) 우리 혁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위대한 자위적군사강령
- (7107) 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립장과 태도
- (7202)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일당백의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다
- (72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 (740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全民무장화방침과 그 정당성
- (7502) 자위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군대를 더욱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하자
- (7608) 현대전쟁의 특성과 그 승리의 요인
- (7611) 자위사상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혁명적인

군사사상

- (7701) 전민무장화를 더욱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은 나라의 자위적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중요담보
- (7706) 주체의 군사사상은 사람을 기본으로 하여 군사문제를 풀어나가는 독창적인 군사사상
- (8002) 군민일치는 인민군대와 인민들 속에서 높이 발휘되여온 전통적미풍
- (8301)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하는 것은 자주독립 국가건설의 근본원칙
- (8705) 군민일치는 우리 인민과 군대의 전통적기풍

다. '조국해방전쟁'

- (6314) 조국 해방 전쟁에서 조선 인민이 쟁취한 승리의 의의
- (6707)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를 타승한 조선인민의 불패의 힘
- (6907)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역사적승리
- (7207)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은 위대한 혁명전쟁
- (7307)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과 민족적존엄을 수호한 위대한 전쟁
- (740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 (760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 (8307) 주체의 군사사상과 탁월한 령군술의 위대한 승리
- (8307)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자('조국해방전쟁' 승리 30주년)
- (8807) 탁월한 령도와 대중적 영웅주의가 가져온 위대한 승리
- (8907)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높이 발휘된 우리 인민의 대중적 영웅주의
- (9107)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군대와 인민은 필승불패이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38주년)
- (9107) 군민일치, 관병일치는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중요요인

2. 외교 및 국제관계

가. 대외정책 및 그 기초

- (6206)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자(5.1절)
- (6518) 우리 당 대외 정책의 승리
- (6608) 자주성을 옹호하자
- (6702) 사대주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이다
- (6907) 자주성과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 (6908) 사회주의의 중국적승리와 국제주의적련대성
- (7003) 국제혁명역량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세계혁명발전의 필수적요구
- (7111)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중요한 요구
- (7311)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의 빛나는 실현
- (7510)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은 현시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혁명적인 전위부대이다
- (7512)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일관한 원칙
- (7602)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날로 커가는 국제적련대성
- (77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세계인민들의 반제혁명위업에 불후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 (7709) 조선문제는 세계관심의 초점
- (7809)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끊임없이 높아가고있다
- (7810)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기본담보
- (8104)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은 우리 당 대외정책의 확고한 지침
- (8202) 우리 당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임을 받는 혁명적인 당

- (82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
- (8210)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혁명로선
- (8212) 정치에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 (8310) 피로써 맺어진 조종친선의 위대한 전통(중국인민지원군 한국전선 참전 33주년)
- (8408) 맑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밑에 강화발전되는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불폐의 친선단결
- (8409) 사회주의는 평화의 위력한 성세
- (8410)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협조와 교류를 강화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 (8505) 사회주의력량의 위력을 과시한 력사적사변(소련과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김일성의 방문 1주년)
- (8508)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날로 강화되는 국제적지위
- (8508) 조조친선은 영생불멸하다
- (8602) 자주, 친선, 평화는 우리 당 대외정책의 기본리념
- (8608)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로선
- (8609)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는 빨럭불가담운동
- (8701)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평화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담보
- (8702) 자주, 친선, 평화는 대외활동에서 견지하고 있는 우리 당의 기본리념
- (8702) 우리 당은 세계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권위있는 당
- (87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혁명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 (8705) 평화는 사회주의의 본성적요구
- (8802) 우리 공화국은 평화에호적인 사회주의나라
- (88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빨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 (8806)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친선단결을 더욱 강화하자(평양축전)
- (88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제적 권위와 영향력은 날로 높아가고있다
- (9010) 피로써 맺어진 조중친선은 영원불멸할 것이다(중국인민지원군 한국 전선 참전 40주년)

나. 일반 국제정세 소개

- (6201) 사회주의 위력의 장성과 제국주의의 쇠퇴 몰락
- (6205) 레닌과 동방 인민의 민족 해방 투쟁
- (6211)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노동 운동의 새로운 양상
- (6214) 식민지 민족 해방 투쟁의 역사적 조류를 막을 힘은 없다
- (6216) 중국 인민은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계속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
- (6216) 서구라파 <공동 시장>과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모순
- (6216) 현대 독점 자본주의 발전의 추세
- (6301) 큐바 혁명은 필승 불패이다
- (6305) <한일 회담>을 분쇄하기 위한 일본 인민의 투쟁
- (6309) 현 시기 제국주의 령강 간의 모순의 심각화
- (6311) 심각한 새 위기에 빠져 들어가는 미국 경제
- (6524) 제국주의 침략세력은 파멸을 재촉하고 있다
- (6701) 서반구의 사회주의기수 - 쿠바
- (6703) 미일반동들을 반대하는 일본인민의 투쟁
- (6704) 제국주의에 관한 레닌의 이론의 역사적의의
- (6705) 월남침략전쟁에서의 미제의 군사정치적위기
- (6707) 위기에 처한 미제의 <반공>군사동맹체계
- (6710) 월남인민의 반미구국투쟁은 필승불패이다

- (6901) 쿠바혁명과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
- (6903) 월남전쟁은 미제침략자들의 무덤으로 되고있다
- (7007) 반제반미투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의 휘황한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쿠바
- (7105) 미제의 전쟁확대책동을 반대하는 인도지나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 (7106) 반미투쟁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추세
- (7305) 전면적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
- (7307) 미제의 아세아침략정책은 전면적으로 파산되고있다
- (74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세계적사조
- (7408) 제3세계인민들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
- (7505)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심각한 경제위기
- (7601)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승리적전진
- (7604)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요구와 추세를 반영한 위대한 혁명사상
- (7607) 빨럭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은 승리하고있다
- (7609)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는것은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정당한 위업
- (7707) 세계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편에 확고히 서있다
- (7804) 위대한 주체사상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을 승리로 고무하고있다
- (7909) 경제적자립과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적발전
- (8003)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연대성의 강화
- (8004)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
- (8112) 식량문제를 해결하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절박한 요구
- (8301)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심각화되고 있는 실업문제
- (8408) 날로 양양되고있는 구라파인민들의 반전, 평화옹호 투쟁

- (8410) 현대화된 새 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의 길에서(중화인민 공화국 건국 35주년)
- (8411) 발전된 사회주의사회의 완성을 위한 소련인민의 투쟁(소련 사회주의 10월혁명 67주년)
- (8501)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식량문제
- (8506) 날로 심각화되는 제국주의나라들에서의 재정위기
- (8511) 발전도상나라들에서의 채무문제
- (8512) 비핵지대, 평화지대의 창설을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
- (8603) 핵전쟁의 위협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
- (8608) 영웅적꾸마는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 (8707) 날로 강화되는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
- (8710) 대외채무문제를 옹게 해결하는것은 현시기 발전도상나라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
- (8711) 10월의 위업은 필승불패이다
- (8712)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비핵, 평화 지대창설운동
- (8808) 남부아프리카의 완전해방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 (8810) 반제지주화를 위한 세계인민들의 투쟁
- (8902) 세계적 범위에서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신식민주의적 약탈의 산물
- (8910) 사회주의서방초소를 굳건히 지켜선 독일민주주의공화국(동독 건국 40주년)

다. 반제·반자본주의투쟁 선동, 비동맹운동 지지

- (6305) 현 시기 제국주의 부르쥬아 사상의 기본 특징
- (6305) 신식민주의에 복무하는 <후진국 개발론>
- (6311)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

- (6314) 평화는 투쟁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다
- (6314) <말레이시아 련방>계획과 식민주의
- (6515) 신생 독립 국가들에서의 자립적 민족 경제 건설
- (6516) 아프리카 나라들의 민족 해방 혁명에서의 농민 문제
- (6522) 세계 제패를 위한 미제의 군사 전략과 그 파산
- (6523) <지정학>은 미제의 남조선 침략을 정당화할 수 없다
- (6523) 아세아 침략을 위한 미 일 반동들의 <공동 작전>계획
- (6601) 월남 인민의 반미 구국 투쟁을 적극 지원하자
- (6608) 오테르-나이췌국경선은 변경될 수 없다
- (6701) 미제의 남조선침략에 복무하는 부르췌아사조
- (6704)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결탁
- (6902)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미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일환
- (6907) 반미투쟁은 세계 모든 인민들의 공동의 의무이며 가장 선차적인 혁명과업이다
- (6912) 사회주의길은 제국주의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의 자유와 행복, 민족적독립과 번영의 길
- (7009) 민족해방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력량이다
- (7010)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적결탁과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의 로골화
- (7012) 반제반미투쟁을 새로운 양상으로 이끄는 탁월한 전략적방침
- (7102) 미제의 아세아침략을 좌절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투쟁전략
- (720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시대의 반제투쟁을 승리로 이끌고계신다
- (72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 혁명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
- (7308) 자본주의제도의 반동적본질
- (7401) 평화는 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단호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해야 한다

- (7409) 자본주의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 (7412) 단결은 제3세계인민들의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
- (7603) 제3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 (7607)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 (7705)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는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의 위력한 무기
- (7712) 온갖 형태의 지배세력을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이룩하는것은 빨럭불가담운동발전의 절박한 요구
- (7808) 제국주의자들의 <인권옹호>는 지배와 예속의 기만적 구호
- (7810) 지배주의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반혁명적조류
- (7812) 빨럭불가담나라들은 자주성을 견지하고 통일단결을 고수해야 한다
- (7905) 신흥세력나라들의 광범한 통일전선은 반제혁명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
- (7909) 자주성에 기초한 통일단결은 빨럭불가담운동의 불패의 힘의 원천
- (7911) 미국, 일본, 남조선 3각군사동맹 조작책동의 침략적본질
- (8001) 빨럭불가담운동의 원칙을 고수하는것은 이 운동성원국들의 숭고한 의무
- (8007) 실업은 자본주의제도의 필연적산물
- (8008) 빨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통일단결
- (8011) 자주성과 빨럭불가담운동
- (8012)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은 세계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위력한 담보
- (8103) 독점자본과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
- (8107)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은 신흥세력나라들의 공동의 투쟁과업
- (8109) 신흥세력나라들의 단결은 제국주의의 분렬, 리간책동을 파탄시키기 위한 기본담보
- (8111) 빨럭불가담운동은 인류력사를 전진시키는 강력한 추동력
- (8206) 온 세계의 자주화는 인류공동의 숭고한 위업

- (8207) 나라와 민족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중요담보
- (8208) 온 세계의 자주화와 뽀력불가담운동
- (8305) 뽀력불가담운동의 숭고한 리념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 (8307) 단결은 로동계급의 가장 위력한 무기
- (8311) 온 세계의 자주화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
- (8312) 민족문화건설은 신흥세력나라들의 자주적인 발전을 위한 절박한 문제
- (8401) 시대는 전진하여도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
- (8405) 미제의 극동침략전략과 일본의 군국화
- (8409)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제2차 세계대전 발발 45주년)
- (8505)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나치독일 패전 40주년)
- (8505) <환태평양공동체>론의 반동적본질
- (8511) 이스라엘은 중근동평화의 암
- (8601) 새 세계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것은 인류앞에 나서고있는 초미의 문제
- (8604)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새 세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담보
- (8607)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국제적 단결과 협조의 강화를 위한 중요원칙
- (8708) 반제반미투쟁의 길을 밝혀준 위대한 문헌(김일성의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 (8711) 집단적 자력갱생은 뽀력불가담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투쟁원칙
- (8801) 미제의 아세아, 태평양 전략과 3각군사동맹조작책동
- (8806)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근본담보
- (8807) 팔레스티나문제는 아랍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해결되어야 한다
- (8807)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

여 투쟁하자

- (8811) 현대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한 주체적 견해(김정일의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 (8811) 변화된 사회계급구성에 맞게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주체적 혁명력량을 강화할데 대한 창조적 이론(김정일의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 (8812)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현시기 세계인민들 앞에 나서는 공동의 투쟁과업
- (8901)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전진하는것은 세계 진보적 청년들의 숭고한 념원(평양축전)
- (8903) 평양축전은 새 세대 청년들의 련대성과 단결의 위력을 시위하는 성대한 국제적 무대로 될것이다
- (8903) 다국적기업체는 세계적 범위에서 자본주의적 착취와 제국주의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대독점자본의 존재방식
- (8904)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반제자주의 혁명적 기치를 견결히 고수해나가는 걸출한 령도자이다
- (8905) 현대제국주의의 반인민성과 부패성
- (8906) 현대제국주의는 평화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공동의 원수
- (8907) 자주적인 새 세계를 창조하는것은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청년학생들의 영예로운 사명(평양축전)
- (8907) 제국주의자들의 발광적인 반사회주의적 소동을 철저히 짓부시자
- (8908) 온 세계의 자주화와 반제투쟁
- (8909) 빨럭불가담운동의 근본원칙과 리념을 고수하는것은 반제자주의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중요담보
- (9001)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의 수립과 남남협조
- (9002) 제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본질
- (9003) <평화>와 <완화>의 막뒤에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
- (9005) 자본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전세계로동계급의 전투적 친선과 단결(노동절 100주년)

- (9006)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은 발전도상나라들이 완전한 자주독립을 실현하는 참다운 길
- (9009) 사회주의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
- (9010) 우리 당은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가는 혁명적당
- (9011)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이행전략>은 파산을 면치 못한다
- (9012) 불건전한 사상문화의 침습을 반대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중요고리
- (9012) 빨럭불가담운동과 은 세계의 자주화
- (9108) 자주적이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는것은 아세아인민들의 공동의 위업
- (9109) 빨럭불가담운동을 더욱 강화발전시키는데는 현시대의 절박한 요구

라. 반미

- (6216) 대중의 혁명 의식을 마비시키는 <미국식 생활 양식>
- (6220) 케네디의 <신 전략>과 남조선
- (6302) 케네디 집권 2년 간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 (6307) 미제의 세계 제패 계획과 아세아
- (6422) 인종주의와 미국의 대내외 정책
- (6423)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 수법
- (6423) <후진>국가들에 대한 미제의 사상 문화침략
- (6522) <정당 정치>로써는 신식민주주의의 정체를 가릴 수 없다
- (6706) 아랍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정책
- (6706) 남조선에 대한 침략을 은폐하는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
- (6709) 미제는 현대식민주주의의 아성
- (6910) 세계인민의 공동의 원수 미제에게 투쟁의 예봉을 돌리자

- (7001) 현대제국주의괴수 미제의 중국적멸망은 불가피하다
- (7111)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신식민주의정책의 반동적본질
- (7201) 미제의 <평화전략>은 뒤집어놓은 전쟁전략
- (7211) <닉슨주의>는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 (7306) 미제는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
- (7405) 미제침략자들은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 (7507) 미제는 조선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자기가 지른 불에 타죽고말것이다
- (7601) 미제는 남조선에 자기의 침략군대를 남겨둘 어떠한 구실도 더는 찾을수 없다
- (7605) 혼란과 파국 상태에 빠진 미국경제
- (7608) 미제의 세계제패야망과 남조선에서의 새 전쟁 도발책동
- (7612) 미제는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의 횡포한 교살자
- (7807)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다
- (7909) 미제침략군의 철거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 (7910) 미제의 <평화>구호는 침략정책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
- (8008) 미제는 남조선파쇼독제의 조종자이며 인민탄압의 원흉
- (8105) 심각한 위기에 빠진 미국경제
- (8105) 남조선에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미제의 식민지군사파쇼정책
- (8106) 미제의 침략적군사전략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
- (8108) 지배권확립을 위한 미제의 악랄한 책동
- (8201) 미제는 민족적독립과 자주적발전을 가로막는 주되는 장본인
- (8210) 미제는 체계적으로 남조선을 완전식민지로 만든 장본인
- (8305) 미제의 조선침략과 3각군사동맹 조작책동
- (8306) 미제의 정치경제적위기와 새 전쟁 도발책동

- (8312)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 파탄시키자
- (8402) 미제는 중미주정세를 격화시키고있는 장본인
- (8406) 미국의 반동적경제정책과 그 전면적파산
- (8406)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 전취물을 철옹성같이 보위하자
- (8408) 부패하고 퇴폐적인 미국식생활양식
- (8412) 미제가 벌리고있는 현대판 <십자군원정>
- (8503) 미국군사산업복합체의 반동적정체
- (8506) 미제의 무분별한 <별세계전쟁>책동
- (8506)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
- (8507) 미제의 세계제패야망과 군비증강책동
- (8509) 니카라과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의 계단식확대
- (8601) 미제의 반동적인 보호무역주의책동
- (8602) 미제는 최대의 인권유린자
- (8603) 더욱 강화되고 있는 미제의 남조선시장 략탈책동
- (8606) 미제의 새 아세아군사전략과 남조선
- (8607) 조선반도에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자
- (8608) 미제는 남조선사회의 자주적발전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장본인
- (8611) 범죄적인 미제의 세균 및 화학 전쟁책동
- (8905) 미제의 대조선정책은 아세아, 태평양전략의 중요고리
- (8905) 미제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장본인
- (8910) 미국은 조선의 현실을 바로 보고 대조선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 (8912)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도적인 <수입개방>정책과 그 후과
- (9008) 미제는 세계최대의 인권유린자
- (9107) 미제의 세계제패전략과 교활한 량면전술

마. 반일

- (6206) 일본 군국주의의 남조선 재침 기도는 분쇄되어야 한다
- (6309) 보세 가공 무역이란 무엇인가
- (6602)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자 #
- (6706) 남조선에 대한 일제의 재침책동은 분쇄되어야 한다
- (6708) 제일 조선공민들의 귀국사업을 파괴하려는 미제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범죄적 책동
- (6709) 일본군국주의는 미제의 아세아침략의 사환군
- (7005) 일본군국주의의 재생을 반대하자
- (7109) 일본군국주의의 해외팽창야망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원칙적인 투쟁방침
- (7205) 일본독점자본의 팽창과 해외침략책동
- (7207) 철천지원수 일본군국주의의 교활한 남조선재침책동
- (7210) 일본군국주의는 조선인민의 피맺힌 원수
- (7311) 남조선경제를 삼키려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
- (7312) 경제문화적침투는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의 올가미
- (7409) 일본군국주의자들의 <대동아공영권>의 옛망상은 실현될수 없다
- (7502) 남조선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은 철저히 저지되어야 한다
- (8308)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야망과 해외팽창책동
- (8411) 일본반동들은 엄연한 역사적사실을 외곡할수 없다
- (8411) 조선경제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적락탈만행
- (8412) 일본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책동
- (8502) 일본독점자본의 동남아세아침투
- (8504) 일본군국주의의 위험성에 경각성을 높이자
- (8508) 일본군국주의자들은 패전의 역사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 (8805) 아세아와 태평양 지역을 제패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책동
 (8911)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책동과 그 위험성

IV. 사회문화

1. 사회

가. 근로단체의 역할

- (6201) 사회주의 건설의 새 임무와 직맹 단체의 교양적 역할
 (6906) 김일성동지의 연설 <근로단체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하여>는 근로단체사업발전에서의 강령적지침
 (700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근로단체건설의 빛나는 전통
 (7010)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강령적지침
 (7201) 직업동맹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전투적강령(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에서의 교시)
 (7203) 사회주의하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의 중심과업을 명시한 강령적교시(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2차대회에서의 교시)
 (7310)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높여 대중혁명을 다그치자
 (7906) 근로단체들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활동의 중요한 요구

나.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청년들의 역할 강조

- (6306) 사회주의 건설의 앞장에 서는 것은 청년들의 영예로운 임무
 (6422) 10대 과업 관철에서의 청년들의 임무
 (6705) 청소년들을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실한 혁명의 후비로 교양육성하자
 (6905)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청년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문헌(『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발표 5주년)

- (7003) 사로청사업을 강화하여 청년들을 수령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로 키우자
- (7101) 사로청은 수령의 근위대, 결사대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자
- (7107) 모든 청년들을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튼튼히 키우자
- (7305) 사업을 근기있게 내미는것은 사로청사업발전을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
- (7310) 청년들은 나라의 주인이며 당의 참된 전사들이다
- (7409)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서의 사로청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자
- (7601) 청년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 (7707) 사로청조직들의 전투적과업을 휘황히 밝혀준 강력적지침(「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 (7901)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돌격대
- (8005) 계속혁명과 청년사업
- (8101) 청소년교양사업은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요구
- (8110) 청소년들을 주체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키우는것은 당조직들의 중요한 임무
- (8112) 청년들은 조선로동당의 믿음직한 청년전위가 되자
- (8401)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청년문제
- (8502) 당의 령도에 충실하는 것은 사로청 활동의 기본
- (8510) 우리 당은 청년운동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은 향도적기치
- (8601) 사로청은 우리 당의 전투적후비대
- (8610) 청년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선봉대, 돌격대
- (8710)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대적 역할과 청년돌격대운동
- (8905) 청년들은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고 반제자주위업 수행에 몸바쳐나서자
- (9005) 우리 당이 발기한 청년돌격대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이는 위력한 대중운동

- (9007) 청년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혁명의 대를 곳곳이 이어나가기 위한 중대한 사업
- (9107) 청소년들을 혁명의 믿음직한 전위투사로 키우기 위한 강령적지침 (김정일의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10주년)

다. 여성의 혁명화 및 역할 강조, 남녀평등

- (6910) 여성들은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믿음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자로 되자
- (710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시하신 여성문제해결의 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투쟁
- (711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모든 여성들의 혁명화를 힘있게 다그치자
- (7211) 우리나라에서 여성문제의 빛나는 해결

라. 인민생활 향상과 편의후생시설 개선

- (6219) 후방 공급 사업을 가일층 개선 강화하기 위하여
- (6515) 근로자들의 살림살이와 일'군들의 혁명적 관점
- (6518) 인민 생활의 향상을 위한 우리 당 정책의 빛나는 구현
- (7010)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어버이수령의 크나큰 배려(임금인상)
- (7109) 사회주의하에서 인민생활문제해결의 가장 정확한 길
- (731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산력배치에 관한 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 (7703)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
- (7808) 봉사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인민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한 영예로운 과업
- (7903) 후방사업은 곧 정치사업
- (7912) 편의봉사사업은 인민을 위한 영예로운 혁명사업

- (8001)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 활동의 최고원칙
- (8012)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것은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위한 중요한 과업
- (8106) 인민생활과 군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피현군 당위원회의 사업경험)
- (8107) 봉사사업과 지방정권기관일군들의 창발성
- (8203)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지도일군들의 숭고한 임무
- (8309) 봉사사업은 늘어나는 인민들의 생활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예로운 혁명사업
- (8411) 인민생활을 책임지는 립장에 설 때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
- (8502) 인민생활향상과 봉사혁명
- (8508)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일어난 세기적전변
- (8607) 군을 꾸리고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사업경험
- (8609) 당성, 인민성을 높이는것은 봉사혁명의 근본요구
- (8712)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향상과 군당위원회의 지도
- (8802) 식의주문제해결에서 현시기 틀어쥐고 나가야 할 결정적 고리
- (8811) 산을 잘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
- (8904) 인민대중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원칙
- (8908) 봉사혁명을 일으키는것은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요구
- (9007) 인민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것은 일군들의 혁명적본분
- (9109)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은 인민들에게 평등하고 유족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확고한 담보
- (9111) 산간지대 인민들의 생활을 높이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조직정치사업경험

마. 의료보건

- (7105) 인민보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자
- (7306) 우리나라 보건제도의 우월성
- (8005)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
- (8008) 사회주의의학의 기본은 예방의학
- (8501) 예방의학적방침은 우리 당 보건 정책의 기본
- (8504) 우리 나라 무상치료제는 가장 인민적인 보건제도
- (8604) 의료봉사사업을 잘하는것은 보건 일군들의 숭고한 의무
- (8611)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의 빛나는 생활력
- (8806) 보건사업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보람찬 사업
- (8911) 당의 예방의학적 방침은 사회주의의학의 본성적 요구를 구현한 기본방침
- (9004)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는 사람중심의 선진적인 보건제도

바. 조직생활 및 사회주의생활양식 확립

- (7505)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조직생활은 정치적생명이다
- (7903) 사회주의생활양식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활동방식
- (8108) 사회주의적문화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필수적요구
- (8402) 조직생활은 사상개조의 위력한 수단
- (8811) 제국주의사상문화적 침투를 반대하는것은 혁명적 생활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
- (8901) 조직관은 주체의 혁명관의 중요구성부분
- (8903)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녀야 할 중요한 활동방식
- (9009) 온 사회에 혁명적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자

사. 생활질서·규율·법규 준수, 도덕존중

- (7311) 근로자들은 누구나 혁명적법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 (7612) 혁명적규율을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
- (7705) 사회주의적법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중요한 요구
- (7707) 사회주의적공동생활질서를 잘 지키는것은 공산주의도덕교양의 중요한 과업
- (7807)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생활기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
- (7811) 노동규율규정은 사회주의건설의 요구를 구현한 혁명적인 노동준칙
- (8003) 사회주의법규범을 잘 지키는것은 근로자들의 신성한 의무
- (8303) 사회주의법무생활과 혁명적준법기풍
- (8310) 사회주의노동법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노동생활을 정규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 (8412) 사회주의법무생활과 준법교양
- (8605) 준법의식을 높이는것은 사회공동생활 규범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필수적요구
- (8612) 도덕을 귀중히 여기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미풍양속
- (8902) 주체의 도덕관은 혁명적 량심에 기초한 사람들의 행동규범에 대한 관점과 입장
- (8911) 사회주의법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생활규범

2. 문화

가. 문예정책 일반

- (6212) 공산주의적인 새 인간 형성에서의 문학 예술의 역할
- (6216) 우리 당 문예 정책의 위대한 생활력

- (6302) 문학 예술 평론의 선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6312) 조국 해방 전쟁과 관련된 주제 취급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 (6312) 진실한 형상, 풍부한 서정
- (6423) 혁명적 작품을 창작하는데 힘을 집중하자
- (6520) 혁명적 문학 예술의 새로운 전진을 위하여
- (6524) 문학 예술에서의 주제 문제
- (6703)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의 계급적성격
- (6704)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과 문학예술
- (6710) 우리 문학예술에서 조국해방전쟁의 주제
- (6911) 김일성동지의 로작 <혁명적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는 문학 예술창작에서의 강령적지침
- (7009)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제적교육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발전의 강령적지침
- (7012)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시기 혁명적 문학예술사업에 대한 지도방법
- (7306)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문학예술창작방향에 관한 위대한 사상
- (7306) 문학예술창작에서 종자를 바로질테 대한 당의 독창적인 문예사상
- (7309)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과 그 빛나는 계승발전
- (7312) 문예작품창작에서 속도전을 벌릴테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방침
- (7404) 당의 혁명적인 문예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 (7405)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문학예술건설의 근본문제
- (7407) 수령님께서 밝히신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
- (7408)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테 대한 우리 당 문예 방침의 정당성
- (7409) 사회주의적문학예술을 민족적바탕우에서 발전시킬테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사상

- (7411) 문학예술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옹계 결합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
- (7412) 문학예술에서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 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
- (7512)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혁명적 문예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당의 탁월한 방침
- (7602) 우리 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꽃피는 주체문학예술
- (7609)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결합시키는것은 사회주의적문학예술건설의 근본원칙
- (7611)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작품을 창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 건설의 강력적지침
- (7702) 자주적인간의 전형을 창조하는것은 공산주의 새 인간학의 근본요구
- (7709) 문예작품창작을 대중화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 (7803) 정치성과 인간성을 옹계 결합하여 그리는것은 공산주의혁명가의 진형창조에서 나서는 필수적요구
- (7807)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것은 공산주의 인간학의 기본요구
- (7905) 종자는 작품의 핵이다
- (7909) 현실체험은 문예창작의 성과를 위한 중요한 담보
- (7910) 자주적인 인간에 대한 문제를 내세우는것은 공산주의적인간학의 근본요구
- (7912) 창작적개성을 살리는것은 사회주의적 문학예술의 본성적요구
- (8001) 문예활동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리는것은 대중교양의 힘있는 방법
- (8002) 규모가 대작이 아니라 내용이 대작이다
- (8102)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주체의 문학예술
- (8105)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을 높이는것은 혁명적문예작품창작의 선차적요구
- (8108) 우리 당의 혁명적문예전통과 그 빛나는 계승발전
- (8109) 혁명적문예작품창작의 성과를 담보하는 주체적인 창조체계

- (8112) 우리 당의 예술선동방침과 그 거대한 생활력
- (8202) 문학예술혁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온 위대한 령도
- (8203) 혁명적세계관형성과정을 깊이있게 그리는것은 전형창조의 기본요구
- (8205) 로동계급의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 (8211) 문예활동의 대중화는 주체적문학예술건설의 중요한 요구
- (8302)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리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강령적지침
- (8310) 철학적깊이를 보장하는 것은 문예작품창작에서 나서는 근본문제
- (8402) 주체적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불멸의 업적
- (8406)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력사물창작의 중요한 요구
- (8411) 인민대중은 문화예술의 창조자이며 향유자이다
- (8502) 주체의 문학예술은 혁명적세계관확립의 위력한 수단
- (8504)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의 백과전서(김정일의 「영화예술론」)
- (8509) 우리 시대 인간의 성격창조 문제
- (8511) 문학예술작품에 형상된 당일군의 성격적특질
- (8602)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한 혁명적리론
- (8603) 주체적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지침(1981.3.31. 전국 문학예술인열성자대회에 보낸 김정일의 서한)
- (8605) 주체적문예사상은 창작의 기초
- (8607) 주체의 문학예술은 참다운 인민적문학예술
- (8608) 우리 당에 의한 수령형상창조문제의 빛나는 해결
- (8609) 조국에 대한 문학예술작품은 사회주의 애국주의교양의 힘있는 수단
- (8701) 자주적인간의 전형창조는 우리 시대 문학예술의 중요과업
- (8702) 주체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마련한 우리 당의 위대한 령도

- (8705) 전진하는 시대와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창작
- (8801) 혁명적 수령관 확립과 문학예술창작
- (8802) 문학예술부문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은 주체적 문학예술발전의 만년초석
- (8804) 혁명적 세계관 형성과 대작창작
- (8805) 혁명적 창작기풍과 생활기풍을 세우는것은 새로운 창작적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절실한 요구
- (8806) 당의 위대성을 폭넓고 깊이있게 형상하는것은 창작가, 예술인들의 영예로운 과업
- (8902)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생활을 깊이 체험하는것은 혁명적 작품창작의 근본요구
- (8903) 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한 주체적 문학예술의 기본특징
- (8910) 우리 당이 문학예술부문에서 이룩한 불멸의 사상리론적 업적
- (8912)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예작품 창작의 올바른 길을 밝힌 강령적 문헌(김정일의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자」 발표 15주년)
- (9004)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는데 복무하는것은 우리 문학예술의 숭고한 사명
- (9005) 들끓는 현실속에 들어가 창작예술활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작가, 예술인들 앞에 나서는 중요과업
- (9109)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것은 주체문학예술건설의 근본원칙
- (9110)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진실하게 형상하는것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중요과업
- (9112) 력사물주제의 작품창작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

나. 인테리정책

- (6710) 우리 혁명의 심화발전과 인테리혁명화
- (7106) 교원인테리들의 혁명화와 대학당위원회
- (7405)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과 그 빛나는 승리

- (7512)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문화혁명의 가장 중요한 목표
- (7812) 우리 당의 주체적인 인테리정책의 위대한 생활력
- (7905)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실현을 위한 숭고한 과업
- (8107)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위한 첫봉화(룡양광산 금산갱의 모범)
- (8201) 공장대학과 온 사회의 인테리화
- (8306)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과 그 불패의 생활력
- (8605)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발전과 인테리의 역할
- (8706) 사회주의하에서 인테리문제와 혁명화, 로동계급화
- (9008) 주체혁명위업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우리 인테리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 (9009)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중요한 전략적과업

다. 교육

- (6207) 우리 나라에서의 기술 인재 양성 사업에 대하여
- (6207) 청소년 학생들을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새 인간으로 교육 교양하자
- (6904) 김일성동지의 로작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는 후대교육교양사업에서의 강령적 지침
- (7002) 교원혁명화와 주체적인 교육발전의 길을 명시한 력사적교시(「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발표 5주년)
- (7207)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교육방법
- (720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
- (7212) 청소년들을 혁명과 건설의 참된 주인으로 키우기 위한 위대한 교육사상과 그 빛나는 실현
- (7311)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시된 주체적인 교육사상
- (7505) 11년제의무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세대대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키우자

- (7603)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각급 당조직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
- (7606) 우리 나라 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혁명의 휘황한 앞날을 담보하는 가장 우월한 제도
- (7709)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은 현실발전의 절박한 요구
- (7710)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위대한 주체의 교육강령(「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 (7711)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 (7711)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는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
- (7711) 교육기관의 역할을 높이며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성과적진행을 위한 중요담보
- (7711)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교육제도
- (7711)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길을 밝힌 사회주의교육의 기본내용(「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 (7712) 고등의무교육제는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완성하고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방도
- (7802)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주체의 교육전통
- (7803)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우월한 교육방법
- (7805) 교육과 혁명실천의 결합
- (7808)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의 가장 올바른 길을 밝힌 주체의 교육사상
- (7811)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교육테제관철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
- (7905)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키우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요구
- (7907) 우리 당의 주체적교육사상과 후대교육사업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
- (7911) 당성, 로동계급성은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
- (8012)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위한 중요한 과업
- (8109) 사회주의교육테제관철을 위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 (8201) 주체사상은 사회주의교육 이론과 방법의 기초
- (8206)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옳은 결합은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중요한 방도
- (8209) 우리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육제도
- (8209)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그 위대한 생활력(「교육테제」 발표 5주년)
- (8209)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교육테제의 최종단계의 과업
- (8401)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고귀한 경험
- (8403) 지식은 사람들의 창조적능력
- (8410) 교육의 질을 높일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
- (8411) 과학기술교육을 더욱 강화하자
- (8502)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대학당 위원회의 역할
- (8503) 공장대학은 교육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는 우월한 교육형태
- (8505) 교육의 질제고와 당적지도
- (8507) 사회주의교육은 사람을 힘있는 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
- (8511) 사람들의 창조적능력과 과학기술교육
- (8604)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교육이론
- (8610)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인간개조사업
- (8612)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이자
- (8705) 학교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자
- (8707)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대학의 과학기술교육수준을 더욱 높이자
- (8709) 주체를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
- (8709) 사회주의교육테제의 빛나는 관철과 군당위원회의 지도
- (8709)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을 위한 교육강령(사회주의교육테제)

- (8710)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공산주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중요한 방법
- (8803) <모범교육군>의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군당위원회의 지도
- (8806)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현시기 교육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
- (8808)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것은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육성을 위한 중요한 요구
- (9002)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당조직들의 중요한 임무
- (9107)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의 우월성과 그 위대한 생활력

라. 문학

- (6201) 아동 문학 창작에서의 몇 가지 문제
- (6207) 씨나리오 문학의 가일층의 발전을 위하여
- (6305) 작가와 생활 체험
- (6306) 역사적 인물의 형상 문제
- (6309) 생활 반영에서의 진실성을 위한 작가의 노력
- (6311) 씨나리오의 형상성 제고를 위하여
- (6314) 생활 연구와 작가 수업
- (6317) 현대성과 우리 문학의 성과
- (6601) 계급 교양과 전쟁 문학
- (7412) 위대한 주체사상은 공산주의 새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에 관한 사상의 초석
- (7502) 사회주의현실이 요구하는 혁명적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
- (7811) 영광의 로정, 거룩한 자욱에 대한 불멸의 서사시 -총서 <불멸의 역사>중에서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 대하여-
- (7902) 우리의 문학은 공산주의 새 인간학이다

- (7903) 주체의 빛발아래 우리나라 농촌에서 이룩된 세기적변혁에 대한 생동한 예술적 화폭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에 대하여-
- (7905) 문학예술과 정서교양
- (8009) 문학작품의 철학적깊이와 작가의 창작적사색
- (8412) 작가는 시대의 앞장에서 생활을 선도하는 기수
- (8501) 새로운 소설문학총서형식의 혁신적특성
- (8512) 주체의 빛발아래 찬란히 개화발전한 총련문학예술
- (8601) 불멸의 자옥, 고결한 풍모에 대한 빛나는 형상 -다부작 장편소설 <충성의 한길에서>(1~5부)에 대하여-
- (8807) 우리 당의 위대성에 대한 빛나는 예술적 화폭 -장편소설 <아침해>에 대하여-
- (8808) 총서 <불멸의 력사>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문화적 계보
- (8904) 새 조국 건설의 빛나는 아침을 안아온 위대한 령도에 대한 서사시적 화폭 -4.15 문학창작단의 <빛나는 아침>에 대하여-
- (8906) 로동계급의 전형창조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 -장편소설 <빈터우에서>에 대하여-
- (8908) 인민대중을 혁명의 주체로 내세우고 그리는것은 참다운 공산주의인간학의 근본요구
- (9001) 주체적인 우리 문학의 근본특징에 대하여
- (9007)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인생관화한 참된 당원의 빛나는 형상 -장편소설 <녀당원>에 대하여-
- (9008)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주제로 한 시문학의 사상예술적특성
- (9010)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의 려명을 안아온 위대한 력사에 대한 서사시적화폭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에 대하여-
- (9111) 충성과 효성의 빛나는 구감에 대한 감명깊은 예술적화폭 -장편소설 <불구름>에 대하여-

마. 음악·무용

- (6206) 전진하는 혁명 시대의 음악 예술을 창조하자
- (6305) 우리 음악에서의 현대성과 민족적 특성의 구현
- (7808)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것이 명곡이다
- (8004) 주체위업의 첫 진군길에서 높이 올린 충성의 노래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 대하여-
- (8008) 명곡과 명가사
- (8401) 당 정책가요창작방침과 그 빛나는 구현
- (8507) 당을 노래한 가요의 사상예술적특성
- (8706) 새로운 무용표기법은 우리 시대의 귀중한 문화재부
- (8810) 민요를 바탕으로 통속적인 노래를 만드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 (8909) 사회주의조국을 노래한 가요의 사상 예술적 특성
- (9009) 혁명적인 노래는 사람들을 교양하고 투쟁에 불리일으키는 위력한 수단
- (9107)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에 이바지한 전시가요의 사상예술적특성

바. 미술·조각·건축

- (6306) 추상주의 미술의 본질
- (7410) 조선회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문예사상
- (8407) 조선회와 주체미술건설
- (8502) 기념비미술의 찬란한 개화기를 열어놓은 빛나는 령도
- (9002)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운 탁월한 령도
- (9108) 조선회를 기본으로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주체적문예리론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

사. 연극·영화

- (7402) <피바다>식혁명가극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시기 가극예술의 불멸의 가치
- (7402) 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우리의 주체적인 영화예술
- (7708) 위대한 력사, 불멸의 업적을 펼쳐보여주는 기념비적대작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에 대하여
- (7712)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을 그린 빛나는 예술적화폭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에 대하여-
- (7806) 위대한 사랑, 끝없는 충실성에 대한 빛나는 화폭 -예술영화 <첫 무장대오에서 있는 이야기>에 대하여-
- (7810) 우리 시대 연극혁명의 새로운 이정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연극 <성황당>에 대하여-
- (7906) 민족자주의 길, 혁명투쟁의 진리를 밝혀준 불멸의 화폭 -혁명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에 대하여-
- (8005) 조국에 대한 사랑의 빛나는 예술적화폭 -예술영화 <이름없는 영웅들>(1~10부)에 대하여-
- (8305) 영화예술은 대중교양의 위력한 수단
- (8311) 영화실효투쟁은 대중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방법
- (8506) 사회주의현실주체의 영화창작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
- (8604) 영화와 음악
- (8707) 우리 시대 가극 건설과 창조에 관한 불멸의 총서(김정일 「가극예술에 대하여」)
- (8711) 우리 당의 연극혁명방침과 그 위대한 생활력
- (8712) 향토에, 조국애에 대한 교양과 영화예술
- (8811) 우리 당의 령도밑에 창조된 5대혁명연극은 혁명적 연극예술발전의 새로운 이정표
- (8901) 혁명가극 <꽃피는 처녀>는 혁명교양, 계급교양의 위력한 무기
- (8907) 우리 시대 연극예술 건설과 창조에 관한 불멸의 총서(김정일, 「연극

예술에 대하여)

(9006)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영화창작의 올바른 길을 밝힌 강령적 지침(김정일의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 발표 20주년)

(9108) 우리 당이 창시한 영화예술의 빛나는 혁명전통과 그 위대한 생활력

아. 언어, 문풍개선

(6214) 인민적 문풍 확립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6309) 문풍 개선을 위하여

(6517) 남조선에서 민족어의 순결성은 고수되어야 한다

(6701) 우리 나라에서의 문화어의 발달

(6901) 민족어발전의 정확한 길을 밝혀주신 역사적교시(「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 발표 5주년)

(7401) 민족어발전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사상

(7408)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적문풍을 따라배우자

(7605) 주체적인 언어발전의 휘황한 길을 밝힌 위대한 문헌(「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 발표 10주년)

(8401) 언어는 민족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공통성

(8505) 조선어의 형성과 그 통일적발전문제

자. 체육

(6423) 체육을 균증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6911) 우리 당의 주체적인 체육정책의 정당성

(7310) 우리 당 체육정책의 철저한 관철을 위하여

(8501) 체육의 대중화, 생활화

(8911) 건장한 체력은 창조적 로동과 영웅적 투쟁의 중요담보

차. 출판보도(언론)

- (6521) 혁명의 위력한 무기, 투쟁의 참된 교과서(「로동신문」창간 20주년)
- (7010) 김일성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한 우리 당 출판물
- (7409)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 (7611)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혁명적출판문전통은 우리 당 출판물이 계승한 역사적뿌리
- (8301) 출판보도선전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을 철저히 구현한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 방침
- (8312)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자 - <근로자> 500호발간에 즈음하여-
- (8405) 우리 당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은 혁명적출판 보도활동의 지도적지침
- (8504) 혁명사상의 총서, 투쟁의 위대한 기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1,000종 발행에 즈음하여-
- (8610) 당리론선전사업을 더욱 깊이있게 진행하자 -<근로자>창간 40돐에 즈음하여-

카. 민족문화유산 계승·발전

- (6608) 민족문화유산 계승에서의 현대성 원칙과 역사주의원칙
- (7007) 농촌문화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하여
- (7708) 민족문화유물은 나라의 귀중한 재보
- (8002)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
- (8508) 주체의 기치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한 우리 나라 민족문화
- (8703)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주의민족문화건설리론
- (87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민족문화건설사상과 그 위대한 승리
- (8905) 민족가극 <춘향전>은 당의 민족문화유산 계승방침의 빛나는 실현

(9011) 당의 령도밑에 민족문화유산발굴사업에서 이룩된 빛나는 결실

타. 문화혁명

(6212) 사회주의 건설과 문화성 제고

(6519) 우리 나라에서의 문화 혁명

(7109)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와 복고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은 사회주의적민족문화건설의 합법칙적요구

(7207)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문화혁명에 관한 위대한 사상과 그 빛나는 승리

(7605)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문화혁명에 관한 사상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위대한 사상

(8005)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확립하는것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

(8401) 문화건설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존재로 키우는 중요한 혁명과업

(8507) 사회주의문화발전의 합법칙성에 관한 주체적리론

파. 역사

(8106) 조국애와 민족적 긍지를 높여주는 우리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유구한 력사

(8208) 인류력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력사

(8209)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창조적운동

(8303)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관

(8305)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발전의 고유한 합법칙성

(8305) 지도와 대중의 결합은 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

(8308)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사회력사적 운동의 창조적성격

(8605) 주체사상은 사회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밝힌 위대한 사상

(8705) 주체사상이 밝힌 사회력사원리는 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관

V.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

1. 남한혁명

가. 남한혁명 강조

- (6205)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멈출 힘은 없다
- (6211) 반미 구국 투쟁에서의 남조선 로동계급
- (6516) 남조선 인민 투쟁의 20년
- (6701) 남조선에서 맑스-레닌주의당을 꾸리는 것은 혁명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
- (6704)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는것은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
- (6704) 남조선혁명과 학생운동
- (6705) 남조선혁명과 반미구국통일전선
- (6706) 남조선혁명과 로동운동
- (6709) 남조선혁명의 선차적인 요구는 혁명력량을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다
- (6711) 남조선혁명에서의 농민문제
- (6802) 남조선혁명에서 인테리의 역할
- (6808) 남조선에서 강력한 혁명의 주력군을 꾸리는것은 혁명발전의 절박한 요구
- (6903) 남조선인민들은 오직 폭력적방법에 의해서만 주권을 쟁취할수 있다
- (6904) 남조선인민들을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는것은 남조선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
- (6906) 남조선혁명의 기본임무와 당면투쟁과업

- (6907) 미제와 그 주구들의 어떠한 파썃폭압도 남조선인민들의 혁명적진출을 막을수 없다
- (7001) 남조선인민들은 자신의 결정적투쟁에 의해서만 자유와 해방을 쟁취할수 있다
- (7002) 남조선인민들은 사회주의적애국주의사상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 (7003)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화는 남조선 혁명승리의 주요담보
- (7004) 남조선인민들은 4월봉기의 력사적교훈을 잊지말아야 한다
- (7007) 남조선혁명에서 로동계급의 령도적역할
- (7008)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의 결성은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이 이룩한 빛나는 승리
- (7012)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투적기치
- (7101)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남조선인민들이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남조선 혁명승리의 근본요구
- (7103) 남조선혁명력량은 광범한 대중적투쟁을 통해서만 장성강화될수 있다
- (7105) 남북의 애국력량은 단합하여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리자
- (7106) 남조선혁명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적성격
- (7107) 반파쇼민주화투쟁을 적극 발전시키는것은 현단계의 남조선혁명앞에 나선 중요과업
- (7108) 통일혁명당은 남조선혁명의 믿음직한 정치적 참모부
- (7203)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남조선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뜨거운 배려
- (72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 (720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남조선혁명을 남조선인민이 주동이 되어 수행할데 대한 방침
- (7405)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다
- (740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은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 (7605)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 (7706)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은 인간의 존엄과 자주성을 지키며 조국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
- (7812)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절박한 요구
- (8102)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는것은 조국통일의 중요한 담보
- (8701)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미반파쇼민주화투쟁은 정의의 애국투쟁
- (8712) 남조선로동계급의 투쟁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정의의 투쟁
- (8906) 자주, 민주,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서 청년학생들의 역할
- (8908)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는 조국통일을 위한 중요한 조건

나. 혁명에 유리해져 가는 남한정세, 사회적 분위기

- (6214) 최근 남조선 정세 발전의 주요 추세
- (6317) 자주, 자립을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 (6518) <한일 협정>을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 (6521) 남조선 문학에서의 진보적 경향
- (6601) 남조선 정세 발전의 특징
- (6708) 최근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
- (6902) 날로 확대되고 적극화되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
- (7202)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날로 심화발전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구국투쟁
- (7412)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받아래 남조선정세는 혁명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다
- (7503) 4.19의 투쟁정신은 살아있다
- (7802) <유신>파쇼독재를 반대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은 정의의 애국투쟁
- (7910)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의 몇가지 특징

- (8007) 억누를수록 반항은 커지는 법이다
- (8110) 10월인민항쟁에서 발휘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정신은 살아있다
- (8209)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날로 높아가는 반미자주화투쟁
- (8303) 민족적자주권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
- (8401) 반공은 연명책으로 될 수 없다
- (8406) 자주화와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청년학생운동
- (8504) 남조선사회의 자주화, 민주화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의로운 투쟁
- (8510) 최근 남조선에서 강화되고 있는 반미투쟁과 그 특징
- (8612) 남조선인민들의 반제자주투쟁과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위기
- (8709)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
- (8710) 6월인민항쟁은 반미반파쇼민주화를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
- (8812)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
- (8904)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 추세
- (8909) 화산의 분출구에 세워진 정치루가
- (8910) 날로 높아가는 조국통일의 기운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다
- (9004) 우리 민족의 강毅한 자주정신과 기개를 시위한 영웅적4월인민봉기
- (9005)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쇼민주화투쟁을 보다 높은 단계어로 발전시킨 영웅적광주인민봉기
- (9008) 남조선에서 급속히 장성강화되고있는 로동운동과 그 특징
- (9108) 최근 남조선에서 급격히 양양되고있는 반미반파쇼투쟁의 중요특징

2. 대남비방

가. 정치비방

- (6201) 군사 불한당들의 매국 배족 행위
- (6207) 군사 불한당들의 <인간 개조>책동은 무엇을 노리는가?
- (6301) 장기 집권을 위한 군사 파쇼 도당의 책동
- (6311) <이민은 기민이다>
- (6422) 구악을 무색케 하는 신악
- (6515) <한미 행정 협정>의 침략적 본질
- (6701) 미제와 그 주구들은 <반공>으로 저들의 범죄행위를 가릴수 없다
- (6703) 남조선군사파쇼도당의 장기집권책동
- (6707) 군사기지화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기본
- (6908)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식민지통치의 위장물이며 침략도구이다
- (6912) 미제와 그 주구들의 장기<집권>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 (7009) 군사기지화는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기본
- (7010) 남조선의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은 매국배족의 무리들이며 인민의 극악한 원수이다
- (7102) 남조선괴뢰악당의 매국배족적정체
- (7310) <자유민주주의>란 누구를 위한것인가
- (7311)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적리익의 철저한 옹호자들이다
- (7409) 남조선괴뢰도당은 극악무도한 파쇼교형리이며 천추에 용서못할 매국배족의 무리이다
- (7507) <반공>은 멸망의 길이다
- (7609) 남조선괴뢰도당은 악착스러운 부정부패의 원흉이다
- (7612) 남조선괴뢰악당의 <유신체제>는 살인폭압과 민족분렬의 체제이다

- (7708)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 (8201) 남조선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본성
- (8208)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의 특징
- (8211) 남조선괴뢰도당의 외세의존정책은 매국배족행위
- (8301)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현지대리인
- (8309)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식민지통치의 위장물
- (8402) 음모와 모략은 괴뢰도당의 상투적인 수법
- (8403) 남조선괴뢰도당의 <전통문화개발>책동의 반동적본질
- (8405) 남조선괴뢰도당은 부정부패의 원흉
- (8410) 남조선괴뢰도당의 <동반자>론의 반동적본질
- (8411) 나라를 예속과 망국으로 이끈 사대매국노들의 죄행
- (8502) 남조선괴뢰도당이 떠벌이고있는 <운명공동체>론의 반동적 본질
- (8505)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적인 <인력수출>책동
- (8506) 남조선괴뢰정권은 신식민주의예속정권의 전형
- (8512) 남조선괴뢰도당이 처한 심각한 정치적위기와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괴뢰들의 책동
- (8605) 남조선괴뢰도당은 천추에 용납 못할 매국배족의 무리
- (8611) <남침위협>설은 전쟁과 파쇼정책의 산물
- (8703) 남조선은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
- (8706) 군사파쇼통치는 민주주의와 량립될 수 없다
- (8801) 남조선괴뢰정권은 미제의 식민지정책을 집행하는 매국정권
- (8808) 반공은 대결과 분렬, 전쟁의 리념
- (8905) <북방정책>은 <두개 조선>조작을 위한 반민족적 책동
- (8907) 남조선의 현<정권>은 철두철미 예속적이며 반인민적인 군사파쇼 독재 <정권>

- (9006) 3당통합은 새로운 정치쿠데타이며 가장 위험한 반민주, 반통일 책동
- (9007) 남조선괴뢰들이 떠벌이는 <산업평화론>의 반동적본질
- (9011) <국가보안법>은 반통일파쇼악법
- (9112) 남조선괴뢰정권은 친미사대정권

나. 경제비방

- (6216) 신말사스주의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 도구로 복무하고 있다
- (6314) 남조선에서의 심각한 경제 위기
- (6522) 미제의 군사화 정책에 복무하는 남조선 재정
- (6702) 미제의 남조선예속화를 합리화하는 <후진국개발론>
- (7606) 남조선경제의 식민지적예속성과 심각한 파국적위기
- (7911) 남조선경제는 미일독점자본에 명줄을 건 예속경제
- (8005)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남조선경제위기의 특징
- (8109) 남조선경제의 예속성과 그 파국적위기
- (8308) 미일독점자본의 부속물로 전락된 남조선 경제의 파국적후과
- (8409)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남조선농업
- (8509) 미국 다국적자본의 침투와 남조선경제
- (8511) 남조선농업의 식민지적예속성과 농민생활의 령락
- (8604) 미일독점자본에 예속된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
- (8610) 남조선은 세계최대의 채무지대
- (8705) 남조선공업의 식민지적예속성과 그 파국적후과
- (8902) 남조선경제는 전형적인 식민지예속경제
- (8908) 남조선경제의 파국적 위기
- (8909)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의한 남조선 농촌경리의 전면적 파산

다. 사회·문화비방

- (6212) 최근 남조선 문학 예술의 경향성
- (6214) 실존주의의 반동성과 그것이 남조선 사상계에 미치는 해독적 작용
- (6423) 남조선의 사회상과 실존주의 철학
- (6518) 민족 문화 유물의 략탈과 파괴를 허용할 수 없다
- (6602) 남조선 반동 문예 평론의 독소를 반대하여
- (6703) 남조선에서의 미제식민지교육정책의 반동성
- (7407)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와 양풍양화의 썩어 빠진 풍조
- (7703)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남조선사회의 부패성
- (7807) 인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참히 짓밟히는 남조선사회
- (7808) 남조선에서의 공해는 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정책의 산물
- (7901) <통일교회>는 종교의 외피를 쓴 악랄한 반공모략단체
- (7912) 남조선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썩고 병든 사회
- (8001) 미국식생활양식과 왜색, 왜풍에 물젖은 남조선사회의 퇴폐풍조
- (8003) 남조선은 세계최악의 노동지옥
- (8307) 남조선에서 부식되고 있는 승미사미주의사상과 공미굴종사상의 반동적본질
- (8310) 외래어의 <공해지대>로 전변된 남조선사회
- (8407) 남조선에 범람하고있는 말세기적인 퇴폐풍조
- (8408) <부익부, 빈익빈>의 극치를 이룬 남조선사회
- (8708) 남조선 <반공문학>의 민족반역적정체
- (8712) 남조선에 류포되고 있는 미국식 생활양식의 해독적 후과
- (8807) 남조선사회는 가장 반동적이며 부패한 사회
- (9110) 남조선사회는 <부익부, 빈익빈>의 썩고 병든 사회

3. 통일방안, 대남제의, 통일을 위한 투쟁과업

- (6210) 미군을 몰아 내고 남조선 인민들을 구원하기 위한 획기적 조치
- (6219) 조국 통일의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침
- (6515) 우리 당의 조국 통일 정책과 그 위대한 생활력
- (6710) 조선문제는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 (6901)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전투적강령(건국 20주년 경축연회에서의 보고)
- (6911)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가장 공명정대한 방침
- (7109)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방도는 나라의 자주적통일과 전국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
- (720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
- (720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
- (7210) 다방면적인 접촉과 협상의 실현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의 필수적요구
- (7211)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선결문제
- (7212) 주체사상은 조국통일위업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가치
- (7303) 남북에국적민주력량의 대단합을 실현한 역사적인 회의
- (7303) 북과 남이 합작을 실현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숙된 요구
- (7304) 위대한 주체사상의 가치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통일위업은 필승불패이다
- (7305) 민족분렬의 근원을 뿌리뽑고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연설
- (7305) 남조선에서 승미사대주의를 배격하는것은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과업
- (7306) 자주성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의 근본원칙
- (7307)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위대한 통일강령

- (7308) 대민족회의의 소집은 조국통일위업을 촉진하는 현실적인 길
- (7308)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는것은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의 선결조건
- (7309) 단일국호에 의한 남북련방제의 실시는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
- (7312)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위대한 투쟁의 가치
- (7401) 위대한 주체사상은 조국의 통일독립과 민족적번영을 담보하는 불멸의 가치
- (7402) 조국통일위업의 확고한 승리의 길을 밝혀준 역사적문헌
- (7403) 민족의 독립과 번영, 조국의 자주통일을 위한 위대한 투쟁강령
- (7410) 수령님께서 밝히신 투쟁을 통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할데 대한 방침의 정당성
- (741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대민족회의방침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 (7512) 전국적인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는것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담보
- (7603)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3대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현시기 우리 인민앞에 나선 가장 중대한 과업
- (7604)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은 필승불패이다
- (7611)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총회의 결의는 하루 빨리 실현되어야 한다
- (7701) 북과 남이 힘을 합쳐 투쟁으로 분렬을 막고 투쟁으로 통일을 앞당기자
- (7705) 남북협상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방도
- (7707)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위업을 촉진시키자
- (7711)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나라의 완전통일을 위한 선차적문제
- (7803) 우리 민족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여야 한다
- (7804) 온 민족의 대단결로 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자

- (7805)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민족의 영구분열을 추구하는 범죄행위
- (7806) 영구분열의 위험을 막고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발표 5주년)
- (7807) 미제침략군의 완전철거는 조선문제해결의 선결조건
- (78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의 기치
- (7810) 북과 남의 대화와 합작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방도
- (7811)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담보
- (7903) 조국통일은 온 민족이 힘을 합치고 단결하여 이룩하여야 할 역사적위업
- (7904)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우리 당의 위대한 투쟁의 력사
- (7906) 우리 당의 통일전선사상과 그 불패의 생활력
- (7907) 폭넓은 대화의 실현은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중요한 방도
- (8004)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한 위대한 기치
- (8009) 자주성의 원칙을 구현하는것은 통일문제해결의 근본요구
- (8011)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는것은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인 방도
- (8012) 조국통일 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유일한 통일강령
- (8101)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실행해야 할 시정방침은 민족의 지향을 반영한 정치강령
- (8104)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은 온 민족의 지향을 반영한 통일강령
- (8106) 조국통일과 민족대통일전선
- (8107)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정당한 조치
- (8108)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투쟁강령
- (8111) 민족적리념은 조국통일을 위한 대단결의 기초
- (8203) 사상과 제도, 당파와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룩해

야 한다

- (8205)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한 정당한 통일방안
- (8207) 조국의 자주적통일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 있는 근본원칙
- (8306)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단합은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
- (8311)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실현하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가장 절박한 과업
- (8403)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위한 합리적방도
- (8404) 조선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새로운 제안은 세계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있다(남북한, 미국의 3자회담)
- (8501) 미국은 우리의 3자회담제안에 빨리 응해 나서야 한다
- (8503)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입장
- (8505) 북과 남사이의 경제적 합작과 교류는 실현되어야 한다
- (8508) 민족적통일을 위한 우리 당 련방제 방침의 정당성
- (8509)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획기적인 구국방안 (남북국회회담제안)
- (8601) 대화와 협상은 민족의 기대와 통일의 리념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 (8602)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입장
- (8603) 긴장상태를 완화하는것은 북남대화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건
- (8607) 제24차 올림픽경기대회는 북과 남이 공동으로 주최하여야 한다
- (8609)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키는것은 조선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절박한 과업
- (8702) 조선로동당은 조국통일위업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는 향도적기치
- (8702) 대화와 협상은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면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
- (8703) 북남고위급정치군사회담제안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가

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 (87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자이다
- (8706)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화 평화와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 (8707) 조국통일 3대원칙은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집대성한 민족공동의 통일원칙
- (8711)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입장
- (8802)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자
- (8803)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자
- (8804)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민족의 통일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이다
- (8804) 북남련석회의를 소집하는것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
- (8805) 련방국가를 창설하는것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도
- (8806)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자
- (8807)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절박한 과업(교차승인론 반대)
- (8809) 조선문제는 현시기 국제정치무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할 초미의 문제
- (8809) 공화국은 민족적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진정한 조국
- (8811) 통일대화에 참여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실현되어야 한다
- (8811) <교차승인론>은 민족의 분렬을 영구화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
- (8812)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것은 조국통일의 선결조건
- (8901) 북남대화는 통일을 위한 대화로 되여야 한다
- (8902)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평화강령(신년사에서 제안한 평화보장 4원칙)
- (8903) 북남정치협상회의는 통일방도에 대한 민족적 합의를 이룩할수 있게 하는 합리적인 방법

- (8903) 나라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서 실질적인 전진을 이룩하자
- (8904)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조국통일위업
- (8906)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평화통일노력에 호응하여 새로운 정책전환을 하여야 한다
- (8907) 조국통일은 련방제방식에 의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 (8911) 통일된 조국에서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
- (9001)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자
- (9003) 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평화 통일방안(신년사에서)의 제안
- (9004) 조선반도를 비핵, 평화 지대로 만드는것은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절박한 과업
- (9004)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온 위대한 령도
- (9006)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
- (9009) 조국통일 5개 방침은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침
- (9010) 조선로동당은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향도적기치
- (9012)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민족공동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9107)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은 조국통일위업을 더욱 앞당겨나가기 위한 전 민족적통일운동체
- (9110)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앞당겨 실현하자
- (9111)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본질적내용
- (9112) 민족대단결로선은 주체적민족관에 기초한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도

4. 조총련

- (6705) 민주주의적민족권리의 옹호와 조국통일을 위한 총련의 투쟁
- (690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고 재일 조선동포들은 힘차게 싸워나아가고있다.
- (700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총련
- (7205)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의한 해외교포문제의 빛나는 해결
- (7505) 혁명적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총련의 20년
- (78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동포들에게 민족적 존엄과 영예를 안겨주는 영광스러운 조국
- (8405) 주체의 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재일조선의 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위력한 담보
- (8505)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걸어온 재일조선인운동(조총련 결성 30주년)
- (8704)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해외교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다
- (891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외동포들의 참다운 어머니조국(재일동포들의 복송실현 30주년)
- (9005)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존엄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옹호하는 주체형의 혁명적조직(조총련 결성 35주년)

VI. 기타

1. 김일성 및 김정일의 문헌

- (6201) 김일성 수상의 신년사
- (6213) 군의 역할을 높이며 지방 공업과 농촌 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자

- (6218)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 (6301) 김일성 수상의 신년사
- (6520) 조선 로동당 창건 20주년에 대하여
- (6701) 워싱턴에 있는 조선문제연구소 소장에게 보내는 김일성수상의 회답서한
- (6708)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 (6712)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강
- (6802)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20주년 경축연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 (68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돌경축연회에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 (68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무돌기념 경축대회에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수상이신 김일성동지의 보고-
- (6903)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과학교육부문일군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69년 3월 1일)
- (6910) 아련 <다르 알타흐리르>출판사 총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6910)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미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전세계기자들의 과업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축하연설-
- (6910) 이라크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6910) 핀란드공산당 중앙기관지 <칸산 우우티세트>를 위하여 핀란드민주청년동맹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7001) 레바논 <알 안와르>신문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7004) 동방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레닌의 위대한 사상은 승리하고있다(웨. 이. 레닌탄생 100돐에 즈음하여)
- (7101) 우리 당과 4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

- (7106)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6차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 (7106) 축하문(전체 소년단원들에게)
- (7108)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 (7111) 이라크기자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7201) 우리 당과 전체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
- (72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정책들과 몇가지 국제 문제에 대하여 -일본 <요미우리신보>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7210)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 <마이니찌신보> 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 (721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정치리론잡지 <세카이> 편집국장과 하신 담화
- (7301) 신년사
- (7301)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 (7305)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캄보쟈국가원수이며 캄보쟈민족통일전선위원장인 노로돔 시하누크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3년 4월 16일-
- (7307)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체스꼬슬러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3년 6월 23일-
- (7312)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벨라리아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3년 10월 28일-
- (7401) 신년사
- (7401)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전국농업대회에서 한 연설. 1974년 1월 10일-

- (7403) 유고슬라비아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7403) 자주외 기발을 높이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 (7403)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하여
- (7405) 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파>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7410) 세네갈전국가자협회 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7410) 우리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 (7410) 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7411)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
- (7411) 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프레스>사장과 한 담화
- (7411) 파나마기자대표단과 한 담화
- (7412) 페루 <엑스프레스>신문주필 부부와 한 담화
- (7502) 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 고지 점령을 위하여
- (7503)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 (7507)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프랑스프레스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 (7511) 조선로동당창건 30돐경축연회에서 하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
- (7511)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 (7601) 신년사
- (7605) 빨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 (7606)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정치리론잡지<세카이>편집국장과 하신 담화
- (7607) 소년단원들은 지덕체를 갖춘 나 어린 공산주의적 주체의 혁명가가 되자
- (7607) 파키스탄회교공화국 기자들과 한 담화
- (7608) 유고슬라비아 따뉴그통신사 대외편집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7701) 신년사
- (7705)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상무취체역인 편 집국장 일행과 하신 담화
- (7708) 일본방송협회취재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7708) 프랑스신문 <몽드>주필과 한 담화
- (7710)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 (7801) 신년사
- (7801)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 (7805) 상업무문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 (7810)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 (7811) 사회주의교육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 (7901) 신년사
- (7902) 우리나라 사회주의농촌경리를 새로운 단계으로 발전시키자
- (7911) 사회주의로동법을 철저히 관철하자
- (8001) 신년사
- (8010)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개회사
- (8010)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 (8010)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폐회사
- (8101) 신년사
- (8111) 청년들은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가 되자
- (8112) 로동계급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투쟁에서 핵심부대가 되자
- (8201) 신년사
- (8205)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인민정권의 과업
- (8211)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E, D>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 적당이다(김정일)

- (8301) 신년사
- (8305)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김정일)
- (8311) 빨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 나라들은 자주, 독립의 가치를 들고 민족문화를 건설하자
- (8312) 신흥세력나라들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 (8401) 신년사
- (8404)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김정일)
- (8406)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한 혁명적 영화를 더 많이 창작하자(김정일)
- (8409)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김정일)
- (8501) 신년사
- (8503) 사회주의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김정일)
- (850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정치리론잡지 <세카이> 편집국장에게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 (8601) 신년사
- (8606) 조선로동당 건설의 력사적경험
- (8612)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하여(김정일)
- (8701)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 (8707)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김정일)
- (8801) 신년사
- (8809) 반제투쟁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김정일)
- (8810) 주체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 (8811) 모두다 영웅적으로 살며 투쟁하자(김정일)
- (8812)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 (김정일)
- (8901) 신년사

- (8905)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김정일)
- (8912) 로동행정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할데 대하여(김정일)
- (9001) 신년사
- (9002) 관료주의를 퇴치할데 대하여
- (9003)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내올데 대하여
- (9006)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 (9010)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김정일)
- (9109)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김정일)
- (9109)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

2. 기타 문헌 및 참고자료

- (6205) 축하문(김일성 50회 생일)
- (6206) 항일 유격대 창건 30주년 기념 평양시 군중 대회에서 한 연설(최용건)
- (6210) 남조선에서 미국 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전 민족적 투쟁을 전개할데 대하여(최용건)
- (6213) 유고슬라비아 정부의 개조와 그의 경제적 리면(중국의 「인민일보」에서 전재)
- (6215) 조선 인민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업적(중국의 「홍기」에서 전재)
- (6303)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수호하며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단결을 강화하자(「로동신문」에서 전재)
- (6308)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은 조국의 통일과 독립과 번영의 길이다(「로동신문」사설)
- (6308) 출로는 민족의 자주 통일에 있다(「로동신문」사설)
- (7205) 우리 당과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 (730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7611) 축하문 <근로자>편집원들에게
- (7804) 제국주의의 승냥이본성은 변할수 없다(『로동신문』에서 전재)
- (7908) <한국혁명은 주체위업의 계승이며 그 승리를 위한 필수적요청> -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기관지 <혁명전선>에서 전재-
- (8407) 질, 이것은 사람과 집단, 사회의 실제적 장성의 척도이다(형제당들에서, 불가리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의 연설)
- (8501) 로므니아공산당 제13차대회보고
- (8503) 발전된 사회주의의 요구에 맞게(소련공산당의 이론, 전략, 전술)
- (8604) 소련공산당 제27차대회보고
- (8605) 쿠바공산당 제3차대회보고
- (8606)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제17차대회보고
- (8607) 벨가리아공산당 제13차대회에서 한 연설
- (8607) 독일사회통일당 제11차대회보고
- (8608) 몽골인민혁명당 제19차대회보고
- (8609)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제13차 대회보고
- (8609) 폴스까통일로동당 제10차대회보고
- (8612) 축하문 <근로자>편집일군들에게
- (8801) 중국공산당 제13차대회에서 한 조자양동지의 보고
- (8803) 로므니아공산당 전국대표자회보고
- (9110) 중국공산당창건 70돐기념 집회에서 한 연설(강택민)

3. 서적해제

- (6201) <조선 근대 혁명 운동사>에 대하여

- (6208) 위대한 혁명 정신, 고결한 품성(「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인민들 속에서」 해제)
- (6218) <신성 가족>에 대하여
- (6301) <조선말 사전>이 가지는 문화사적 의의
- (6302) 칼 맑스의 <잉여 가치 학설사>에 대하여
- (6303) 조선 철학사 연구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조선철학사(상)」)
- (6422) 혁명 전통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혁명선렬들의 생애와 활동」 제1집)
- (6517) <한국사>를 평함(1) -고대를 중심으로-
- (6524) <한국사>를 평함 (2) -3국~고려 시기를 중심으로-
- (6707) <수탈자는 수탈된다> -칼 맑스, <자본론> 제1권 발간 100주년-
- (6902)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 이룩하신 선전선동사업의 빛나는 전통과 경험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자(「항일무장투쟁시기 선전선동활동」 출판)
- (7205)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탁월한 혁명리론과 천재적전략전술, 혁명과 건설에 관한 맑스-레닌주의백과전서적문헌(「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출판)
- (7906)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외곡하는 현대부르조이철학의 반동성
- (8803) 핵군축과 세계평화를 위하여(고르바초프의 문헌집)
- (8812)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리히 호네케르 저작선집」)

4. 일반교양 및 방문기

- (6207)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 (6207) 로동의 기술적 기준화
- (6208) 혁명 실천과 철학적 방법론

- (6208) 수익성은 기업소 경영 활동의 종합적 지표
- (6210) 철학의 기본 문제
- (6210) 공업 생산물의 원가
- (6211) 분석과 종합
- (6212) 가능성과 현실성
- (6212) 정 다산의 실학사상
- (6214) 자즈의 본질
- (6214) 만물은 호상 연관되어 있다
- (6214) 설비 리용률이란 무엇인가
- (6219) 가격 제정의 원칙
- (6303) 내용과 형식의 변증법
- (6305) 법칙과 혁명 실천
- (6306) 새것의 불가극복성
- (6307) 생산 문화란 무엇인가
- (6308) 정치와 경제의 호상관계
- (6311)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 속도와 로임 장성 속도 간의 호상 관계
- (6311) 실존주의 문학의 본질
- (6312) 인간의 본질
- (6521) <인민적 자본주의론>의 진면모
- (6608) <좌>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한 맑스, 엥겔스의 투쟁
- (6701) 실학사상가들의 애국자주사상
- (6708) 제국주의의 반동과 전쟁 정책에 복무하는 현대부르쥬아철학사조
- (7309) 사상문화분야에서의 자본주의의 반동성과 부패성
- (8401) 부르쥬아인간철학의 반동적본질

- (8407)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확립을 반대하는 현대부르쥬아경제리론
- (8501) 오슈벥점은 고발한다(폴란드 오슈벥점 박물관 방문기)
- (8507) 미제의 침략정책에 복무하는 <구조주의> 언어리론
- (8507) 아프리카대륙에서의 인종주의의 마지막거점-남아프리카
- (8507)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부르쥬아경제리론의 반동성
- (8509) 날로 변모되는 오늘의 중국(방문기)
- (8510) 현대주관관념론철학의 반동성
- (8511) 을사오적은 천추에 용서 못할 매국노
- (8512) 당 11차대회를 맞이하기 위한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근로자들의 투쟁
(방문기)
- (8603) 위기에 처한 현대부르쥬아철학
- (8605) 부르쥬아리론의 반동성
- (8608) 높은 기상을 안고 전진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방문기)
- (8609) 날로 번영하는 벨가리아(방문기)
- (8610) 소련방문의 나날에(방문기)
- (8611) 친선의 정 넘치는 중국방문의 길에서(방문기)
- (8706) <자유의 섬>꾸바를 찾아서(방문기)
- (8708) 날로 꽃피나는 전통적인 조중친선(방문기)
- (8710) 현대부르쥬아경제학의 위기
- (8808) 현대부르쥬아<사회철학>의 반동성
- (9007) 부르쥬아민주주의의 기만성과 반동성
- (9011)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중국(방문기)
- (9111) 자본주의국가의 의회제는 부르쥬아독재를 실시하는 도구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
協力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和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 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분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김정일 體制下의 軍部 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 進展과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Ⅲ): 「근로자」 해제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 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會議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 (1995)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 (1994)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통일문화시리즈>

94-01 統一文化研究(上)

94-02 統一文化研究(下)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해제

研究報告書 95-19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5년 12월 일

發行日 1995년 12월 일
